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48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9월 9일(음력 7월 21일) 수요일(주간)

사람

탤런트 장서희

삼천배 파워로 연기 UP



8월 30일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천일기도 회향법회에 참석한 장서희.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아름답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거야."

'인어아가씨'의 아리영, '아내의 유혹'의 은재를 통해 열연한 불자배우 장서희씨가 봉은사를 찾았다. '봉은사 중창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 회향 법회'가 열린 8월 30일 봉은사는 발디딜틈 없이 북적였다. 천일 기도를 마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회향을 보기 위해 강남 지역부터 성북과 성남 지역까지 2000명을 넘는 불자들이 경내를 가득 메웠다.

"다 비우니 마음 편해"
사찰 순례하며 재충전

회향하는 명진 스님에게 꽃다발을 안겨준 이는 다름 아닌 장서희씨. 장서희씨는 봉은사 신도로 매 드라마 촬영에 들어가기 전 봉은사에서 3000배 정진으로 마음을 다지고 있다. 우중에 치러진 회향식인 탓에 쌀쌀한 날씨에도 장서희씨는 1시간가량 일찍 나와 자리를 지켰다.

그동안 불교는 배우 장서희를 지탱하는 큰 힘이었다. '아내의 유혹' 중 구은재로 참고 참았던 모습에서 도도하고 당당해지는 성격의 미묘한 변화를 표현해낸 연기력 근간에는 '불심'이 있었다.

'아내의 유혹' 제작에 들어가며 "다 비우니 마음이 편해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어떤 연기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말한 그녀가 있기까지는 많은 사연이 있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 공백 기간에 찾아오는 우울증은 피할 수 없는 숙명. 31세에 찾아온 '인어아가씨' 주연 이후 '아내의 유혹'까지 장서희씨는 '회전목마'와 영화 '귀신이 산다', 중국 드라마 활동 등으로 숨 가쁘게 내달려왔다. 중국 진출 후 5만 여 팬들을 보유하는 등 중국 내 최고 한류스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공백과 '인어 아가씨'의 캐릭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어려움, 예능MC를 맡으며 쏟아진 갖은 루머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장서희씨는 2007년에는 소속사를 옮긴 후 이런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1년간 어머니와 함께 전국 사찰을 순례하는 재충전 시간을 가졌다. 심신의 여유를 찾은 그녀는 결국 '아내의유혹'으로 연예계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쉬는 동안 우울증도 있었는데 절에 다니면서 마음을 많이 다스렸다. 연예인이라면 종교를 갖는 게 심적으로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장서희씨.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봉은사를 찾는다는 그녀의 새로운 행보가 불자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모이게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선거모드 '청정·공명' 열망

"선거기간 짧아 검증 미비" 여론 속 후보군 속속 '출마 선언' 전망

10월 22일로 예정된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안팎에서 '청정선거' 열망이 높다.

교계 각 단체에서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차기 총무원장의 자질과 종책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해 후보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중립성 훼손방지 등 선거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표출되고 있다.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 선거인단(각 교구본사 당 선거인단 10명) 240명, 총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이번 선거에서도 '공명선거'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질검증 자리 마련해야

교계 단체들은 종책토론회, 총무원장 후보 자질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공명선거를 호소하고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능원, 운영위원장 법응)가 설립한 불교지도자넷(www.choice33.net)은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올 초부터 청정·공명·종책 선거 연중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발간한 캠페인 자료집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스님, 원로의원 월서 스님, 前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출마를 예상했다. 불교지도자넷은 "후보자 검증과 종책 대결로써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하며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 후보자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벌일 것도 밝혔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진오)도 9월 14~15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6~7월 사부대중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총무원장의 자질 · 종책 ·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분석 보고'를 발표한다. 또 한국불교기자협회 안직수 회장이 '기자가 바라본 종단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 발제할 예정이다.

무르익어가는 청정선거의 열기 속에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정념)와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원학), 동국대 석림동문회(회장 현보)가 9월 7일 열기로 한 종책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3대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3일 토론회 연기를 발표하며 향후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3대승가대학 총동문회 종책토론회는 8월 31일 총동문회장단의 '순수한 애종심의 발로'라는 기자회견 이후 중앙종회 초선의원을 비롯한 스님들의 적지않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유력후보로 꼽히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장)과의 정치적 연대 아니냐'는 의혹과 현 집행부 수석부장인 총무부장 원학 스님(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의 선거중립성 훼손 논란, 회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회장단 결의로 9월 2일 불참을 결정한 동국대 석림동문회의 발표까지 상당한 파장이 야기됐다.

다양한 분석은 역설적으로 선거과정에서 티끌 하나까지 '청정'해야 한다는 종도들의 여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왜 후보 아닌 유력후보인가

선거공고와 후보확정 전 종책토론회 등을 여는 이유를 짚어보면 후보 등록 후 채 10일 밖에 되지 않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공영제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알 수 있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 상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0일부터 3일간'으로 입후보자 자격심사 후 후보확정에서 선거당일까지는 그 기간이 더욱 짧아진다.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법에 기준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예비후보제가 없기에 유력후보로서 각종 종책토론회 등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 중앙종무기관 및 소속 종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에서 각 후보의 관여 기관 및 사조직 동원 금지, 선거공영제도 제도화 돼있지 않다.

한편, 교계 일부에서는 선거공영제 도입과 선거기간 연장, 권역별, 계층별 공청회 등의 목소리에 반해 지나친 사회법 적용은 종교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와 추대 제 등도 주장하고 있다.

#출마 예상 스님은?

총무원장 유력후보로 꼽히는 종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서울 관음사 주지)은 9월 7일 유력후보군 중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종하 스님은 그동안 출마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31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종하 스님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정한 이유에는 원로의원들과 교구본사 스님들을 비롯한 중진 스님들의 광범위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후보 중 한 명인 평창 월정사 정념 스님도 20일 경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념 스님은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학 동문들과 백두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前 중앙종회 의장)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종회의장으로서 화엄회 등 주요 종책모임의 지지를 받는 자승 스님은 현재 해외구호 활동과 청소년 포교사업 등으로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1998년 종단 개혁의 산물로 태어난 조계종 선거문화. 2007년 MBC PD수첩의 '주지선거에서 금권선거가 난무하고 있다' 보도 등이 사회에 회자되며 불자들은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선거제도 속에 2009년 총무원장 선거에 임하는 각 유력후보의 화두는 '당선'이 아닌 '청정'이어야 한다는 게 불자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대장경을 한눈에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는 9월 1일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동국대학교 소장 대장경 특별전 '부처님 말씀 곳곳'을 개최했다. 조계종립 동국대 건학이념인 불교사상을 동국가족에게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동국대가 소장한 48종 대장경 가운데 28종이 전시됐으며, 전시 기간은 12일까지다. 사진은 개막식에서 이사장 정련 스님(오른쪽 두 번째)과 상임이사 성관 스님(맨 오른쪽), 법인사무처장 종성 스님(맨 왼쪽), 정각원장 법타 스님(왼쪽 세 번째), 오영교 총장(가운데), 신재호 도서관장(왼쪽 두 번째)이 전시장을 둘러보는 모습. 박재완 기자

새연재
▶24 박재완의 불교사진이야기
▶28 원력과 신심의 현장

법구경

지나친 집착과 어둠의 길을
버리고 빛의 길을 가서
홀로 기쁨을 찾으라.

현대불교 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 삼랜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듬뿍한 전문
황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10,000원
A5 / 287쪽



죽비와 목탁



임연태 편집부국장
mian1@hanmail.net

미디어 환경 변화와 불교

오늘날 불교 언론의 역사는 반세기로 꼽는다. 1961년 1월 1일자로 발간된 '대한불교(지금의 불교신문)'를 출발점으로 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기적인 간기를 지키는 신문 형태의 매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일제 강점기 때 발간과 폐간을 거듭한 여러 잡지들을 친다면 불교 언론의 역사도 짧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 이후에서 정화국면까지, 그리고 각 종단의 잇따른 창종과 사회언론 환경의 변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 등 숨 가쁜 시간들을 거쳐 오면서 불교 언론은 어땠는가? 아쉽지만, 누가 일일이 자료를 챙겨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한 일이 없다.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접근도 그다지 없다.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100년을 꼽을 수 있는 불교 언론의 역사가 체계적인 연구 환경이나 성과도 없이 시대의 흐름에 내맡겨진 셈이다.

그런 가운데 불교 언론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간의 불교 언론은 뉴스 전달 기능과 전법의 기능을 합친 '포교지' 내지는 '불교문화 교양지' 개념 속에 자리했다. 월간 잡지와 주간신문 등이 대세를 이루다가 2000년 이후 인터넷으로 기반을 확장했고 지금은 인터넷 매체도 상당수 활동하고 있다.

최근 '천지일보'가 창간 됐다. 또 '범종교종합전문지'를 표방하는 '세계종교신문'도 창간됐다. 천지일보의 경우 중도화합을 모토로 내세운 종합일간지이지만 종교관련 뉴스에도 적극적이다. 발행인은 창간사를 통해 "사회 종교 종합일간지 천지일보의 창간을 내외로 선포한다"고 했다. 그만큼 이 신문은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불교계 내부의 단체나 법인에 의해 발행되어 온 불교전문지 시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사회나 문화 뉴스의 한 부분으로 종교를 다뤄오던 중앙일간지나 지역 신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종교계 내부의 전문지들은 지금의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기존의 불교 언론에 뿐 아니라 불교계 전체에도 새로운 '눈뜨기'를 요구할 것이다. 언론이 갖는 '감시기능'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내부'로 치부했던 불교 전문지의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접근해 오는 '외부의 시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태고종 선거 다시 원점

서울지법, 태고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수용

파행으로 치닫던 제24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지방법원이 9월 4일 대은, 도산, 지허 스님 등이 신청한 태고종 중앙선관위 집행 및 선거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태고종은 총무원장 선거를 다시 치루기로 결정하고, 7일 총무원장 선거가 예정된 종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되 후보 사퇴를 받아 총무원장 권한대행 재선출, 중앙선관위 재구성, 선거일정 재공고 등 종단 수습 · 화합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지법 민사50부는 이번 가처분 수용 사유로 "선거규칙이 해당 공고일 이후 제정돼 후보등록이 마감된 후 공포됐으므로 피선거권 침해와 선거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며 종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사50부는 이어 그동안 선관위원장 및 자월 스님 등이 밝힌 '부적격 후보자 난립 방지'의 복수추천 금지규칙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권 행사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확정 지지의사가 아니라, 선거과정에서의 검증을 전제로 최소한의 적격자를 선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판결했다. 또 "그럼에도 중앙선관위 등이 문제가 있는 선거규칙으로 선거를 시행함을 밝혀 종단 내에 혼란이 예상됨으로 가처분으로 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선관위의 '종회의원 중복추천 금지조항'으로 총무원장 후보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대은, 도산, 지허 스님은 선거 공고 이후 규칙을 제정 한 점과 선관위원장을 총무원장 대행인 인공 스님(단일 총무원장 후보)이 임명한 점 등을 들어 △중앙선관위 규칙의 효력정지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세 스님 측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사를 밝히고 "향후 종도 의사를 반영한 총무원장 선거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미얀마 아웅자부 초교 준공

지관 스님 "양국 불교협력의 상징이자 출발점"

2008 년 봄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폐허가 된 미얀마의 아웅자부 초등학교가 조계종의 구호성금과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재탄생했다.

아웅자부 초등학교 건립에 구호활동과 교육사업 지원에 앞장서온 조계종은 지난 8월 29일 미얀마 양곤 인근에 위치한 아웅자부 사원에서 아웅자부 초등학교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어린이 200여 명이 새롭게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됐다.



8월 29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아웅자부 초교 준공식.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세영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세운 학교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번 준공식은 양국 불교계 협력의 중요한 상징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과 함께 학교 건설 등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타구불교협회 대표 나네이사라 스님은 "이곳 학생들이 한국과 미얀마 불자들의 바람대로 미얀마의 미래를 이끄는 이들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선주 기자**

김태영·주호영 불자 국방부·특임장관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9 · 3 개각'에서 불자 2명이 내정됐다. 국군포교에 앞장서온 국군불교종신도회 회장 김태영 합참의장(사진 왼쪽)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된 것을 비롯해, 국회불자모임인 정각회 소속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을 · 오른쪽)이 이명박 정부 들어 신설된 특임장관에 내정됐다. **박선주 기자**

한국 간화선의 특징과 전통

간화선 세미나 11일

한국 간화선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 연찬회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9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0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 간화선의 특징과 간화선 전통의 형성'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김방룡 충남대 교수가 '한국 간화선 선풍의 성립과 특징'을 김종인 부산대 연구교수가 '<선문촬요>와 한국 간화선 전통의 형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병욱 고려대 외래강사,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변희욱 서울대 외래강사가 사회자로는 서재영 불학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한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4개 특위 '출발'

기부체납 종단 환수특위 등 임원단 꾸려

8월 10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4개의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4개 특위는 △국가 및 지자체 등에 기부체납한 사찰의 종단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멸빈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조치위원회 △선거법 개정특별위원회 △승랍기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다.

'멸빈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재심사특위)'는 8월 3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법광 스님, 간사에 재현 스님을 선출했다. 재심특위는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율장정신 실현 등 멸빈을 포함한 징계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2차 회의는 9월 18일 예정됐다.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선거법특위)도 같은 날인 31일 첫 회의를 갖고 일문 스님을 위원장에, 진화 스님을 간사에 각각 선출했다.

선거법특위는 지난 종회에서 논의된 선거법 개정안과 설문조사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선거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2차 회의는 9월 22일이다.

또 승랍기산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이하 승랍특위)도 9월 1일 위원장에 보인 스님, 간사에 승언 스님을 호선했다.

승랍특위는 지난 중앙종회에 상정된 승려법 개정안 계류 문제와 예비승 수행기간 승랍기산시 종헌 위배 여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9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선원, 강원, 율원 대표 등이 참석하는 대중공청회 개최 등을 논의키로 했다.

비회기 동안의 특위 활동으로 조계종의 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덕현 기자**

종산 스님 등 보시 손길 이어져

아름다운동행에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이 추진하는 저소득 실직가정, 군포교 지원을 위한 자비나눔운동에 스님들과 신도 및 단체들의 많은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9월 4일 성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종산 스님이 그동안 조금씩 모아 둔 용돈으로 소외계층과 경제여파로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위해 전달됐다.

같은 날 오전, 아름다운동행은 의약품 전달을 위해 호국원광사를 찾았다. 아름다운동행에 기부된 비타민은 서울시 약사회 산하 천사의약품지원센터가 한국와이어스에서 지원받은 의약품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군인장병들에게 전달됐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2009년 9월 2일 기준 총 모금액 8억3712만7990원은 실직가정 다문화가정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지원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선주 기자**

서울경승지단 경찰포교 재시동

경승단 활동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경승지단(지단장 세민)이 경찰포교 활성화에 재시동을 걸었다.

서울경승지단은 8월 3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경승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울 31개 경승실장을 중심으로 '경승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건 논의에 앞서 경승단 경찰포교활동 역량 미약, 조직성화 활동 연계성, 경승 활동 모델 부재에 대한 현행 경승활동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공유했다. 이어 △서울 경승지단 운영위원회 구성 △공동기금모금 및 연합행사 추진 △법회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의 안건 논의를 열었다.

경승운영위원회는 상시적인 경승활동에 대한 주요 협의 및 결의기구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불교의식(범음 · 범패) 단기 속성 수련생 모집
(제11기 교육)

사단법인 전통불교영산회에서는 실제로 상용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을 여법하게 배울 수 있는 제11기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범종단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단기간 집중적 교육(단기속성 7일간)으로 이론, 실기, 현장학습을 같이하여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11차 불교의식교육에 수행정진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일시 : 불기 2553년 9월 20일(음 8월 2일) 일요일 – 9월 26일(음 8월 8일) 토요일(7일간)
■교육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269-4(밤실마을) 율곡사 (062-263-4575)
■교육대상 : 출가사문(비구, 비구니)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회에서 배부) / 반명함판 사진 2장 / 승려증 사본
■교육동참비 : 일십오만원(교육교재, 숙식, 제반비용 포함)
■접수기간 : 불기 2553년 9월 18일까지
■접 수 : 총무스님 010-3639-2946
교무스님 010-2633-7633 재무스님 011-9605-5155
■생활습의는 대중처소와 같이합니다.(가사,장삼,목탁,요령,필기도구 지참요망)

■교육과목

안채비	(1) 의식편(상단, 중단, 하단의식 불공 등) (2) 제의식편(시련, 대령, 관욕, 시식 등)
거채비	(1) 사물 다루는법 (2) 민바라 (3) 천수바라 (4) 다게(나비춤)

※ 실제 법회에서 상용되고 있는 의식을 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므로 초심자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 수료식 후 수료증과 함께 본회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우수한 스님들은 정회원에 가입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에 동참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통불교 영산회 대중스님 일동 합장

지율 스님, 조선일보에 승소

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도룡소송 대변인'을 자처하며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인 지율 스님(사진)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10원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9월 2일 "과장 허위보도로 지율 스님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 중 일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율 스님에게 입힌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율 스님의 청구에 따라 위 자료를 1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터널공사 지연에 따른 직접 손해가 145억 원 수준인데도 조선일보가 2조 5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위자료 10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소판결을 받은 9월 2일 지율 스님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언론과 정부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종교인의 사회참여를 비하하고 불신의 골을 파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었다. 하지만 소송과정을 통해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진실은 언제가 밝혀진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박선주 기자

"동국인을 위해 써주세요"

태현 스님·현종 스님·최연이 할머니 등 기부 줄이어



8월 2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진 태현 스님(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현종 스님(앞줄 맨 왼쪽).



전 재산을 기부한 최연이 할머니.

조계종립 동국대에 불자 학생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최근 광주 불국사 회주 태현 스님과 서울 삼성암 주지 현종 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이 장학금 1억원을 약정하고 우선 2009학년도 2학기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이어 31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에 홀로 거주하는 최연이 할머니(73 · 법명 연불심)가 2억1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동국대에 기부했다. 이미 동국대 의과대학에 사후 시신기증까지 신청한 최 할머니는 직물공장 직공과 합천 해인사 등에서 공양주 보살 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을 내놓았다.

최연이 할머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아파트를)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요긴하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최 할머니의 뜻에 따라 기부 받은 아파트를 처분해 장학기금으로 인재양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태현 · 현종 스님의 장학기금은 태현 스님의 법호를 따 '연봉 장학'을 제정했다. '연봉 장학'은 '불교 청년지도자육성 장학금' 사업에 편입돼 불자 학생에게 매학기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는 10월 10일 오후 4시부터 전체 동문 및 기부자가 참여하는 '2009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

조동섭 기자

"기본합의 수용해야 통일 논의"

화해상생마당 '통일 평화 모색' 심포지엄



9월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화해상생마당 심포지엄.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 · 15남북공동선언, 10 · 4공동선언을 예외없이 수용하고 재확인해야 통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중도적 사회원로모임인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장 윤여준)'은 9월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전환기에 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종식 선언과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통일만이 완전한 자주독립이고 일제침략의 상처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인은 '포용정책 2.0버전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백 교수는 "현 위기를 남한의 일부 보수 세력 중심으로 타개하려는 것은 한국자본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수준과 주변국들의 현실주의적 선택을 아울러 무시한 처방"이라며 "포용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세력이 국정을 주무를 수 없도록 국내 정치 사업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세일(서울대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한반도 위기의 본질과 선진화포용 통일론'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정책만 있었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의지를 담은 정책은 없었다"며 "언젠가 우리나라 대북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여야 합의, 국민동의 없이 대통령 개인의 소신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장은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는 국가적, 국민적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대북 정책도 당국자 정책뿐 아니라 북한 동포에 대한 직접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의 '선진화 통일 추진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토론은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 윤여준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장 前 환경부 장관, 그리고 김용호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박선주 기자

"일본의 독도 강탈야망 규탄"

평불협 · 조불련 공동 성명 발표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라 조선 동해이며 독도는 다께시마가 아니라 대대손손 우리겨레가 살아온 우리의 신성한 영토이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는 9월 1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서기장 정서정, 이하 조불련)와 공동으로 '일본의 독도 강탈야망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평불협과 조불련은 성명서를 통해 "조선 동포들은 민족 대단결의 기치 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6 · 15공동선언과 10 · 4선언을 실천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고 일제의 독도 강탈야망을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며 "하나로 합쳐 신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나가려는 온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불협과 조불련은 내년은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일본의 독도강탈행위가 계속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삼천일기도 회향 "아직 할 일 많아요"

33년 교도관 복무 후 퇴직한 이남수씨



"또 다른 시작입니다. 소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부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발원과 회향의 삶을 살 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끝 동네'라고 불리는 구치소 안에서 남몰래 선행을 펼쳐 온 이남수(59 · 사진) 거사는 지나치리만큼 겸손한 모습이었다. 이남수 거사의 '이웃을 위한 3000일 기도 회향식'이 있던 9월 3일 안양 선우정사(주지 선타)에는 신도들과 기도 회향을 축하 하기위해 달려온 서울구치소 직장 동료들이 자리를 메웠다.

6월 서울구치소에서 33년간 교도관으로 복무하고 퇴직한 이남수씨. 그는 서울구치소불심회 회장을 역임하며 사형수 3명을 감형하는 등 종교를 초월해 평생 기도하며 살아왔다. 남다른 포교활동에 전념해온 그는 수용자들에게 어머니이자, 간호사이자 의사였다. 사형수를 위한 감형발원기도, 영치금 지원, 불서와 염주, 내복 지원 등 아낌없는 자비행을 펼쳐왔다. 남모르게 펼쳐진 선행은 끝이 없었다. 이러한 그의 선행은 모두에게 감동으로 전해져 서울구치소불심회 회원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정도였다.

"한 번은 자신이 사형될 것을 모르고 있었던 수감자가 오므라이스를 주문했습니다. 오므라이스를 전달하러 갔을 때 그는 이미 사형집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슬픔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삶이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앞으로 저는 이차돈의 순교정신으로 불교 증흥을 위해 쉼 없이 계속 기도하며 살 겁니다. 선우정사의 버팀목으로 어린이 포교와 전법, 선명장학회 설립, 거사회 활성화 등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유지에 따라 유산을 장학회 설립에 쓸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3000일 기도 회향날이 우란분절 백중날인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상언 기자

"교과부 조치 미봉책에 불과"

서불대 학생회 기자회견… 조속사태해결 촉구

교육과학기술부의 잇단 계고에도 여전히 표류 중인 서불대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서불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학생회(회장 오세준, 이하 서불대학생회)는 9월 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서불대학생회는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로 나온 조치들은 서불대 이사회에 위기를 모면한 기회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15개월간의 걸친 이사들의 만행을 허울 좋은 미봉책으로 묵과하고, 그 책임을 전혀 물으려하지 않는 교과부의 해결방식은 서불대학생들의 학습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앞으로 더 장기화 될 서불대 비극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현 이사회의 전원 승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부당한 이사회에 항의했던 교수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졸업은 또다시 바람 앞의 등불처럼 불안하고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교과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롱하고 사학비리에 편승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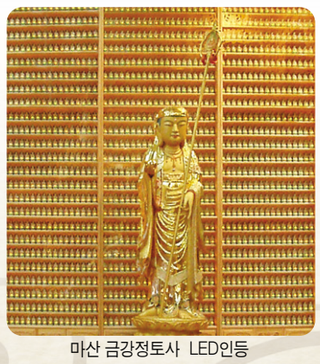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생명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희망걷기
1. 일시: 9월 26일(토) 오후 1~5시
2. 장소: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내 별자리광장)
3. 코스: 월드컵공원 난지순환길(6㎞)
4. 참가대상: 환우와 가족,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단 기업봉사단 등 누구나
*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품 증정 예정
5. 접수기간: 9월 21일까지
6. 신청문의 및 접수: (사)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www.lisa.or.kr
주최: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 등 8개 불교언론사
후원: 행정안전부, BS HLA Lab, 녹십자 의료재단, (주)은은, 서울메트로 안국역
모금계좌: 농협 053-01-271485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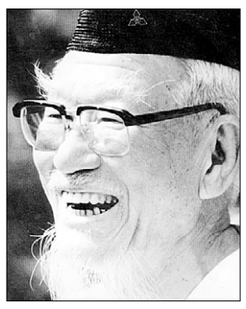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장경호 · 서경수 · 김기추 거사 '조명'

대한불교진흥원, 9~10일 한국 대표 재가 거사 3인 조명 발표회


대원 장경호 거사.


혜안 서경수 거사.


백봉 김기추 거사.

유마 거사, 방 거사, 부설 거사와 같은 삶을 살다간 재가불자 3인의 삶을 조명하고 불교가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9월 9~10일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법당에서 창립 43주년을 맞아 재가불자 3인 조명 특별발표회와 '세상을 위한 불교' 토론회를 개최한다.

9일 열리는 행사에는 20세기 한국 불교를 빛낸 재가불교의 표상인 대원 장경호, 혜안 서경수, 백봉 김기추 거사를 통해 그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펼친 재가불교운동을 조명하게 된다.

장경호 거사(1899~1975)는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이자 동국제강을 창설한 사업가다. 입적을 앞둔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30여 억원을 위탁하며 불교의 중흥을 꾀했던 대표적인 재가불자다.

행사에서 김재영 교수(청보리회 지도법사, 동방불교대학)는 주제발표 '장경호 거사의 대원불교운동'에서 "대원불교의 창립정신은 생활선, 나눔의 수행정신과 쉬운 불교를 위한 개혁, '전 국민적인 포교운동'을 추구해 왔다"며 "장경호 거사가 생애를 던져 추구한 대원불교운동은 입적 이후 대한불교진흥원등을 통해 줄기차게 추구되고 있는 일련의 불사들을 포괄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김 교수는 "대원운동의 새로운 중창기를 맞아 대원대학을 졸업한 인재와 법사 4000여 명이 중심이 돼 대원위원들과 불교계의 공익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익위원들로 구성되는 가칭 '대원불교운영위원회'를 진흥원 이사회의 산하자문기구로 설치해 대원 주체의 결집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김광하 대표(작은손길)는 '백봉 김기추 거사의 삶과 사상'을 발표한다. 김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백봉 선생의 주변이야기와 삶과 사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기추 선생(1908~1985)은 독립운동가로, 참선수행을 통해 생활 속의 불교를 주창하는 등 현실에 바탕한 살아있는 불교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김광하 대표는 발표에서 무위당 이원세 선생, 백은 변동조 선생 등이 백봉 선생과 겪었던 일화, 인생 선언문, 재가선원 보림선원의 일상과 인생을 소개한다.

김광하 대표는 "'앉은뱅이 부처는 없다'고 말했던 김기추 거사는 스스로 학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끊임없이 좋은 방편을 찾아내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 유마거사의 화현"이라며 "선생의 뜻을 이어받는 길은 스승의 행적이나 말을 모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넣은 아집과 미망을 깨울 혜안과 새로운 방편을 기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교수(영남대)는 서경수 거사(1925~1986)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서경수는 다면불(多面佛)갖춘 사람"이라며 "학문과 수행의 결합으로 인도사상을 배경으로 한 폭넓은 연구에서도 불교를 문헌적 · 역사적 연구로 박물관적 대상으로 추락시키는 근대 서구 불교학 방법론의 모순을 극복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이 교수는 "호국 불교가 지닌 근본적 종교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서경수 교수"라며 그동안 업적에 비해 저평가돼 있던 서 교수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서경수 거사는 한국 불교학 연구의 거목으로 불교근대화 담론의 방향과 소재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서 거사는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불교연구를 위한 '불교백년사편찬위원회' 설립, 근대불교에 관한 연구 활성화와 선구적 역할을 했다.

이어 10일 개최되는 '오늘의 호국' 토론회에서는 21세기의 현대적 상황과 시대정신에 따라 호국불교의 방향과 차원을 고민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자로는 이한구 교수(성균관대), 이남곡 대표(좋은마을운동)가 참여하고 우희종 교수(서울대), 김재원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칠 상임이사는 "9월을 '대원문화의 달'로 지정해 내년부터는 매년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 불교의 세계화, 불교문화포교를 위한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흥원의 설립취지를 살릴 것"이라며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재가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주인공으로 불교포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나간 거사들을 되돌아보고 미래 한국불교의 실천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 8~15일 다보빌딩 3층 법당과 로비에서는 거사 3인 관련 사진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02)719-2606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시대와 호흡하는 인재양성에 앞장"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108인회 등 석종사서 여름수련회


왼쪽부터 여성불자108인회 김인숙 회장, 이인자 고문 등 80여 명의 여성불자가 입제식을 봉행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승만보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108인회(회장 김인숙), (사)지혜로운여성 여성인재개발센터(센터장 황수경) 여성리더십교육 1~5기 졸업생 80여 명은 8월 29~30일 충주 석종사(선원장 혜국)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여성불자108인회와 여성리더십교육 졸업생들은 입제식,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의 법문, 박광서 교수의 '종교차별의 현실과 불교여성지도자의 역할' 강좌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김인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가정주부다. 가정을 비우고 사찰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줘서 감사하다. 행사를 통해 가정의 화목을 위한 지혜를 얻어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단연 혜국 스님의 법문이었다.

혜국 스님은 "참선은 이해가 아닌 체험을 통한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라며 "마음의 번뇌망상을 비우는 순간 그대로 부처다. 내가 깨닫고 부처가 아니라 본래 내가 부처임을 알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연기법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매 순간 내 마음 상태를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라"고 당부했다.

박광서 교수는 "우리나라 여성불자 리더인 여러분과 정치, 사회, 지식인들이 불교를 제대로 모르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미래를 위한 종교인 불교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종교 편향이 없는 국가를 위해서는 불교지도자들의 인식전환과 실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시대와 호흡하는 인재양성, 타종교가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에 대해 당당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불자108인회 여름수련회는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로 진행됐으며 회원간 교류의 시간, 여성불자108인회 사업방향 등이 논의됐다.

여성리더십교육 졸업생들은 혜국 스님의 천도재 영가법문 동참, 리더십 심화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행사를 통해 참회와 발원, 현재의 나, 가족 나아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한국여성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승만보살이었다.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혜국 스님의 '신심명' 강의=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9월 9일부터 10개월간 매월 둘째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혜국 스님의 <신심명(信心銘)> 강좌를 실시한다. 혜국 스님은 충주 석종사 선원장 ·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로 일생을 참선 정진만 해 온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승이다. 동참비는 20만원으로 선착순 120명 접수 받는다. (02)735-2428

●재가자 하안거 산철방부 '위없는 바른 수행'= 봉화 축서사는 9월 19일~11월 1일 재가자보살 선원인 보현선원에서 재가자 하안거 산철방부 '위없는 바른 수행'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30만원으로 25명 선착순 접수 받는다. 한편 매달 3째주 토요일에는 경험자와 초보자로 나눠 철야참선법회도 진행한다. (054)672-7579

●사마타-위빠사나 집중수행= 보리수선원은 9월 11~20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사마타-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수행은 아나빠나사띠 좌선수행으로 진행되며, 하루 한 차례 평등 스님과 개인 인터뷰를 통해 수행점검을 받을 수 있다. 수행 참여는 일정 중 두 번의 주말수행과 주중 수행 신청도 가능하며 1일 수행보시금은 1만5000원이다. (033)333-8429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전문지도자과정 모집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는 제29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전문지도자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오픈마인드(Open Mind) 및 팀워크(TeamWork) 진행법 , 모션송, 율동, 박수 파트너 게임, 팀게임 진행법 등 실기 위주로 진행된다.

교육은 9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향천선원에서 진행된다. 60시간 이상 교육이수자에게는 2급 지도자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각종 행사시 현장 실습 기회, 수료 후 전문지도자로 활동 가능하다.

교육비는 교재, 재료비 포함 35만원으로 9월 16일까지 선착순 20명 접수 받는다. (02)738-7860

이상언 기자

조계사에 장학금 약정

궁플란트 치과

무료 시술 봉사로 자비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종로구 궁플란트(원장 최우환) 치과병원은 9월 3일 조계사에 장학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협약식에서 최우환 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500만원씩을 조계사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콘텐츠에서 새 패러다임 모색

풍경소리, 10일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전국의 지하철을 중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풍경소리(대표이사 회장 혜자, 도선사 주지)가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공간, 매체, 콘텐츠를 통한 포교의 지평 확대'를 주제로 9월 10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박수호 ·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가 '포교공간으로서의 지하철 역사와 새로운 포교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박경준 교수(동국대)가 '풍경소리의 내용과 형식에 나타난 사상성 탐구 및 발전적 모색'을 △박형신 교수(고려대)가 '풍경소리 활동을 통해본 불교문화운동의 지평 확대'를 △이재수 연구위원(동국대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이 '불교 콘텐츠(게시물)의 대중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용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총장은 "불교 포교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포교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불교가 한국문화의 중추이자 문화발전의 추진동력으로 명실상부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 736-5583

이상언 기자



금시조 날아오르니, 종소리 은은하네

서산 부석사 범종불사 천일기도 회향 · 타종법회 봉행… 새 모양 종두 '첫 선'

1300년 고찰 서산 부석사에서 1000일 동안의 범종불사를 마치고 중생의 무명을 깨우는 범종이 첫 타종됐다.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8월 30일 범종불사 1000일기도 회향과 함께 타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남해 용문사 주지 성전 스님를 비롯해 유상곤 서산시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설정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된 행사는 육법공양, 삼귀의례, 반야심경, 범종조성 축사, 법어, 범종조성 발원문, 타종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설정 스님은 법어에서 "범종 조성은 일체중생의 번뇌가 끊어지고 지혜의 눈, 깨달음의 눈을 뜨게 하고 안락과 행복의 인연을 주는 의미가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부석사 불사가 원력을 세워 이뤄놓은 것이기에 지금에 이르게 됐다. 앞으로도 원력과 신심을 가지고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석사 신도와 절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의 원력으로 금시조(金翅鳥)범종불사를 하게 된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라며 "금시조종이 21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예술작품으로서 새로운 양식개척과 새로운 중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8월 30일 서산 부석사 1000일 범종불사기도 회향식에서 주지 주경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유상곤 서산 시장은 축사에서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만공대선사들이 머물며 선풍을 떨치는 등 서산을 대표하는 역사적 고찰인 부석사에 범종이 조성된 것을 16만 시민과 함께 감사드린다"며 "범종의 맑고 깨끗한 소리가 서산 시민의 번뇌와 업장소멸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조성된 금시조 종은 전통 쇠북형태에서 한 마리 소리치는 새의 형태로 종의 형상과 의미를 전환시켰다. 주경 스님은 도학회 교수(한서대)에게 불교에서 용을 잡아 먹고 사는 새로 그려지는 금시조를 형상화 해달라며 '이전과는 다른 종'을 요청했다. 도 교수는 이에 신라종의 종두에 있는 용의 머리를 대신해 용의 형태적 특성을 일부 가미한 금시조 머리의 종두를 만들었다. 또 보통 대나무 모양의 음통 대신 여의주에 음통의 소리조절기능을 넣는 등 독특한 디자인의 종을 디자인했다.

금시조 종을 주조한 원광식 성종사 대표(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는 "도학회 교수가 제시한 디자인이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이라 약간의 거부감과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제작단계에 이르자 새로운 시도에 대한 흥분과 자신감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신라 의상 스님과 선묘낭자의 애절한 창건설화를 간직한 부석사는 1300년 된 고찰이다. 조선초기 무학대사가 중창하고 한국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이 승속의 제자들에게 불법을 전한 역사적 사찰이었으나 일제의 침탈과 한국전쟁 등으로 많은 토지와 성보들을 잃고 점점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1999년 주경 스님이 취임한 후 산신각과 주지실을 신축한 후 수행선원, 템플스테이 전용관, 전통찻집, 사자문, 사찰 내 문화재 보수공사, 후원 겸 강당, 요사채 복원공사, 불상입상 조성, 석탑 등 중창불사에 힘을 쏟고 있다. 또 2003년부터는 템플스테이를 하는 일반 재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산사음악회, 한문학당, 영어교실, 부처님오신날 어르신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언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호법불교 발전에 계기 되길"

대구 관음사, 포항에 분원 개원

대구 관음사(회주 우학)는 9월 21일 경산, 칠곡, 구미, 중국 청도도량에 이은 9번째 분원을 경북 포항시에 개원한다.

포항도량은 고속버스터미널 앞 학산빌딩 6층에 위치해 있으며 661.16㎡(약 200여 평)의 규모로 불단과 법당, 종무소, 서점, 공양간 등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우학 스님은 직접 강의하는 불교기초교리반을 모집해 포항도량에 10월 7일 오전 · 오후반을 개강한다.

관음사 포항도량은 우학 스님의 천개 분원 건립 불사의 일환으로 지어진 것으로 재가불자들이 손쉽게 사찰을 찾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됐다.

우학 스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포교당이 개설 되지만 부처님의 가피와 많은 이들의 인연, 도움으로 많은 행복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호법불교발전에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10년에는 서울, 광주, 뉴욕 등 천개분원 건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음사는 제6기 단기출가학교 입교생을 모집한다.

50세 미만의 독신남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계식 및 삭발식을 시작으로 15일 동안 참선, 감포도량 무문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에게는 회주 우학 스님의 유발상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학 스님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삶의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주는 기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더 나은 질의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단기출가학교는 10월 5~19일 보름간 운영되며 선착순 모집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053)474-8228

이나은 기자

문무왕릉비편 재발견

국립경주博, 200년 만에 상단 확인

682년 경주 사천왕사에 세워졌던 신라 문무왕릉비편이 200여 년 만에 재발견됐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경주시 동부동 주택내에서 신라 제30대 문무왕릉비편을 확인했다고 9월 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견된 문무왕릉비편은 그동안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던 문무왕릉비의 상단부분으로 1796년(정조 20년) 비편들이 발견된 이래 200여 년 만의 발견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공개한 문무왕릉비편 상단부.

비편은 발견당시 주택 내 수돗가 마당에 시멘트로 박혀 있었다.

국립경주박물관 측은 "비편이 장기간 노출에 의해 표면이 훼손되고 가장자리 부분 등의 일부는 마모가 심한 상태이나, 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이번 비편 상단의 발견으로 청나라 금석학자 유희해(1793~1853)가 1796년 발견된 비편의 내용을 실은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일부 글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비석의 하단 부분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돼 '사천왕사' 특별전에 전시중이다. **조동섭 기자**

160 선인 나툰 미륵세계 펼쳐져

보은 법주사, 진영각서 '벽화전' 개막

보은 법주사에 80폭 160선인들로 가득한 미륵세계가 펼쳐졌다.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는 8월 27일 경내 진영각에서 '신비로운 도솔천인 벽화전 미륵세계 비천상 벽화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비천상 벽화는 법주사 용화전 천정에 장엄될 180재로 원광대 김범수 박사가 1년 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한 대작이다.

김 박사는 작품을 위해 돈황석굴 및 중앙아시아의 벽화에 그려진 비천상 및 주악도 등을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인체의 비례에 맞는 밑그림으로 활용됐다.

노현 스님은 "김범수 박사가 지난 1년간 작품에 쏟은 정성은 한이 없다"며 "세계적 수준의 불모와 화원들이 이루어 낸 장엄한 불사 회향의 자리를 불보살님들이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박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비천상은 동양문화권의 비천상 형식을 수집하고 이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표현해 낸 것"이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석채로 제작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범수 박사는 일본 경도예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원광대 동양학대학원에서 주임교수 및 문화재보존수복연구소장과 범해회화문화재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문화재 안전견 배치

목조문화재 화재 감시

목조문화재의 화재 감시를 위해 '문화재 안전견'이 배치된다.

충남도(도지사 이완구)는 천안 성불사 등 도내 목조문화재에 문화재 안전견 10마리를 배치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문화재 안전견이 배치되는 시설은 천안시 성불사를 비롯해 연기 비암사, 부여 고란사 등 전통사찰 등 10여 곳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목조문화재에 인력을 배치했을 때 연간 90억원 가까이 들지만, 개를 배치하면 9억 3000만원에 불과해 소요비용이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문화재 안전견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문화재로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조동섭 기자

미타삼존불 봉불

단양 광덕사, 13~14일

단양 광덕사(회주 혜인)는 9월 13~14일 100만불전 미타삼존불 봉불식을 봉행한다.

행사는 13일 오후 5시 전야제를 시작으로 삼귀오계 수계식, 국제고승 법문, 선지식 초청법문, 수덕사 정혜선원 입승 현전 스님을 비롯한 선방 수좌스님들이 대중들과 함께 하는 철야용맹정진이 이어진다.

14일에는 오전 4시 새벽 예불에 이어 법문 · 천도의식, 점안불공, 점안식, 봉불식이 봉행된다.

광덕사 측은 "13일 심야의 선지식 초청법문에는 고산 · 혜정 · 보성 · 정관 · 등각 · 종진 스님 등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과 중국 및 일본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덕사는 행사에 참여할 불자들을 위해 13~14일 양일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교통편을 준비했다. (043)421-4700

혜철 충청지사장

장학금 전달

대구 대성사 9명에


대성사 주지 도산 스님이 불자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김도산)는 9월 1일 불자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불자학생은 대구전자공고생 3년 손정훈 학생 외 9명으로, 총 500만원의 대성사 보리봉사회 장학금이 수여됐다.

도산 스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장한빛 仙師]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암등 난치병 공동연구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애타게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

전수교육 수료자 체험사례

18세때 무술에 입문하여 사범, 관장시절 저의 무술도장에서 회원들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대체의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뼈접골, 침술, 지압, 기공, 최면술, 카이로프락틱 등 각종 단체로부터 또는 개인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에게 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옥살이도 했습니다. 이윽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조금은 조국이 원망스럽기도 했지요. 시간이 흘러 미국을 떠나 이민국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지금까지 원주민을 상대로 기 치료를 하면서 가끔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차 지난 8월 12일 기내에서 모 일간지를 통해 원장님의 특강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웬지 느낌이 와 닿아 전화 접수후 바로 교육에 임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속는 셈치고 휴식도 취할겸 해서 참석했는데, 막상 교육을 접하고 보니 정말 기적같은 현실이 일어나더군요.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원장님의 능력과 투지, 그리고 인자한 성품, 열정적인 연구자의 모습까지 정말 감동했습니다. 원장님의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창원에서 기 치료사 박○○○ (10기수료)

국민일보 5월 14일 자 13면 하단에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최고수 활인비법전수 안내라는 광고문을 보았다. 그동안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의 질병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경침과 봉침에 대하여 교육도 받았고 관심이 많은 터라 자세히 광고문을 읽는 중에 정골정체, 정혈청혈, 통경활락이라는 삼정요법과 비법전수라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5박6일의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나서 보니 여기와보지 않았더라면 두고두고 후회를 할 뻔 했다. 침술비법은 물론 교정법, 터주기등 임상실험과 함께 이명으로 고생하던 할아버지가 듣게 되고 20년동안 다리가 저려서 유명한 병, 한의원을 다 다녀보았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던 환자가 2회의 시술로 뛰는 것을 보게 되고, 후두통이 즉시 사라지고 요통으로 고생하던 교육생이 완치가 되는 등.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놀랍고 대단한 세계 최강, 최고수임을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의학의 도인이고 인술의 대가이시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반드시 또 와야겠다.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김○○ 목사 (3기 수료)

처음 교육때는 배워서 남을 치료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지병부터 고쳐보고자 생각하고 왔는데 나의 생각이 너무 옹졸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몸을 관리하면서, 옆에 아픈 분들과 관리를 하면서 그 즉시 각종 통증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병원에 수없이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낫지 않았는데 단 몇 분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모든 통증이 싹 가시고 낫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십수년 동안 아파왔던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졌다. 또한 위장병과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생각이 확 바뀌었다. 이 좋은 치료방법을 배워서 남을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대한 모독이며 선사님의 가르침에 대한 따르지 아니 함이니 부족하나마 열심히 배워 활인비법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몇 번 망설인 끝에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하며 왔는데, 지금의 생각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과정이 몸에 익어 가는 것 같다. 침 몇 개로 오십견과 허리통증을 낫게 하고 정골정체 비법으로 몇 분만에 몇 십년 앓아오던 관절과 발 저림을 낫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런 좋은 활인법을 가르쳐주신 원장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번교육에 같이 참석하여 서로 도와주며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승려 ○○ (3기 수료)

◆三正요법 [Triple Combination Therapy]

1)正骨整體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活人氣功)
2)正血淸血 :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3)正氣(通經活絡) : 萬病之根源 氣滯血瘀, 세계최강 山蔘면역침술

▸ 교육장소 : 강화 한빛건강修練院 (전등사인접)
▸ 교육기간 : 9월 11일 ~ 9월 13일 2박 3일
9월 25일 ~ 9월 27일 2박 3일
▸ 교육안내 : 032)937-2808, 7182
▸ 전수비용 : 기초과정 / 고급과정 / 연구과정 100만원
▸ 주최 : 제 3의학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 후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 지원센타 (피부,비만,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지부설립문의)
▸ 弟者구함 : 자연의학,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 주경야독하면서 醫通君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구합니다

내과적영역 초.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백내장, 치주염,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 (파킨슨,루게릭은 임상중)

※ 10년 ~ 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 ~ 10회의 시술로 90% 이상 치유됩니다.

외과적영역 수술날짜받은 경추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초기강직성척추염, 안면마비, 모든 종류의 두통, 삼차신경통, 좌골신경통, 골반통, 항강통, 어깨결림, 오십견, 테니스.골프엘보우, 수족마비, 3.4기골다공증, 하지무력증, 통풍, 류마티스,퇴행성 무릎관절염, 악성무좀,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생리통, 채머리증, 수전증, 족저통, 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 ~ 20년 이상 된 묵은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90%이상 사라집니다.

●교육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 (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 한의사, 중의사, 물리치료사, 승려, 목회자, 태권도, 합기도 관장, 수련원, 단식원 운영자 및 대체의학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

이웃 종교 RELIGION

세계교회협회 제10차 총회 부산서

개신교계 2013년 확정 "125년 한국교회 역사 최대 경사"

세계 개신교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개신교계는 2013년에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에 "125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최대 경사 중 하나"라며 기뻐했다.

WCC총회는 2013년 9~12월 중에 개최되는데 총회 날짜는 차기 WCC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다.

1948년 출범한 WCC는 110개국 349개 교회와 교단을 포괄해 선교와 봉사,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교회 협의체다. 로마 가톨릭을 제외한 대다수 개신교회와 정교회, 성공회 등 전 세계 5억6000만 기독교인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기독교계 '유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WCC가 7년마다 개최하는 총회는 정의, 평화, 인권 등 WCC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에큐메니칼(교회 일치와 연합)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자리로 '기독교 올림픽'으로 불린다.

총회가 진행되는 10일간 전 세계 교회 · 교단 대표단과 옵서버, 자원봉사자, 언론인 등을 포함해 5000~6000여 명이 한국을 찾게 된다. 또 2013년 총회가 루터교 세계연맹(LWF),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총회와 함께 개최되면 참가자 수는 더욱 늘어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앞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최고 책임자에 노르웨이 출신 올라프 F.트비트 목사(49)가 선출됐다.

WCC는 2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앙위원 1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열어 WCC 사무국 총책임자인 사무총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올라프 목사를 선출했다.

WCC 사무총장은 '개신교의 교황' '개신교의 유엔 사무총장'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며 내년 1월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나은 기자

목숨으로 신앙 지킨 순교자 기려

한국천주교회 9월 '순교자 성월'… '화해 나눔 축제' 등 행사 다채

한국천주교회가 정한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각 교구 다양한 신심 행사를 마련했다.

죽음으로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 천주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정하고 103위 순교 성인들을 비롯해 성인 반열에 오르지 못한 무명 순교자들을 기리고 있다.


한국의 103위 순교성인.

1925년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79위가 시복되자 한국천주교회는 복자들이 가장 많이 순교했던 9월 26일을 '한국 순교복자 대축일'로 정했다. 복자들을 현양하고 공경하는 신심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9월을 '복자성월'로 지내게 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는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을 맞아 9월 19일오전 11시, 여의도 광장에서 "화해 · 나눔 · 증거의 축제"를 연다.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헌혈과 장기기증 접수, 103위 시성식 기념표석 축복식, 장엄미사 순으로 진행된다.

대전교구 해미 성지는 9월 11일, 해미읍성 내 회화나무에서 생매장 순교지까지 등불과 묵주를 들고 '십자가의 길' 행렬을 한다.

부산교구 선교마라톤회는 9월 12~13일 무박 2일 동안 '하느님의 종' 125위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삼랑진에 있는 김범우(토마스) 묘~죽림굴~살티~ 언양 성당~부산 오륜대 순교자 기념성당까지 123km 구간을 이어 달린다.

가톨릭신문사는 9월 12일 서울 새남터 성당에서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을 맞아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기리며 순교의 참뜻을 되새기는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한다.

한편 103위 순교자를 소개하는 책들도 나오고 있다. 1984년 순교자 103위가 성인으로 시성되기까지 로마에서 시성 청원인으로 활약했던 윤민구 신부(손골성지 전담신부)는 당시의 기록을 담은 <특별한 한국천주교회사-103위 성인의 탄생 이야기>(푸른역사 펴냄)를 내놓았다.

이나은 기자

중생구제 발원하니 상담이 '해답'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개강… 2010년 전문가 과정 개설

자살, 이혼 등 개인적 비극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때, 중생구제를 발원하며 출가한 스님들이 직접 상담자로 나서겠다며 배움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불교계는 그 동안 우울증 · 자살 등의 사회문제들을 재가불자들이 주축이 돼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해왔다. 승려전문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에 상담학과가 개설된 것이 눈길을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승가대학교(총장 태원)는 지난 5월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을 개설해 9월 7일 2학기 개강을 맞았다.

5월 입학한 55명의 스님들은 지난 학기 △불교와 상담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개론 등의 심리학 기초과목을 배웠다. 2학기에는 △초기불교수행과 상담 △특수분야상담을 교육받게 된다.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학장 능인스님은 "이웃종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상담심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인력을 배출하고 있었는데 불교계에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상담심리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불교계는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중앙승가대는 상담대학 설립을 통해 △전문 '불교상담' 승가 인재의 배출 △불교상담을 중심으로 한 교육 기회 제공 △불교상담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토대마련 △불교상담을 통한 현장지원 강화 및 포교역량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승려전문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는 지난 5월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을 개설하고 전문적인 불교상담심리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입학식 모습.

중앙승가대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은 수강대상 학인스님에게 졸업특전을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해 적극 참여를 꾀하고 있다. 불교상담대학은 졸업자에게 불교상담심리사 2급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대학원 졸업자는 불교상담심리사 1급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대학 · 대학원 졸업자 중 자격증을 취득한 스님들은 △교계 각종 상담기관에서 상담원으로 활동 자격 부여 △불교상담대학 세미나 참가 △교계 내외의 상담행정 업무 등의 특전을 받게 된다.

불교상담대학이 일반상담 심리학과 차별화된 점은 불교를 토대로 상담심리를 배우기 때문에 경전수업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빠사나, 자비명상과 요가, 만다라, 선무도 등을 토대로 하는 표현예술치료를 가르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지향한다.

불교상담대학 교육국장 도영 스님은 "첫 입학한 55명의 학인 스님들 다수가 일반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했다. 이 가운데는 석 · 박사 학위를 가진 스님들도 있다"며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기에 상담 심리를 할 때에도 폭넓은 시각과 사고를 가질 수 있다"고 일반 상담심리사와의 차별성을 설명했다.

교육과정은 앞서 설명한 과목 외에도 △유식학과 상담 △표현예술치료 △임상 및 상담실제 △명상과 심리치료 △가족 상담치료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강의가 진행된다.

교수진들은 현 불교상담이외 일반상담도 함께 공부한 박사출신이 대부분이며 모두 일반대학에서 강의와 교수 및 실습도 병행하고 있다.

중앙승가대는 2010년 전문가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전문가 과정을 졸업하는 스님들은 △불교 상담심리 전문 슈퍼바이저 자격 부여 △자격 전문가는 불교상담심리 연구 및 개발 평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이처럼 승가대학이 전문 · 체계화된 불교상담대학을 개설해 스님들을 양성 · 배출하는 좋은 취지를 갖고 출발했지만 어려움 또한 있다. 바로 학인 스님들의 학비지원 문제다.

도영 스님은 "군 · 경찰상담 쪽에는 개신교계가 대부분 포진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상담을 해야하는데 많은 스님들이 상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 체계화된 자격증이 없어 투입이 어렵다"며 "이러한 스님들 중 공부를 하고 싶어 하나 금전적 문제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스님들이 많다"고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매주 수요일 마다 공양해요"

한국불교대학, 어르신 무료급식

경제위기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불교대학 복지재단이 9월 2일 진행한 무료급식봉사에는 500여 지역 어르신이 참가했다.

한국불교대학 복지재단(대표이사 해봉)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9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12시에 신천 희망교 다리아래에서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2002년 개관한 이래로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에게 중식제공을 해온 복지재단은 토요일(600여 명), 수요일(200여 명)로 나눠 800여 명의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봉 스님은 "사회봉사활동에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53)474-8228 이나은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온가족 다함께 책읽기 배우자

구립증산정보도서관, 문화행사 '풍성'

은평구립증산정보도서관(관장 엄무성)이 9월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도서관은 △창의적 독서 논술 특강 △까만 닭, 얼룩소 △책 마당 △올바른 투자원칙과 방향성에 관한 경제특강 등을 준비했다.

엄무성 관장은 "어린자녀들의 글쓰기 능력향상과 올바른 독서습관을 키우도록 준비했다"며 "'까만 닭, 얼룩소'는 어린 자녀들에게 다문화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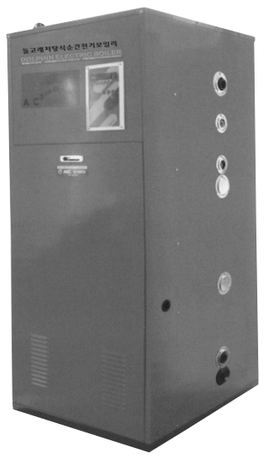
논술특강은 9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가족연극 '까만 닭, 얼룩 소'는 9월 13일 오후 7시, '책 마당'은 9월 19일, 경제특강은 9월 24일에 열린다.

한편 도서관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영어동화랑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님들이 율동과 함께 노래로 익히고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영어와 친숙해지는 놀이 모임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02)307-6030

이나은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테라와다와 동반관계

임승택 교수 주장

테라와다(上座部)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보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파불교다.

임승택 경북대 교수는 한국테라와다불교(대표 빤냐와로)가 8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 전통과 테라와다불교'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테라와다불교와 한국불교의 공생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주제발표 '한국불교의 현실에 비춰본 테라와다불교의 현황과 과제'에서 "한국불교는 테라와다불교를 소승불교라 폄하해서는 안 되고, 테라와다불교도 한국불교의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불교가 지닌 우수성을 바탕으로 테라와다불교를 하나의 모범사례로 참고해 경쟁자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원효 학술상 제정

2010년 5월 첫 시상

원효의 사상을 현대 학문과 연계시킬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원효 학술상'이 제정된다.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한구 · 성균관대 교수)는 '원효 학술상'을 만들어 2010년 5월 첫 수상자를 선정 · 시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원효 학술상'은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의 지원을 받아 △교수 △박사 후 연구자 △학부~박사과정생의 3개 영역별로 총 3000만원의 연구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이한구 교수,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칠 상임이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조동섭 기자

오피니언 리더 10년, 대안을 논하다

'불교평론' 9월 12일 창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1999년 겨울, 불교지성인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놨다. '불교의 현대적 해석' '불교를 통한 사회비판' '사회 속에서의 불교 이해'를 모토로 창간한 계간 <불교평론>.

창간부터 줄곧 <불교평론>(편집인 홍사성)은 한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불교적 비판을 선도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철마다 찾아온 <불교평론>에는 불교계는 물론 사회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비평과 비판이 있었다. 정보의 전달자에 그치지 않고 열림을 통한 소통을 실현하며, 불교계의 오피니언 리더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매 호 참신한 주제로 기획된 특집은 불자와 비불자, 출가자와 재가자, 일반불자와 불교학자 등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매 호 수록되는 20여 편의 논문은 중진학자들의 예리한 안목과 신진학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세상에 소개하는 창구가 됐다. 매 호 게재된 수많은 콘텐츠들은 <불교평론> 사이트(www.budreview.com)를 통해 과감하게 무료로 공개됐다. 매 호 발행되는 3000부의 책자는 사회 곳곳에서 지혜가 필요한 곳에서는 문수보살로, 행이 필요한 곳에서는 보현보살로, 경책이 필요한 곳에는 팔부신장의 화현으로 나투어 왔다.



창간 10주년을 맞은 <불교평론>.

지금까지 배출된 논문 800여 편은 일반불자 뿐 아니라 불교학 전공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인용할 정도로 <불교평론>의 콘텐츠는 공신력도 갖췄다.

현재 <불교평론>의 독자는 3000여 명, 사이트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콘텐츠를 접하는 사용자까지 합하면 매월 1만 여 명이 넘는다. 독자 · 필자 중에는 불자가 아닌 개신교 등 타종교 지식인과 서양철학자 등도 있다. <불교평론>은 그야말로 현대판 이판사판 야단법석의 장이다.

지난 10년간 불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불자지성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불교평론>이 창간 10주년을 회향하는 또 하나의 법석을 마련했다.

계간 <불교평론>은 9월 12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행사는 '문명사적 대전환 불교가 대안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이어 △연기적 독존주의와 열린 공동체(박병기 교원대 교수) △사성제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이창재 프로이드 정신분석연구소장) △자아중심적 세계에서 연기와 공의 불교적 세계로(조은수 서울대 교수) △불교와 마르크시즘의 동몽이상(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탈현대철학의 동일성과 차이의 늪에서 벗어나기(박치완 외국어대 교수) △진화론과 뇌과학으로 조명한 불교(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발표된다. (02)739-5781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천수주'서 시작돼 '천수경' 성립

한국선리연구원 발표회서 이성운씨 밝혀

<천수경>은 전국 사찰에서 <금강경> <지장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과 함께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 중 하나다. 현행 <천수경>은 어떻게 성립됐을까?


8월 31일 선리연구원 월례발표회에서 발표자 이성운씨, 박경준 교수, 정각 스님(오른쪽부터).

동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성운씨는 한국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이 8월 31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천수경>의 구조와 의궤 등을 밝혔다.

이씨는 주제발표 '현행 <천수경>의 재검토'에서 △'천수주'를 활용하는 발원의궤가 원 의궤로 확립됐다는 점 △'천수주'를 중심으로 몇몇 의궤가 결합해 저녁송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 △저녁 송주 소참 이후 도입되면서 준제행법과 함께 현행 <천수경>의 기본 골격을 갖췄다는 점 △참회계 · 진언에 삭제와 추가를 반복하며 현재의 모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운씨는 "현행 <천수경>에는 발원성취 · 엄정도량 · 참회서원 · 준제관법 · 멸악취 의궤들이 모여 삼매수행과 염불삼매 등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유근자 동국대 외래강사는 '간다라의 불전 미술과 탄생 도상'을 통해 초기불전 미술 속의 탄생 관련 도상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떤 변화를 갖는지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개심사목조아미타좌상 보물 지정

문화재청, 봉정사 목조관음상 등 5건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9월 1일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중요문화재 5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2~13세기 조성됐다. 고려 후기 목조불상 가운데 최고(最古)로 추정되며, 조각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불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동 봉정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은 1199년에 처음 조성돼 1363~1364년 사이와 1751~1753년 사이에 중수됐다.

여러 개의 나무를 접합한 접목조기법(接木造技法)으로 조성된 불상의 눈은 수정을 감입했다. 아직 고려양식으로 변모하지 않은 이국적인 풍모, 긴장감 넘치는 옷 주름 등은 고려후기 새롭게 대두하는 신고전주의(新古典主義) 불상 양식의 시원적 형태를 간직한 상으로 평가된다.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1622년(광해군 14)에 만들어졌다. 불상의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에는 "원 봉안처는 조선시대 왕실의 부녀자들이 출가 수행하던 자인수양사(慈仁壽兩寺)이며, 광해군의 정비인 장열왕후(章烈王后)가 광해군과 세자, 세자빈, 본인 및 작고한 친정부모, 작고한 대군과 공주의 천도를 위해 모두 11존의 불상과 불화를 동시에 조성했다"고 쓰여 있다.

이 불상은 11존상 중 하나로 현재까지 밝혀진 유일한 예에 속한다.

이 외에도 <용비어천가 권 1 · 2(龍飛御天歌 卷一 · 二)>(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과 <용비어천가> 권 1 · 2, 권 71 · 8(龍飛御天歌 卷一1 · 二, 卷七1 · 八)(고려대중앙도서관 소장)이 보물 지정 예고됐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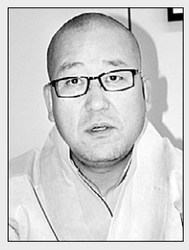
감로탱 · 불교언어 논문 눈길

미등 스님 "민간생활 반영"

윤희조 박사 "시대마다 표현 달라"

"감로탱에는 조성 당시의 민간생활이 반영돼 있다." (미등 스님)

"초기불교 언어는 관습적 표현을 중시하고 윤리적인 함의를 담았고, 상좌부불교 언어는 표현의 문제, 유부의 언어에서 진리의 차원 문제를 강조했다. 각 학파의 언어적 특징은 이제설로 구분된다." (윤희조 박사)


미등 스님.


윤희조 박사.

학술행사와 가을 학위수여식을 통해 불교학과 관련한 다양한 논문이 쏟아지는 때 각각 감로탱과 불교적 언어관을 주제로 한 논문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미등 스님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김영식)이 8월 27~28일 서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 등에서 '한국의 기록문화와 법고창신'을 주제로 개최한 제2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스님은 주제발표 '조선시대 감로탱화 하단장면과 사회상의 상관성'에서 조선시대 조성된 감로탱화의 하단 육도윤회상에 표현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데 주목해 논지를 펼쳤다.

감로탱화는 수륙재나 49재 때 쓰이는 의식용 불화로 하단에는 육도윤회상이 표현돼 있다.

미등 스님은 "감로탱화는 하단에 표현된 추천대상과 구제대상을 육도윤회에서 해탈시키는 장치로 중단에 시식의례를 설정하고 있다. 중단에 그려진 의식을 통해 인로왕보살의 인도를 받아 불보살의 세계로 극락왕생하는 상승적 장치로 돼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감로탱화 하단에 표현된 내용과 여제의 대상을 통해 조선시대 원혼과 고혼에 대한 관념을 읽을 수 있다"며 "감로탱화 하단의 장면을 통해 일반 민중들의 삶과 인식세계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감로탱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늘날 조성되는 감로탱화는 민족간 이념의 갈등,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산업사회로의 변화된 모습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희조 박사는 학위논문 '불교에서 실재와 언어적 표현의 문제'에서 불교적 언어관을 해석했다.

윤 박사는 "불교에서 언어는 진리로 이끄는 수단으로 긍정적 역할도 하지만 희론과 분별과 견해로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강조됐다"고 말했다.

윤희조 박사는 "불교에서는 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실재를 기술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지각에 의해 실재를 증지하기를 강조했다"며 불교의 자성(自性)을 △실체로서의 자성(초기불교의 아트만 등) △찰라생멸하는 현상으로서의 자성(중관의 무자성 · 공 등) △다른 것과의 구별에 필요한 자기동일성으로서의 자성(유부의 자성)으로 구분했다.

윤 박사는 "불교의 언어관에서 그 변화의 연속성은 자성에서 찾을 수 있다"며 자성과 이제설(세속제와 제일의제)로 초기불교 등의 언어적 특징을 밝혔냈다.

한편, 올 가을학위수여식에서는 불교와 관련해 동국대 불교학과, 선학과, 미술사학과에서 7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광 스님(서울 능인선원)을 비롯해 이화여대에서도 1명의 박사가 배출됐다.

조동섭 기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삼존불 점안 및 부처님 진신사리(36과) 이운 대법회

모시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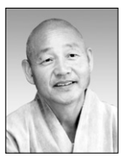
귀의 삼보 하옵고

강원도 평창 약수사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사를 원만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계절에 삼존불 점안식 및 부처님 진신 사리(36과)이운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지 혜명 합장

점안일자 : 2009년 9월 20일 일요일
점안시간 :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약수사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289번지)
문 의 : 033)332-3623 / 010-4621-2915

일주문



옻염색 전시회개최

통도사 서운암 회주 성파 스님 9월 9~14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9월 22~27일 대구 호반갤러리에서 옻 염색 전시회를 개최한다.



통일부 오찬서 협의회 구성 등 논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법혜 스님은 31일 홍양호 통일부차관 초청 오찬에 참석 종교지도자 상생공영 포럼 개최, 통일부단체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8각10층사리탑 원불 점안식 봉행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8각10층 사리탑내 봉안할 원불 1만3,617위 점안식을 9 · 11 · 12일 오후 3시에 봉행한다.



'…수도원의 고행' 출판기념 사인회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은 8월 29일 대구 교보문교에서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 출판기념 사인회를 가졌다.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간화선 수행론 연구-화두 참구의 원리와 방법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과학기술원 특별 강연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은 9월 8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특별교양강좌에서 '한국 정신문화에 대하여'란 주제로 강연했다.



노인종합복지관 검정고시반 모집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능인 스님은 9월 18일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입검정고시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031)919-8677



마르퀴즈 후즈후 2010년판 등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에너지복합연구원 김민수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2010년판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인사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 불교문화연구소장 김천학, 불교문화연구소 부소장 박창환, 교무팀장 박찬기, 경영지원팀장 겸 시설관리팀장 박혁하 임명.

▲BBS 불교방송(사장 최명준): 보도국 사회문화팀장 전경윤, 보도국 보도제작팀장 강동훈 임명.

"모교 위해 동문 역량 모을 터"

東大 총동창회장에 이연택씨… 지관 스님 방문 "학교발전에 진력" 다짐

동국대 새 총동창회장에 이연택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이 추대됐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8월 28일 임시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이연택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제25대 총동창회장으로 추대 · 선출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9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이 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총동창회장)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동국대 총장을 역임했던 총무원장스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이연택 총동창회장 추대 소식을 듣고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계종립 동국대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택 회장은 "최근 동국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실망스런 결과가 나와 걱정스럽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결과가 좋아지는 만큼 총동문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동국대 동문들은 종단과 재단이 힘을 모아 동국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본인도 이를 위해



9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이연택 동국대 총동창회장.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연택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청와대 행정수석, 총무처장관,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하고, 대한체육인불자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2002한일월드컵조직위 공동위원장,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정부와 체육 행정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행정학 박사)와 법과대학 석좌교수를 맡아 후배들을 가르쳤고 2008년도에는 '자랑스런 동국인' 상을 받기도 했다.

정부행정과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저서로는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가 있다.

한편, 이연택 총동문회장이 평양국제대성회를 주도한 우리민족교류협회 명예임원으로 활동한 이력에 대해 이연택 총동창회창측은 "불자임에는 틀림없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심부름 하는 시자라 생각"

조계종 6교구 신임 주지 원혜 스님



"심부름 하는 시자라고 생각하고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산중 · 대중공의 제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8월 24일 마곡사 산중총회에서 신임 주지로 당선된 원혜 스님(사진)은 9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열린 주지 임명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중화합책을 최우선 과제로, 생태연구 지원과 염불 · 범패 교육원, 선원 불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혜 스님은 "그동안 불교계 안팎에서 주지 선거 등을 둘러싼 마곡사 문제에 대해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본사 시자로서 본말사 대중 스님과 불자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 사중화합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임 주지 두 명이 임기동안 비위혐의로 물러나는 등 교구 파행을 극복하고 제6교구 본사의 위상과 전통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뜻. 주지 선거 공약인 교구 승려노후복지기금은 재적승을 대상으로 교구내 노인요양센터 등 기관 등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도 밝혔다.

교구 운영과 인사에 대해서 스님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실천계획은 없다"며 "그동안 있었던 본말사 간의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산중 · 대중공의제를 통해 경청하고 사찰운영위원회 주도로 절살림을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염불과 참선 수행이 자랑이었던 마곡사 전통을 되살리고 불자들이 참선과 명상을 통해 쉴 수 있는 사찰로 가꿔나가겠다"며 "우선 수행도량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선원불사와 염불강원, 범패교육을 강화하고, 불자들을 위해서는 단기출가 명상학교와 생태연구를 위해 마곡사 전답을 개방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임명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며 "마곡사는 크지 않은 절이지만 인물이 많이 난 곳"이라며 "마곡사 산중 스님들과 대중 개개인이 희생해 하나된 마곡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故 김 前 대통령 차남, 지관 스님 예방

31일, 보좌진 함께 불교계 감사 전해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국회의원이 8월 3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오른쪽 부터 김홍업 의원, 지관 스님, 한광옥 前 비서실장.

이날 예방은 김 전 대통령 국장 기간 도움을 아끼지 않은 불교계에 대한 감사 차원이었다. 예방 자리에는 김홍업 국회의원과 한광옥 前 비서실장 등 보좌진이 함께 했다.

김홍업 의원은 "장례기간 보여준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조계사 세민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문병부터 조문, 또 장지까지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고인이 좀 더 살아있었으면 큰 역할을 했었을 텐데, 그 빈자리는 남은 사람들이 메워야 할 일"이라고 격려했다.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김 前 대통령과 유가족들의 향후 일정에 대해 김홍업 의원은 "49재는 공식행사로 유가족들은 추모기간으로 설정, 추모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템플스테이 체험

삼성전자 로지텍 임원들

삼성전자 로지텍(주)의 임원 52명이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 이들은 8월 28일부터 1박2일 동안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주지 지원)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산사의 건강비전 체험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육지장사의 고유한 프로그램인 '약석온구 체험'을 비롯해 촛불명상 건강명상 다도 발우공양 숲길보행명상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약석온구 체험'은 게르마늄, 1000년 묵은 기와 맥반석 옥돌 등을 천연 한방재료와 섞어 가마솥에 구운 다음 단전이나 환부에 찜질을 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임연태 기자

불교교리경시대회 준비는 어떻게?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출제 심사위원장 발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9월 12일 예정인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요강 및 출제심사위원장을 발표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교리경시대회 출제위원장에 화엄학림 학장 법인스님, 동국대 박경준 교수를 선출했다. 그 밖에 출제위원으로는 불교학 전반의 전문가로 교수, 학자, 교법사, 교사 등으로 구성됐다. 법인 스님은 "성인중심의 포교정책 등으로 인해 청소년 포교는 전무한 상태"라며 "불교교리경시대회를 통해 청소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경준 교수는 "청소년들이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 포교 매체 및 콘텐츠 발전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시대회는 총 50문항으로 객관식 5지 선다형 40문항, 주관식 10문항으로 출제된다. 세부요강 열람 및 원서접수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홈페이지(http://gyori.paramita.or.kr)를 통해 가능하다. 수험번호, 응시장소, 고사장 안내 등은 9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심사는 개인상, 단체상, 특별상으로 나눠 이뤄진다. 불교신행활동의 모범자로 자원봉사, 문화재지킴이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나서고 있는 학생에게 수여되는 특별상은 학교, 사찰,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지원서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이상언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 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 수련기간 : 2박 3일 ■ 수련인원 : 1~3명 ■ 수련비 : 150만원 ■ 개강일 : ① 2009년 9월 14일(월) 오후 1시

스님이 직접 강의 하고 스님들만 교육 받는 유일한 곳

많은 스님들께서 최면 교육에 비싼 비용과 무리한 시간을 내어 최면을 수련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스님된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딱! 일년만 저렴한 비용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스님들이 최면을 완벽하게 시술 할 수 있도록 최면 강좌를 열겠다고 그것이 소승의 의무라고 생각 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벌써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150여분의 스님들이 미흡한 제 강좌를 들으시고 최면을 시술 하시어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소식에는 스님들께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정락 스님이 강의를 너무 쉽고 편하게 가르쳐준 덕분이라는 그말엔 송구 스러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소승은 오히려 150여 스님들께 감사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말을 제 가슴에 새길뿐입니다. 이제 약속의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특별 개인 지도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세미나와 수련회에만 열중하여 유마 최면 연구소 정회원님들께 고난이도 테크닉 전수와 각 회원님들이 삼생의 시공을 넘나드는 자기 최면 완성을 돕는데 진력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대상 최면 교육의 명가

≫ 많이 하는 질문

질문 1) 정말 2박 3일에 최면을 시술할 수 있나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답)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소승에게 그동안 150여 스님들이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매주 시간을 낼 수 없고, 신분 노출을 꺼리시는 30여 스님들께서 개인적으로 2박 3일 수련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있게 최면 시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내에 완벽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이 저의 교육 노하우라 할까요? 비법이라 할까요? 같은말 인가요? 하~하~하

질문 2) 2박 3일 교육이 끝나면 끝입니까? 제가 둔해서 한번 교육에 최면 시술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 걱정 하지 마십시오.
2박 3일 교육을 받으시면 시술을 하지 못할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 한다면 언제든지 무료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승에게서 공부하신 스님이 현실에서 최면을 활용하지 못하신다면 제 성질이 그런것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승이 책임져 드립니다.

일대일쇠 개인 지도

질문 3) 이론 공부가 부족하지 않은가요?
답) 네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최면 강좌를 시작하기 전 많이 고심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학문과 기능? 학문과 기능이라? 그리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기능을 우선으로 하자입니다. 학문의 심오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자면 수년의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스님들께서 불사와 포교를 하시는데 몇 년의 시간을 할애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 했고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깊은 학문이 필요 없듯이 최면 시술을 하는데도 깊은 학문적 이해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기능면에 치중 하였습니다. 학문적 욕구가 절실한 스님들이 계시면 서점에 가면 최면에 관한 서적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최면 이라는 검색어만 쳐도 최면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도 많은 자료가 있어 기능이 완벽하면 학문에 대한 갈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소승은 최면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더불어 완벽한 최면 테크닉에 중점을 두고 강좌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마 최면 연구소 연락 전화 032)349-0666
수련원 : 경기, 안성시 금강면 한운리 산 171번지
홈페이지 http:www.yuma119.com

세미나 및 수련회 안내

- 일시 : 2009년 9월 24일 (목요일) 오후 1시 - 9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소 : 유마최면연구소 수련원 (백련사)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 주제 : 1. 최면 시술상 고난이도 테크닉
  2. 시공(時空) 이동 자기 최면의 완성
  3. 묻고 답하기
  ※ 자격 : 유마 최면 연구소 정회원 준비 관계로 9월 15일 까지 참가 신청한 회원님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 유마 홈페이지 / 참여 마당 / 자유 게시판에 기수와 법명을 올려 주십시오.
  Ⓑ 핸드폰 문자 ☞ 010-5100-6612로 기수와 법명을 올려 주세요.
  Ⓒ 인터넷이나 핸드폰 둘 중 하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비 : 8만원
  - 기타 : 모두 참석 하시어 최면 시술중 궁금중과 답답함을 해소 하시고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교 원형 고스란히 남은 '서도소리'는 찬불가

팔월에서 구월로 건너가는 마지막 날, 서도소리꾼 중요무형문화재 한명순씨를 만났다. 서도소리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 즉 서도(西道)지역에서 불리던 민요나 잡가 등을 말한다.

한명순씨는 크지 않은 체구에 동안(童顔)을 간직한 분이다. 남도소리와 경기소리는 익숙하지만 서도소리는 조금 낯설다고 했더니, "서도소리 중 '수심가' '배뱅이굿' '난봉가' 등은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것"이라 했다. 서도소리의 특징을 물었더니 생각지도 않은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서도소리에는 불교의 원형이 가장 많이 살아있어요. '십장엄염불' '산염불' '자진염불' 등 불교적인 요소가 참으로 많아요. 서도소리 중 '배뱅이굿'은 '부모은중경'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고려시대에는 평양중심으로 팔관회라든가 연등회가 열렸기 때문에 서도소리에 불교 전통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도소리는 불교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팔관회(八關會)와 연등회(燃燈會)는 신라 진흥왕 때 시작돼 고려시대에 들어서서는 국가적 종교 행사로 발전했다. 팔관회 때는 지방의 장관들이 글을 올려 하례하고, 송나라의 상인이나 여진(女眞)의 사절들이 축하의 선물을 바치는 국제적 불교행사였는데, 서도소리에는 그러한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한명순씨는 6세 때부터 민요를 부르고 다녔을 정도로 소리는 운명적으로 다가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2세 되던 해, KBS 라디오 '민요백일장'에 나가 인기상을 받았다. 이때 찬조출연 한 '서도소리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김정연 선생이 한명순씨를 눈여겨보았다. 이것이 인연이 돼 1974년 충청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김정연 선생 집에서 기숙하면서 서도소리를 배웠다.

"어떻게 보면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덕분으로 이 길을 걷게 된 것인지도 몰라요. 가장이 없는 집안에 열두 명이나 되는 식구에게는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 입 하나 덜 수 있다면 스승을 따라 가거라'고 하데요. 그때부터 소리는 저에게 사탕도 됐고, 밥도 됐고, 때로는 눈물도 됐고,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노릇을 하데요."

김정연 선생은 한씨의 재주를 귀하게 여겨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 일 년여의 지도를 받은 후 김정연 선생과 함께 무대에 섰다. 스승은 그녀를 큰 무대 작은 무대 할 것 없이 데리고 다녔다. 1986년에는 스승과 함께 '수심가'를 녹음해 세상에 음반을 내놓기도 했다. 스승이 아끼는 애제자였기에 스승은 자신의 계보(系譜)를 이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20대의 방종과 방황으로 그 기대를 저버렸다. 한 때는 소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었지만, 운명이 놓아주지 않더란다. 또 다시 자신의 운명은 소리로 결정지어졌음을 확인했고, 신명을 다 바쳤다.

'십장엄염불' 하면 온 몸이 울림통… 배뱅이굿 '은중경'서 나와

마음 다스리는 방편으로 '나무아미타불' 지극정성으로 염불

스승은 불교 언론지 <불교시보사> 사장으로 활동한 독실한 불자였다. 그 스승 덕분으로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다. 사찰의 초파일 행사를 비롯해 상량식 등 다양한 행사에 스승과 함께 초청받아 공연했다. 그때 '십장엄염불'이나 '산염불' '자진염불'을 할 때면 자신의 온 몸이 울림통이 돼 소리를 토해냈다. 그야말로 소리삼매가 아니라 염불삼매에 빠져들곤 했단다.

한명순씨는 스승에게 전수 받은 '평안도 다리굿'을 새롭게 재조명해 연희극으로 무대화시켰다. 한씨는 2005년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평양다리굿'을 재현했으며, 2006년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평양 다리놀이 연희극'을 공연해 국악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다. 또 서도소리 축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연희극이었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평안도다리굿은 평양지방을 중심으로 북한 전 지역에서 행해지던 굿으로 망자의 혼령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위령굿입니다. 평양기생 출신이었던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평양시내에 '에누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에누다리를 통과해 상여가 나가는데, 이 다리는 여자들은 건널 수 없었데요. 할 수 없이 에누다리에서 죽은 혼을 천도하고 보내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 한바탕 굿을 하던 것이 북한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굿 형식이었던 것이 일제 때 평안도 지방의 명창들에 의해 놀이 형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저의 스승에 의해 계승됐고, 이젠 제가 스승의 뒤를 이은 것이지요."

스승은 1972년에 '서도소리대전집'을 녹음하면서 '평안도다리굿놀이'를 포함시켰을 정도로 애정을 품고 있었단다. 한명순씨는 지금 '평안도다리굿놀이 보존회'를 이끌고 있다. 한명순씨 역시 서도소리 중 유독 '평안도다리굿놀이'에 애정을 가지는 데는 이유가 있단다.

"형식이 자유롭고 공간을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 시간도 짧게 진행하면 40분정도 걸리고, 길게 하고 싶으면 2시간 30분 정도로 늘일 수 있어요. 공연 중간에 바라춤이나 나비춤 등 볼거리를 다양하게 넣어서 보여줄 수 있어 대형무대에 올려도 손색이 없는 연희극입니다. '평양도다리굿놀이'는 작은 공연부터 해서 대형무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놀이입니다."

'평양다리굿놀이'에는 '십장엄염불(十莊嚴念佛)' '긴염불' '자진염불' 등 불교의식의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님오신날이나 산사음악회에서 공연을 해보면 불자들의 호응이 너무나 좋았다고 덧붙였다.

'십장엄염불(十莊嚴念佛)'은 '극락세계 십종장엄(極樂世界 十種莊嚴)'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의 염불 중 하나로, 극락세계의 10가지 장엄을 염불하는 것이란다. 법장 비구는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 보살 때의 이름이다. 법장 비구는 48대원을 세우고 오랜 세월 수행한 끝에 아미타불이 됐다. '무량수불 무량광불'인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의 염불이란다.

'평양다리굿놀이'에 나오는 '긴염불'은 정토종에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대해중보살의 사성(四聖)에게 예배하는 의식이 염불소리로 발전한 것이란다. 또 '자진염불'은 '십대왕염송(十大王念誦)'이라 하기도 한다. 망자가 지옥에 가게 되면 십대왕(十大王)을 만나 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된다. 망자의 가족들은 십대왕에게 모진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발원하는데 그것을 염불로 꾸민 것이 서도소리의 '십대왕염송'이다.

"'십대왕염송'을 할 때면 유주무주 고혼들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진심으로 발원하게 되요. 2005년 흥사단 초청으로 일제 때 비명횡사한 사람들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는데, 그때는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지데요. 마음 다스리는 방편으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순씨의 바람이라면 점점 사라져가는 서도소리를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며, 불교의식과 접목하여 불교의 새로운 연희극을 만드는 것이란다. 또 후진들 양성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북한에 가서 '평안도다리굿놀이'를 멋지게 한 번 공연하고 싶단다. 옛 것을 전승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한명순씨의 다부진 계획을 들으면서 머지않은 시일에 그녀의 공연을 보게 될 것을 기대했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 논설위원)



新 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14-1 일본산 후리지아향(단)



13-1 일본 영원향(소바라)



13-2 일본 영원향(소바라)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2-1 2-2 2-3 2-4 2-5 육각초 70ƒ×45㎝

2-1 야광용 핑크 70ƒ×35㎝ / 2-2 밀납초 반야심경 70ƒ×35㎝
2-3 쑥향초 · 야광용 70ƒ×35㎝ / 2-4 봉황색 전사지 70ƒ×35㎝



7-1 7-2 7-3

7-1 P.C 컵 밀납초 받침대 / 7-2 P.C 컵 밀납초 연소시간 약 8시간
7-3 바람막초



5-1 웨딩초 육각초 70ƒ×45㎝



15-1 액체 파라핀 18ℓ

노 前대통령 '100재' 거행

서거 100일 봉화산 정토원서 봉행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봉행된 故노무현 前 대통령 100재 봉행.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100재'가 서거 100일째인 8월 30일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에서 봉행됐다.

김해 사원연합회(회장 지현)와 정토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 씨가 유족 대표로 참석하고,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명계남 전 노사모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서갑원 국회의원, 안희정 최고위원 및 신도와 일반시민 1000여 명이 넘는 추모객이 참가해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100재는 부처님의 3가지 몸을 청해 소원을 비는 영신각배, 법문, 추모사, 추모의 노래, 영혼들에게 공양을 청하는 영반, 독경과 염불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고 유훈을 되새기는 회향 의식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선진규 정토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유훈과 업적을 새롭게 되새기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많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100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불화 그리면 마음공부 돼요"

창원 성주사, 9월부터 '제1기 불화그리기' 개설



창원 성주사에서 불화그리기 강좌를 강의하는 정임순 화가.

요즘 절에 가면 다양한 불교문화강좌가 개설돼 있어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사찰요리, 차 만들기, 행선, 선서화, 전통등 만들기 등 한 두 번만 따라가면 금방 익숙해지는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저마다 부처님오신날이나 축제날이면 제법 그럴싸한 작품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법당 안 부처님 뒤에 모셔진 아름다운 탱화도 배우면 곧잘 그려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에서 9월 10일부터 1년간 개설되는 '제1기 곰절불모반: 불화그리기 강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강좌는 안심료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까지 2시간씩 1년에 걸쳐 진행된다. 성주사는 물론 부산경남지역에서 만나기 힘든 이번 불화그리기 강좌는 성주사 신도이기도한 정임순(45, 보현심) 화가가 강사로 나선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이는 찬불가를 부르고, 글씨를 잘 쓰는 이는 사경을 하고, 그림을 잘 그리면 불화를 그리며 수행을 하면 된다. 수행도 취미와 적성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되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번 강좌는 초뜨기(원본의 스케치를 종이에 옮겨옴)부터 등긋기(순지를 덧대어 종이에 옮김), 배접(실제 그림이 그려질 천으로 초를 옮겨옴), 채색 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총 4가지 작품을 통해 배우게 된다. 동양화나 서양화를 잘 그리는 사람도 불화그리기 수업에 오면 그림은 '왕초보'인 일반인과 똑같은 초발심자가 된다.

정임순 강사는 "불화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멋있게 그리느냐가 아니라 불심을 갖고 정성들여 그리는 가에 있다"며 "불교의 교리와 부처님의 법문, 설화 등을 책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탱화를 그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배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불화는 부처님 및 종교적 대상이 담긴 성스러운 그림이기에 깊은 불심과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고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산란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스스로의 마음수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림 속에 담긴 교리와 유래, 설화 등을 공부할 수 있다.

강사 정임순 화가는 "그림실력은 형편없고, 불교교리에 대해 잘 모르는 초심자분들도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진실한 불심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뚤비뚤 서툴겠지만 1년 후에는 전문화가 못지않은 불화를 그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055)264-0108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사찰음식연구회장 홍승 스님

사찰음식 이제는 '브랜드화' 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찰음식'하면 떠오르는 스님은 서너 분이 계신다. 그런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사찰음식에 관해 무지하던 부산에서 사찰음식을 포교의 방편으로 대중화하는데 앞장 선 스님은?'이란 전제를 덧붙이면, 단연코 홍승 스님(사진), 오직 한 분이다.

홍승 스님은 출가 전부터 요리 솜씨가 남달랐다. 행자시절 어느 절에서 맛본 표고버섯밥의 맛에 감탄해 '절밥이 맛있다'는 말을 떠올리며 무릎을 쳤다. 하지만 요즘 출가한 스님들은 우유를 먹고 자란 세대라 입맛이 예전과 많이 달라 자연히 연구를 하게 됐다.

"스님들의 입맛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속가에서 먹던 피자 맛을 살린 야채피자, 탕수육 같은 것을 좋아하니까, 스님들이 먹기 적당한 조리법을 점점 개발하게 됐죠. 하지만 대중들의 변화된 입맛을 외면하고 전통재료만 고집한다면 사찰음식은 잊혀져버리고 맙니다."

이와 반대로 대중의 식탁은 서구화되고 인스턴트식품이 넘쳐나며, 육류 및 지방의 과잉섭취로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식 중에서도 채식과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진 사찰음식을 찾으며 '웰빙'을 외쳐댔다. 그래서 홍승 스님은 더욱 바빠졌다.

그런데 최근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하면 독자적 특성으로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승 스님은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추진을 위한 기념학술발표회를 통해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통 사찰음식 조리 전수자를 보호, 육성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 일반 대중이 사찰음식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자연스레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사찰음식 중 구매 의사가 높은 식품을 조사하고 상품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나갈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지 채식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해주는 음식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문화적인 가치와 우수한 전통 사찰음식을 대중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음식을 브랜드화하는 것은 계승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승 스님은 사찰음식을 요리하고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절집 밥상 위 소박한 음식에서 브랜드 가능성을 열기 시작했다. 스님은 "사찰음식은 웰빙이미지를 선도하고,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치유의 역할을 대신할 슬로우푸드의 대명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토속음식과 융화 발전하며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던 만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상품화를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의 사찰음식을 지키고, 오늘에 맞는 새로운 먹을거리를 개발하면서 스님의 손맛에 불심까지 담아 전하는 홍승 스님의 원력이 대단해보이기만 하다. (051)626-4337

박지원 기자

사명 대사 동상 성역화 본격화

18일 동상 주변 현장공사 첫 삽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 대사를 기리는 동상 주변 성역화사업이 9월 18일 본격화된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안에 건립된 사명대사 동상 주변을 성역화하는 현장공사가 18일 첫 삽을 뜬다. 연합회는 부산시로부터 8월 17일 공원지형고시 완료, 8월 24일 시공사와 공사계약, 9월 15일 실시계획인가를 확정 받으면, 18일 현장공사를 게시해 오는 2010년 2월 중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명 대사 동상 주변 성역화사업은 1500여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사명 대사 추모광장'을 조성하고, 동상 하부에 사무실 및 기념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에 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턱없이 모자라 추경예산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추경예산은 2010년 서둘러 집행해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적극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사명 대사는 임진왜란 때 의승병대장(儀僧兵大將)으로 평양성 탈환과 서울 수복에 결정적 공을 세웠고, 전후에는 부산 범어사와 백양사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국교를 회복한 후 강제 징용된 동포 3500여 명과 함께 귀국했다.

박지원 기자

'거창' 복지 · 홍보에 박차

연수구의회, 거창군 삶의쉼터 방문



거창군삶의쉼터 관장 선용 스님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방문단을 맞아 인사하고 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거창군삶의쉼터(관장 선용)의 거창군의 복지시설 및 지역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의장 곽종배)는 거창군삶의쉼터를 방문해 거창의 우수한 복지시설과 현황을 답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선용 스님은 "이번 견학을 통해 다른 도시와 비교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거창의 발전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지난 2월에는서울 마포구의회의 견학을 맞아 복지시설 등을 홍보했었다. 이번에 두번째를 맞은 지역구의회 의원 및 복지관계자의 방문 등을 통해 거창 지역민들의 복지 질 향상 및 거창을 홍보하는 데에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청소년 법회 열려

부산파라미타, 12일 법회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대성, 이하 부산파라미타)는 9월 12일 오전 11시 부산불교신도회관 4층 파라미타 사무실에서 사무국분회 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청소년 회원에 나선다.

부산파라미타는 학교청소년단체 및 사찰소속 학생회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불교단체로, 그간 파라미타 소속 중학교에서 미등록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파라미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에 부산파라미타는 사무국에서 직접 사찰학생회와 같은 사무국분회를 신설하게 됐다. (051) 513-4306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힘든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창건 1500년' 세계로 나아가는 선운사

19~20일, 선운문화제 개최… 미국 측과 MOU 체결

창건 1500년을 맞은 고창 선운사에서 문화제가 열린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9월 19~20일 '선운사 1500년 그 역사의 향기를 말한다'를 주제로 제2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보은염 이운행사, 전통차 시음, 농산물 직거래 장터, 산사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비롯해 '석전 영호 대종사(박한영 스님) 유묵 특별전'과 '석전 영호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도 열린다. 또, <석전 영호 대종사 자료집>도 발간된다.

동화 스님의 한지공예전은 19~27일 '한지로 피운 연화세계'를 주제로 만세루에서 펼쳐진다.

이번 작품전에 전시될 작품은 수납장, 등, 탁자, 수반 등 일상에 사용되는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모든 작품에 불교의 세계를 상징하는 연꽃문양과 달마대사 그림을 넣어 '일상이 곧 연화의 세계'임을 상징하는 작품임을 강조했다.

한지공예전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판매수익금 전액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 전달된다.



8월 27일 템플스테이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과 미국측 관계자들.

전통차 시음 행사에서는 한국 최초의 다서인 <부풍향차보>에 기록된 선운사 차를 만날 수 있다.

19일 오후 7시부터는 '선운사의 사계'를 주제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에는 국악가 오정해씨와 가수 이선씨 등이 출연한다.

20일 오후 12시 30분 일주문에서 시작되는 보은염 이운행사와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마당극 '검단 선사와 1500년 은혜 갚은 소금이야기'는 또 하나의 볼거리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선운사 대강당에서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학술세미나는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의 기조강연 '석전 영호 대종사의 강맥과 제자들'을 시작으로 △석전 영호 대종사의 불교사상과 유신운동(노권용 원광대 교수) △석전 박한영의 문학과 사상(김상일 동국대 교수) △석전 박한영 스님의 항일운동과 그 활동(오경후 동국대 외래강사) △석전 영호 대종사의 계율사상(효탄 스님, 운문사 승가대학 교수) △석전 영호 대종사의 선사상(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이 발표된다.

한편, 선운사는 템플스테이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국제화에 나섰다.

선운사는 마이클리 선운사 국제문화교류 미국 총책임자와 제임스 프라이스 북태평양 철도노조 부위원장 겸 교육담당이사 마샤 T 몽고메리 버클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등 미국측 관계자들과 선운사 템플스테이 국제문화교류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의해 2010년 봄부터 외국학생들이 선운사를 찾아와 템플스테이에 동참하게 됐다.

법만 스님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템플스테이의 본래 목적인 외국인을 위한 불교문화체험에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템플스테이 전용관이 건립되면 해외동포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내·외국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063)561-1422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복지관, 새 관장 도제 스님 취임

광주지역 불교계의 가장 큰 복지시설인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새 관장에 도제 스님(前 원각사 주지)이 취임한다.

취임을 앞두고 있는 도제 스님은 "불교가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사에 지내다 도심으로 나와 보니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 앞으로 이들을 도와주는 수행자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특히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노인수급자와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며 "불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외받는 이들에게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문을 열었다. 유아원, 노인정, 방과 후 아동공부방, 재가복지봉사센터, 광산구 푸드뱅크(Food Bank), 송광주간노인보호소, 광산구 송광자활후견기관, 송광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을 잇따라 개설하면서 광주지역 가장 큰 종합복지센터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

완주 송광사, 백련 산사음악회 개최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는 8월 29일 '송광사 백련축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등 지역의 스님들과 김정엽 완주군수, 송하진 전주시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우스님(대전무현문화재 15호)의 승무와 정태춘, 강산에, 신형원, 가야랑 등의 인기가수와 김준모씨가 지도하는 한국식 오카리나 공연으로 늦여름밤의 정취를 마음껏 즐겼다.



8월 29일 완주 송광사에서 열린 백련축제 산사음악회.

이밖에 경내주변에서는 연꽃사진작가로 유명한 성효 스님의 연꽃사진전과 백련녹차 시음회, 백련음식 시식회와 연씨(연자) 나눔행사가 진행됐다.

도영 스님은 "송광사는 예전부터 연꽃을 상징하는 백련사로 불리웠다"며 "이번 산사음악회를 통해 지역민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봄에는 벚꽃과 철쭉축제, 여름에는 연꽃축제와 템플스테이를 통해 송광사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또 다른 문화콘텐츠로 키워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송광사 옆에 조성하기 시작한 송광사 백련지는 약 6000평의 부지에 백련, 홍련, 홍백련, 청백련, 황련등 다양한 종류의 연꽃을 심어져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는 명소로 부각되어 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특별한 날' 특별한 성지순례

150회 맞은 BTN, 김제 금산사서 개최

2001년 선운사 도솔암을 시작으로 약 8년 동안 진행했던 BTN 성지순례가 150회를 맞아 '특별한 날 특별한 성지순례'를 마련해 지난 29일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에서 150번째 성지순례를 개최했다.



BTN 성지순례단 불자들을 위해 법문하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4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금산사 성지순례는 사시 기도 후 금산사 원행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원행 스님은 "마음속의 극락 즉 서방정토를 찾는 것은 우리의 본원력"이라며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미륵보살의 성지를 찾아 구도자로서 순례자로서 불도를 원만히 성취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본사 영업총괄 우승택씨의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이라는 주제의 특별한 강의도 개최됐다. 성지순례단은 금산사 참배 후 전주시내에 소재한 경기전(사적 제339호, 조선시대)으로 이동해 한옥마을 투어를 진행했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한옥마을을 방문한 성지순례단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증정하고 150번째 성지순례를 축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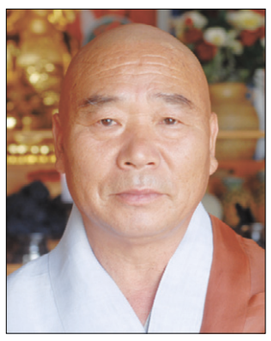
지장암 주지 서경 스님

어르신께 하모니카 연주로 '공양'

"이제는 사찰에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악기를 배우게 되었다"

서경 스님(사진)은 하모니카 연주가로 알려져 있다.

스님의 허리춤에는 광주 양동시장에서 직접 맞추었다는 국방색 무늬로 만들어진 하모니카집이 있다. 거기에는 하모니카 20여개가 꽂아져 있다.



"이게 전부 각기 소리를 냅니다. 사람 소리로 치면 '음의 높이'이죠." 하모니카에도 각기 음의 높이가 있어, 노래에 맞춰 연주를 한다.

스님은 아직 악보를 볼 줄 모른다. 전부 음을 듣고, 음에 맞추어 즉석에서 연주를 한다. 하지만 어느 전문 연주가도 "서경 스님의 음악적 감각을 쉽게 따라올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스님은 원래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는 것에는 재능이 없었다.

여느 스님들처럼 선방에서 안거하고, 기도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연주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연주를 한다. 강화 선원사 연꽃축제, 나주시 한여름 밤의 음악회, 각 마을 노인정, 사찰음악회 등 지금도 많은 곳에서 스님을 요청한다.

하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이 바로 사찰근처의 마을 노인정이다. 이곳 주지의 소임으로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절에는 오지 않던 시골 노인들이, 공연 한번으로 '우리 스님 최고'의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스님은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도대체 이런 반응은 무엇일까?"

그 후 서경 스님은 공연 후 반드시 재미있는 법문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준다.

노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스님은 "저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다. 삶의 특별한 재미가 없는 노인들을 정말 즐겁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스님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서경 스님은 악기연주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 악기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어려운 악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나이 먹어 시작하니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죠. 그래서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았고, 그것이 하모니카였죠."

스님의 공연에는 찬불가, 유행가, 클래식 등 많은 장르가 연주된다.

매년 10월이 되면 지장암에서는 소박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저희 사찰음악회는 문화포교입니다." 지역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만드는 작은 무대이다.

스님은 "앞으로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시는 스님들과 같이 그룹사운드를 구성하고 싶다, 그리고 음악과 어울리는 불교연극도 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새로운 문화포교를 개척하는 서경 스님에게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포교 방법들을 벤치마킹해 보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金剛般若波羅蜜經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 영가천도 사용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12일의 여행, 이웃종교의 성지에서 진리를 대화하다



법현 스님의 이슬람, 기독교 성지순례 및 종교지도자 모임 참가기

아직 미얀마, 인도, 네팔, 티베트도 가보지 못해 많은 신부, 목사로부터 소양부족을 지적(?)받은 바 있는 내가 그 보다 이웃종교인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그리고 고대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무슨 인연일까? 붓다처럼 이웃 종교를 먼저 알고 나를 제대로 알라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다.

#새롭게 보며 새롭게 대화하기

흔히 '시아초승달'로 불리는 이란,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를 순례와 대화의 목표로 정했으나 대통령선거 후 이란의 정치상황 불안정성과 일정 문제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순례지로 정했다. 작년 대화모임 때 KCRP사무총장이자 한신대총장인 채수일 목사로부터 중동 종교성지를 순례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막연한 호기심과 흥분이 가슴 한구석에서 시나브로 올라왔다.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계획이 확정되고 출발할 일정이 다가왔을 때 내 몸이 한 달 넘게 고장난데다 종단 총무원장 선거가 코밑으로 다가오고 속가 어머니가 발을 다치는 어려움이 생겼지만 예정대로 8월 17일 18명의 일행과 두바이행 비행기를 올라탔다.

안내는 선교사 가이드 두 분과 이슬람학자인 이원삼 교수, 박현도 교수가 주로 맡고 한신대 교목실장인 강영선 목사는 기독교이야기를 하고, 가끔 내가 나가서 불교의 교학과 수행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두바이에서 쉬는 시간을 더해 14시간 이상을 날아서 처음으로 도착한 나라는 레바논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걸프전 때 베이루트에서 전하는 전쟁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 나라다.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인, 수상은 순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이 맡는 특이한 나라이기도 하다.

3일간의 여정으로 베이루트와 쥬니에, 트리폴리 등을 여행했다. 총 연장 9킬로미터의 종유석 동굴을 도보와 카누를 이용해 구경하는 제이타(Jeita)석굴, 우리에게 예언자로 잘 알려진 칼릴 지브란이 살던 지역 위에 있는 하늘을 받치고 서 있는 백향목(레바논삼나무)을 본 한신대 임성민 교수는 물류를 연구하고 대운하를 반대하는 학자답게 감탄사를 연발했다. 순니파의 최고 무프티인 무함마드 라시드 깝바니와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건물에서 대화하고 시아파의 농촌지도자인 하니 파하스와 뜻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리아드 자르주르 목사와 이브라힘 살레르 목사를 만나 종교간 대화의 현황을 물었다.

#라마단의 경건, 일상의 풍경

시아파국가인 이란과 유일하게 친하며 그리스, 로마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있고 수도 다마스쿠스라는 말이 물의 신 다메섹에서 올 정도로 사막이면서도 물이 풍부한 시리아를 나흘간 보았다. 누구나 알고는 있으나 제대로 모르는 라마단이 22일 시작되었다.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던 때가 이슬람 음력으로 9월이었고 9월을 아랍어로 라마단이라 하며 그것을 기념해 라마단 한 달 동안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굶으면서 알라를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며 기도 하는 것이 라마단이다. 해가 지면 먹기 위해 오후 2시쯤이면 퇴근하고 먹거리를 사는 사람들로 시내와 시장은 북적댄다. 비록 해가 진 저녁에 먹지만 그날 처음 먹는 것이기에 아침이라고 부르며 그 때는 꼭 친척이나 어려운 이웃을 초청해서 맛있는 양고기로 만든 음식과 치즈 및 야채 그리고 대추야자와 올리브유를 먹는다. 세례 요한과 오늘의 기독교를 있게 한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흔적 그리고 예수가 직접 썼던 아람어가 살아있는 시리아정교회를 둘러 봤다. 로마시대 원형극장에서는 아리랑을 부르며 마이크 없이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해도 구석구석까지 잘 들리는 조음장치의 정교성에 감탄했다.

8월 24일 보스라를 지나 요르단으로 향했다. 요르단은 물 부족 국가라서 물을 소중하게 사용하면서 순례했다. 모세의 샘을 지나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페트라(Petra)를 보았다. 페트라는 기독교, 이슬람, 십자군의 피해나 영향을 받지 않고 근대에 탐험가에 의해서 그 자태가 처음 알려졌을 정도로 요새처럼 바위산 틈에 숨어있는 인공의 도시였다. 거대한 바위산 틈을 일일이 파서 신전과 왕궁을 만들고 집과 가게와 감옥과 무덤을 만들어 살며 물을 나르기 위해 바위산 절벽에 홈을 만들고 물을 모으는 장치가 신비 그 이상의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돌을 다루는 솜씨가 놀라워서 그들의 신이 도시조차 바위산 속에 숨겨두었으리라.

#사막에 쏟아지는 별과 영성수련

이어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로 유명한 사막의 유목민이며 바이블에 나와 있는 이교도인 베두윈족이 살고 있는 사막 한가운데에 마련된 텐트에서 묵었다. 넓은 지역에 마치 융기한 바다 속 산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와디 럼(wadi:마른 골짜기, rum:달 표면)으로 둘러싸인 사막 가운데 마련된 텐트 안에서 같이 간 인도 유학박사 송탁 스님의 위빠사나 지도를 잠시 받고 저녁공양 후 민속춤을 함께 즐긴 뒤 주변에 밝혔던 불을 끄자 갑자기 위에서 하늘이 내려왔다. 아니 별이 쏟아져 내렸다. 은하수와 함께 끝도 없는 별무리를 만난 대중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열두시 너머까지 모래위에 등을 대고 누워 노래를 불렀다. 그야말로 사막의 영성수련이었다.

26일은 주로 왕의 대로를 따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탈애굽기의 흔적을 따라 아르논 골짜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어 어디에 묻혀있는지 모른다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 느보산 등을 지나 요르단왕국의 수도인 암만에 도착해 요르단대학교의 이슬람학과 교수인 무함마드 라히얀과 슐레이만 앗 두구르를 만나 종교간 대화를 나눴다.

특별히 각자 느낀 점을 말해달라고 하여 "아무것도 살지 않는 사막에도 비가 오면 온갖 풀과 꽃들 사이로 꽃과 나비가 날듯이 우리의 대화가 비록 시작이지만 그런 날이 오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저녁에 시아파의 모스크를 방문했다. 그동안 보아왔던 순니파의 모스크는 밋밋한데 아주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한 건물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대중을 위한 공간은 남녀 다른 공간으로 나누되 누워서 자거나 역시 눕거나 엎드려 책을 보거나 일어났다 엎드렸다 절하듯 기도하기도 했다. 한 곳을 차지한 20여 대중을 놓고 늙고 어린 설교자가 나와 꾸란과 무함마드의 생애를 격정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듣는 청중들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송탁 스님과 우리의 법당 분위기 그리고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관해 적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쌀람 알리꿈=알리꿈 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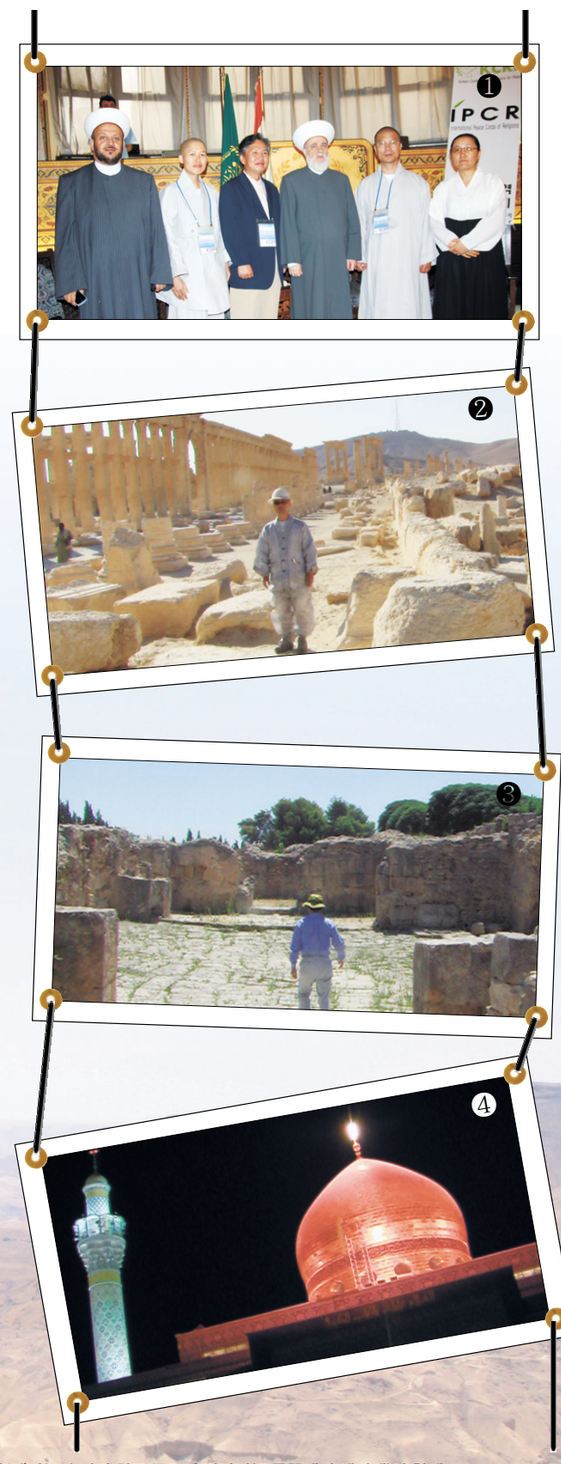
27일은 암만에서 두바이로 가는 시간이 많았고 두바이 시내를 관광했다. 아무 세금이 없는 개방정책으로 세계최고의 빌딩을 우리나라 삼성에게 세우게 하고 바닷가를 포함한 빌라를 분양하고 커다란 쇼핑몰을 지어 그 안에 영하 4도를 유지하는 스키장을 만들어 고객을 유치하는 그들은 비록 지금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만 극복하리라 생각한다.

기상 때문인지 알려주지 않은 이유로 베이징과 오사카와 함께 인천행 비행기가 두 시간 반이나 늦게 출발하여 정정불안과 막가파식 선교의 반발에 의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걱정을 하며 공항의자에서 다섯 시간 이상을 기다리다 아랍에미리트 항공기를 타고 돌아왔다. 참! 그들을 처음 만날 때 "쌀람 알리꿈"하고 인사를 나눴더니 그들은 오른 팔을 가슴에 대고 "알리꿈 쌀람"하고 대답하였다. '그대에게 평화를!'이라는 의미다.

이미 이라크 어린이를 데려다 심장병수술을 해주고, 이라크의사들에게 서울대, 연대 등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종교간대화위원회와 국제종교평화(IPCR)가 공동으로 진행한 '갈등극복을 위한 중동4국 종교간대화순례'에는 한국신학대 평화와공공성센터가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슬람, 기독교 성지 중동4개국 순례 및 종교지도자 대화모임에 참여하기 전 나는 미국 유니언대학 정현경 교수의 '앗쌀람알라이꿈'이라는 제목으로 씌어진 신문기고문을 띄엄띄엄 읽었던 기억과 박사과정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했던 한 시간 동안의 이슬람 연구가 사전 지식의 전부였던 순례자였다. 12일간의 중동4개국 순례가 얼마나 많은 질적 변화를 가졌을까마는 그래도 가기 전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와 함께 마음을 울리는 경험을 한 것이 큰 보람이었음을 동참한 대중과 함께하고 싶다.

■(열린선원 원장 · KCRP 종교간대화위원)



❶ 레바논 순니파 최고 무프티 깝바니(오른쪽에서 세번째)와 함께.
❷ 시리아 팔미라 유적.
❸ 알파벳을 최초로 만든 우가리트 유적.
❹ 시아파 사원. 기둥은 칼라 타일로 만듬.

사진=KCRP 제공.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역시 이름값 하는
2010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이루어주소서-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 -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관음의 미소-大, 小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2

깨달음은 먹고 자는데 있다

[원문]
鐸鳴鍾落又竹篪(탁명종락우죽비)
鳳飛銀山鐵壁外(봉비은산철벽외)
若人問我喜消息(약인문아희소식)
會僧堂裏滿鉢供(회승당리만발공)
–능가산 내소사 대웅전

[번역]
목탁소리 나자 종 울리고 죽비소리에
봉황은 은산철벽 밖으로 날았도다.
만약 나에게 기쁜 소식을 묻는다면
회승당 안에 만발공양이라 하리라.

[선해(禪解)]
한 여름 뜨거웠던 폭염이 사라지고 만추(晩秋)의 가을이 성큼 다가 왔다. 무릇 이 때가 되면 산승의 마음도 절로 하염없이 풍만해진다. 과일들은 제법 굵어졌고, 벼는 이삭이 패기 시작했다. 서실(書室) 한쪽에 놓아둔 난촉(蘭燭)이 예 없이 파랗게 돋아 있다. 이런 때는 가만히 법당에 앉아 눈을 감고 좌선해 보면, 어디선가 고요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난을 치듯, 서(書)를 치듯 가만 가만 마음을 놓아보면, 선우(禪友)들이 시절 없이 그립고, 금오 스님의 사자후마저 한없이 그리워진다. 결코 짧지 않은 칠십 생이 마치 주마간산처럼 지나간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지어 놓은 천만가지의 일들이 모두 '꿈속의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는 표표히 장삼자락을 떨치고 깊은 암자에 들어가 머물고 싶어진다. 귀에는 솔바람이 솔솔 불고 눈앞에는 천리강산이 아득하듯이 말이다.

"저리도록 쓸쓸한 가을바람 / 밤 깊어가도 잠은 안 와 / 저 벌레는 어이 그리 슬피 울어 / 나의 베갯머리를 적시게 하나." 당대 최고의 선승이었던 경허 스님은 가을을 두고 이렇게 노래를 했다. 참으로 그 어떤 당대의 시인보다도 더 마음을 울리는 절구이다. 그 절찬의 가을이 우리 앞에 와서도 왜 우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인생은 하나의 회고(回顧)이다. 돌아 본 삶에는 언제나 몇 가지의 흔적들이 오롯이 남는다. 지난 여름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던져 주었다. 지난번에도 내가 언급한 바 있듯이 아마 두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떴기 때문이리라. 그 중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는 참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우울하게 만든다. 민주적 열망을 위해 평생을 보내고,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김 대통령이 연 오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2002년 당시 북한과의 서해 해전이 발발한 직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고 한다. 그 때 많은 꽃다운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후 김 대통령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국이 안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북한과의 햇빛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것이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이후 평화공존 및 평화 교류의 실현, 화해 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남북 상호이익 도모,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 남북 교류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김 대통령은 한국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나는 김 대통령께 몇 가지의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매우 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도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의 생활을 위해 몇 가지의 정책을 펴 달라고 했다. 그로 인해 탄생한 것이 소외계층 국민들이 사회안전망의 혜택으로 누리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급증하는 노숙자와 극빈자들을 위해 김대중 정부시절 도입된 것으로, 한국 복지국가 건설 투쟁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제도이다.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 자신의 치적을 거론할 때 빼먹지 않고 주로 거론했던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였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 추진 등 기초 생활 수급 대상을 확정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아마 오찬 이전에도 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날 불교계와의 만남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 같다. 이 같은 비화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능가산 내소사 대웅전이다. 제24교구본사 선운사(禪雲寺)의 말사이다. 633년(백제 무왕 34) 백제의 승려 혜구두타(惠丘頭陀)가 창건하여 처음에는 소래사(蘇來寺)라고 하였다. 창건 당시에는 대소래사와 소소래사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내소사는 소소래사이다.

해안선사 오도송 김충현 글씨로 대웅전 장엄
은산철벽도 녹여 버리는 대자유의 경지 노래

1633년(조선 인조 11) 청민(淸旻)이 대웅전(大雄殿: 보물 291)을 지었는데, 그 건축양식이 매우 정교하고 환상적이어서 가히 조선 중기 사찰건축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865년(고종 2) 관해(觀海)가 중수하고 만허(萬虛)가 보수한 뒤, 1983년 혜산(慧山)이 중창하여 현재의 가람을 이루었다. 이 밖에도 고려동종(高麗銅鐘: 보물 277), 영산회괘불탱(靈山會掛佛幀: 보물 1268), 3층석탑(전북유형문화재 124), 설선당(說禪堂)과 요사(전북유형문화재 125) 등 여러 문화재가 있으며, 정문에는 실상사지(實相寺址)에서 이건(移建)한 연래루(蓮來樓)가 있다.

내소사의 유래에 관하여, 일설에는 중국 당(唐)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와서 세웠기 때문에 '내소(來蘇)'라 하였다고도 하나 이는 와전된 것이며, 원래는 '소래사(蘇來寺)'였음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고,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에도 고려 인종 때 정지상(鄭知常)이 지은 '제변산소래사(題邊山蘇來寺)'라는 시가 기록되어 있다. 또 이규보(李奎報)의 <남행일기(南行日記)>에도 '소래사'라 하였는데, 이것이 언제 '내소사'로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부속암자로는 청련암(靑蓮庵)·지장암(地藏庵)이 있다. 1986년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일원이 문화재보호구역(전북기념물 78)으로 지정되었다. 일주문(一柱門)부터 천왕문(天王門)에 걸쳐 약 600m에 이르는 전나무숲길이 유명하다.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관음봉(觀音峰: 433m) 아래에 있는데, 관음봉을 일명 능가산이라고도 하는 까닭에 보통 '능가산 내소사'로 부르기도 한다. 내소사 주련의 글귀는 해안 선사의 오도송을 그대로 일중 김충현이 써서 옮긴 것이다. 해안 선사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이곳 내소사에서 출가해 평생 이곳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열반에 드셨다.

'탁명종락우죽비 봉비은산철벽외': 목탁소리 나자 종 울리고 또 죽비소리에 봉황은 은산철벽 밖으로 날았도다.'

불문에 있어서 경(經)은 혈육(血肉)이 되고 선(禪)은 골수(骨髓)가 된다고 한다. 때문에 선수행을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해안 선사의 발자취와 깨달음의 소리가 이 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그 깨달음은 가히 은산철벽을 타파하고도 남음이 있는 듯하다. 해안 선사는 공부를 마치자 나는 이제 대 자유인이이며 천 길 낭떠러지도 영원할 것 같은 은산철벽도 모두 한 낱 눈송이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외쳤다고 한다.

'약인문아희소식 회승당리만발공': 만약 나에게 기쁜 소식을 묻는다면 회승당 안에 만발공양이라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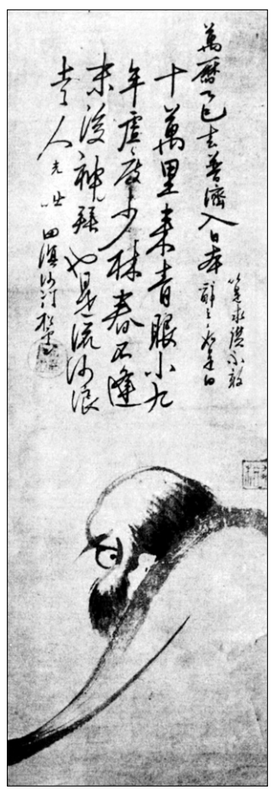
기쁜 소식은 바로 해안선사의 깨달음의 극치에 있다. 그것이야 말로 수행의 본분이며 삶의 향방(向方)이지 않겠는가. 오도란 바로 삶에 대한 일체의 집착을 놓고 '심즉불(心卽佛) 즉 마음이 곧 부처'의 경지에 들어서는 일이며 기쁜 마음으로 공양간에 앉아 공양을 드는 일이다. 참으로 깨달음이란 멀고 가까운 데 있지 않고 잠자고 밥 먹는 일에 있음을 말해 주는 주련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2

빈궁·괴로움 모두 망상에서 생겨

[원문]
初發心人 神識總不定. 若夢中頻見異境 輒不用疑 皆是自心起故 不從外來. 夢若見光明出現過於日輪 卽餘習頓盡 法界性見.

"'빈궁과 괴로움이 모두 망상에서 생겨나니, 이 마음을 깨달아 서로서로 타일러서 힘쓰게 하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연 그대로이다' 라는 생각만 내면 바로 여래의 지견(知見)에 들게 되리라. 처음 발심한 사람은 신식(神識)이 안정되지 못하니 꿈속에서 자주 이상한 경지를 보게 되더라도 의심하지 말지니라.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니라. 꿈에 광명이 햇빛보다 더 밝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남아있는 습(習)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법계의 성품이 나타나리라."


사명 대사 作 '달마도' (간송미술관 소장).

[해설]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일들은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것에 끄달려서 분별·집착하는 가운데 생겨납니다. <금강경>에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더라도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행하면, 그 행위는 우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지 않는 무루복(無漏福)이 된다는 뜻입니다.

육바라밀행 가운데 첫 번째 수행 덕목이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베품을 통해서 바라밀을 이룬다는 말은 곧, 성불한다는 말입니다. 실상을 바로 알고 큰마음을 갖고 행하면 우주를 상대로 무한의 복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줄 때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기 때문에, 내가 행한 만큼 다시 돌아옵니다. 평생 우리가 살면서 물질적으로 베푼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빈궁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의 원리라는 것은 털끝만치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것은 남이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본래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남이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라는 말은 우주 실상 그대로 하나로 보고 행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나름대로 정진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엔 잘 안되거든요. 처음부터 잘 된다고 하면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진하는 도중에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꿈속에서도 이상한 경지가 나타나는데, 마음의 작용이니까 이런 것에 끄달려 가지 말라는 얘깁니다. 결국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속이 아니더라도 정진하는 중에 밝은 광명체가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자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햇빛이 나기 때문에 밖을 환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구름이 끼면 볼 수가 없잖아요. 태양에 구름이 없으면 지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지만, 구름이 끼면 환하게 밝힐 수가 없듯이 우리 성품 자리도 태양과 같은 광명체입니다. 광명을 그대로 쓰는 분들이 성인이고, 광명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면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불성(佛性)은 부처님과 똑같은 광명으로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익혀온 잘못된 견해로 인해 만들어 놓은 업(業)이 광명으로 된 기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불성을 싸고 있는 탁한 기운들을 정진을 통해서 녹이고 녹이면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이 덮고 있는 것을 수행하면 맑은 기운이니까 탁한 기운을 정화시켜서 본래 불성이 환하게 빛을 내는 겁니다. 빛이 나는 것이 성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목이 탈 때 흙탕물이라고 하면 '후~' 하고 불고 마시잖아요. 옛날 시골 개울물도 그렇게 마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성을 가리고 있는 탁한 기운들이 정진을 하면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광명체 즉, 법신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쉽게 체험이 되면 그 순간에 우주의 실상을 깨치는 겁니다. 이것을 초견성(初見性)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엄경>에 보면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발심했던 그 마음이 바로 성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실상을 처음 체험했을 때를 얘기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거운 업이 다시 밀려오면 캄캄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롱한 구슬이 때가 잔뜩 끼어 있으면 구슬을 볼 수 없듯이 여러분의 불성은 컴컴한 구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정진을 열심히 하면 컴컴한 것이 점점 엷어지면서 견성(見性)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 제품 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氣giban 기반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불성 있다고 다 부처 아니다 깨달아야 부처다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



‘종단의 부목’ 자처… 경승단 · 승가대학 설립에 중추역
땔감 버리고 비 피하는 정자에 칩거… “눈 뜨고 잠들겠다”
“스님은 계 지키며 살아야하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선지식을 찾아서 밀운

8월의 어느 날, 작열하는 뙤약볕이 대지를 달군다. 그 열기는 대지가 품은 한방울의 수분마저도 뿌옇게 토해내게 할 만큼 뜨겁다.

서울에서 남양주 봉선사로 가는 길, 의정부를 지나 축석고개를 넘었다.

축석령(祝石嶺). 조선시대 효심 깊은 아들이 아버지를 치료하려 산삼을 구하러 나섰다. 밤은 깊고 길까지 잃은 아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에게 밤새 살려 달라고 빌었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는 바위였고 그 밑에는 산삼이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43번 국도가 되어 6차선 도로로 변해버린 축석고개. 효자에게 산삼을 준 바위는 축석 검문소 앞 공원으로 옮겨져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자동차마다 네비게이션까지 있으니 길 잃을 염려도 없다. 산삼을 구하고 목숨을 애걸하던 그때 그 효자처럼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구해본 적이 있던가,

축석고개를 넘어 광릉내 길로 들어섰다. 구불구불 운치 있는 길이 한참을 이어진다. 광릉수목원 즈음을 지날 무렵, 하늘에서 굵은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름 볕의 폭정에 힘없이 대지를 떠난 수분이 꾸역꾸역 하늘에 갇혀 구름으로 해를 가리고, 급기야 성난 적란운이 되어 양동이로 퍼붓듯 굵은 물줄기를 퍼붓는 것이리라. 쏟아지는 빗 속을 자동차 와이퍼만 물색 모르는 어린애가 손 흔드는 마냥 움직여댄다.

봉선사에 도착해 밀운 스님(봉선사 회주 ·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이 계신 곳을 찾았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른다. 스님이 계신 곳은 ‘피우정(避雨亭)’. 비를 피하는 곳이다.

밀운 스님의 거처에는 행초서로 적힌 액자가 여럿 있다. 선교를 두루 겸수하며 박학(博學)하기로 소문난 스님이 손수 지은 선시(禪詩)다. 스님에게 삼배의 예를 올린 객이 그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다.

부목사시기피우정(負木捨柴寄避雨亭)
불관풍뢰개안수면(不關風雷開眼睡眠)이라.
부목이 땔나무를 버리고, 이 정자에서 비를 피하려네.
태풍과 뇌성벽력도 상관하지 않고, 눈을 뜨고 잠에 들리라.

밀운 스님이 피우정에서 칩거를 시작할 때 지은 시다. 부목은 절에서 땔나무 등을 하는 일꾼을 말한다. ‘종단의 부목’을 자처하는 스님은 크고 작은 수많은 일을 해왔다. 서울 봉은사 땅 2만여 평을 찾아 삼보정재를 지켜냈고, 총무원 부원장 소임 때는 경승단과 승가대학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50여 년간 수행자로 살며 굵직굵직한 불사를 척척 해냈다.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영암 스님은 총무 소임을 살던 밀운 스님이 불가능해보였던 옛 봉은사 터를 되찾는 것을 보고 “허공에 논을 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런 스님(부목)이 땔감을 버렸다니.

밀운 스님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번 생 자체가 피우정”이라며 “(부목이 땔나무를 버렸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사람 사람의 번뇌와 시시비비 따위에 물들지 않고, 그대로 중생과 세상을 훤히 꿰뚫어 보는 지혜와 광명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스님(부목)이 버린 것은 땔감이 아니라 번뇌였다. ‘피우정’은 밀운 스님이 몸담은 작은 전각이지만 중생의 견지에서 보면 우주 전체가 곧 피우정이다. 바람과 태풍은 대중들의 분노와 질시다. 스님은 1980년대 말 모든 공직을 놓으며, 그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었다. 눈을 뜨고 잠에 들겠다는 말은 항상 깨어있으되 평정을 잃지 않겠다는 서원이었다.

‘피우정’은 단지 비를 피하는 곳이 아니라, 어리석은 상(相)의 껍질(皮愚)을 벗어내는 깨침의 공간이었다.

스님은 “무량공안불조망어(無量公案佛祖妄語) 중생망상불조본성(衆生妄想佛祖本性)이라. 부처와 조사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요, 중생이 일으킨 망상이 바로 부처와 조사의 본성이라는 뜻”이라고 소개했다.

알 것 같다. 부처와 조사의 모습이 상(相)인데, 하물며 말이라고 다를까. 하지만 중생의 망상이 부처의 본성과 같다는 스님의 설명에는 뭔가 의심이 남는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연꽃을 들어 보인 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고, 가섭 존자가 그 꽃을 보고 웃었는데 그 웃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왜 연꽃을 들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가섭존자가 왜 웃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피우정에 들어 비를 피하기는 했는데, 오기까지 비를 너무 많이 맞았나보다. 객이 스님의 말씀에 중얼중얼 토를 단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지만 망상 일으키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와 조사의 본성이에요. 본래 우리 본성은 청정한데 오염된 한 생각을 일으켜 망상이 된 것이라. 우리 마음이 본래는 청정한데 번뇌 망상에 가려져 있다고들 말하지만 본래 가려진 것도 없습니다. 번뇌 망상도 다 청정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중생이 망상을 일으키기 전 그것이 바로 ‘나’이고 이것이 바로 불성(佛性)이고 자성(自性)입니다.”

그렇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었다.

밀운 스님은 1934년 황해도 연백에서 4대 독자로 출생했다. 4대독자가 출가한다면 보통 집안에서는 어림 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스님은 불심 깊은 부모 덕에 출가할 수 있었다. 집근처 망해사에서 기도 끝에 스님을 낳은 이유도 있었다.

밀운 스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남달랐다”면서 “어릴 적 방학이면 망해사 스님에게 한문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때였다. 스님은 1 · 4후퇴 이후 고향 황해를 떠나 강화로 피난을 나왔다. 친척을 따라 서울 노량진에서 살던 밀운 스님은 은사 대오 스님이 “스님이나 한번 해봐라”하는 말에 출가를 했다. 법명은 부림(部林). 스님 나이 열아홉살 때였다.

영주 초암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다. 은사스님은 행자였던 밀운 스님에게 밥상까지 손수 들어다주며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을 만큼 정성을 쏟았다.

대오 스님은 검소함을 강조하던 선방 수좌였다.

밀운 스님은 “은사스님은 늘 참선과 욕심 없는 삶을 강조했다”며 “입적했을 때 가위, 돋보기, 실타래, 손톱 깎기가 전부였을 정도로 올곧은 수행자였다”고 회고했다.

이후 스님은 봉선사 운허 스님에게 건당했다. 건당은 계를 준 은사가 아닌 다른 스님의 제자로 입적하는 것. 운허 스님은 일생을 팔만대장경 한글 번역에 매진했던 근현대의 대강백이다. 현재 봉선사 조실인 사형 월운 스님이 스승에게 밀운 스님을 추천하면서 건당제자가 됐다. 운허 스님이 지어준 ‘밀운(密耘)’이란 법명은 평소 스님의 남모르는(密) 수행정진(耘) 때문이었다.

1954년 밀운 스님은 군에 입대했다. 의무병이었던 스님은 군에서도 계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저녁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참선을 했다. 어느 날 은사스님과 후일 총무원장을 지낸 동암 스님이 면회를 왔다. 다음날 포천 동화사 법당에 다녀오면서 동암 스님이 “부처님이 시원찮아”라는 말을 했다.

밀운 스님은 “부처 중에도 시원찮은 부처가 따로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의문을 붙잡고 정진했다. 그 의문이 화두가 됐던 것이다.

스님은 “1700공안, 큰스님에게 받는 화두만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의심을 가진 화두가 돼야 진짜 화두가 되고, 오매일여가 된다”고 강조했다.

보름쯤 지났을까? 스님은 무릎을 탁 쳤다. 그리고 한 생각을 얻었다. ‘부처행을 하면 모두가 부처(佛行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108배 원력' 밀행으로 이어져

佛)'였다. 스님은 그 길로 외출증을 끊어 서울 적조암 녹야원으로 동암 스님을 찾아갔다.

밀운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동암 스님은 껄껄 웃었다. 동암 스님은 "동화사 불상 조성이 시원치 않다고 말한 것을 밀운 스님이 잘못 알아들었다"며 "그래도 불행불이란 답을 얻어낸 진전은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이후 밀운 스님의 생각은 '스님이면 계를 지키며 살아야 스님이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僧行僧 人行人)'으로 이어졌다.

스님은 "그때의 일이 평생 공부에 도움이 됐다"며 "세속의 공부도 머리로만 외운 것은 실(實)이 없다. 직접 부딪혀 깨달은 생각이 있어야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요즘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면서 '개도 부처' '소도 부처'라는데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깨닫지 못했으면 다 중생이에요. 단 불성은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다 부처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산천초목과 바다 속 어류에도 불성이 있고, 그 불성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같을지 몰라도 수행을 하고 깨달아야 부처입니다."

"스님은 스님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살며 쉬지 말고 정진하라." 밀운 스님의 가르침은 간단했다.

원로 밀운 스님은 지금도 부목을 자처한다. 스님이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했을 때는 칭송보다 '흉물떤다'는 손가락질이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비밀리에 수행 정진하는 밀운 스님의 행은 그칠 줄 몰랐다.

사중 일을 내 일처럼 하다 보니 스님에게는 취득한 특허가 5개나 되는 특이한 이력도 생겼다. 하수구용 배수전, 칫솔, 촛대의 받침반 구조, 연등의 프레임 결합구 등. 일을 하다 불편하면 궁리를 했고 그것은 바로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일하는 것이 좋다"는 스님은 희수를 바라보는 지금도 꼼꼼한 손놀림에다 부지런함과 절대 함부로 보고 넘기지 않는 성격까지 더해져 최고의 '부목'이었다.

지난달 여름밤 산사를 연꽃과 선율로 수놓았던 '봉선사 연꽃축제'를 있게 한 봉선사 연꽃밭도 밀운 스님이 원력으로 일군 것이다.

종단에서는 원로회의 부의장으로 사중에서는 회주로서 부목 소임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스님은 수행자의 본분 역시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밀운 스님은 지난 40여 년 동안 아침 예불과 108배, 울력, 참선을 빠뜨린 적이 없다.

스님은 "108참회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한 것이 40여 년을 하게 됐다. 매일 108배를 하니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건강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1985년 성수 · 고산 · 원담 · 정무 스님 등과 스리랑카 불치탑 순례를 갔을 때도 스님은 108배를 쉬지 않았다.

"108배를 마치고 참선을 하는데 불현듯 '무원근(無遠近)'이 떠올랐습니다. 멀고 가까운 것이 없는 것,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그런 경지. 환희심이 일어납디다."

만년 부목, 밀운 스님의 원동력은 108배였다.

산은 모든 짐승을 가족으로 안아 들이고,
물은 어해(어패류)들을 어루만져준다
(山抱禽獸族 水摩魚蟹羣)

스님은 한 켠의 액자를 가리키며 "산은 짐승이든 나무든 말없이 모두 품어주고, 물은 드러내지 않고 물 속에 사는 모든 것을 어루만져 준다"며 "산과 같고 물과 같은 마음이 자비"라고 강조했다. 또 "양보하고 용서하면 싸울 일이 없다. 자비, 존경, 양보, 용서를 지키는 것이 성현을 닮고, 성현이 되는 삶"이라고 말했다.

밀운 스님은 "모든 사람이 자비, 존경, 양보, 용서의 네 가지만 지키면 세상 평화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의 평화는 하심(下心)과 자존(自存)으로 일군 복전(福田)이었다.

꽃은 벌떼를 불러 모으고,
벌은 꽃향기를 좋아하니,
꽃과 벌은 서로 돕기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서로 나빠질 일이 없다
(花召群蜂 蜂樂花香 花蜂相助 終古不變)

밀운 스님은 "부처의 마음을 일으키는 놈이나 중생의 망상을 일으키는 놈 모두 같은 나 자신"이라며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스스로 생각을 돌이켜 심성을 정화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이 피우정을 나설 때는 하늘이 말갛게 개어 있었다. 태양의 폭압에 대지를 떠났던 물기도 초목의 생명수로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축석검문소 앞 공원 한켠의 축석도 그대로였다.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하나?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밀운 스님은 ...

1934년 황해도 연백에서 출생했다. 1954년 경북 영주 초암사에서 대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비로사에서 무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71년 봉선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2년 봉선사에서 운허 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1967년 비로사와 봉선사에서 교과 수료. 1982년 스리랑카 승가사범대학 미투라 박사학위(삼장법사), 1983년 스리랑카 국립 푸리베나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1985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발전정책과정을 수료했다.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안거한 스님은 제 5. 6. 7. 8. 9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부원장, 봉은사 • 봉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총무원 부원장 때는 경승단 창립을, 봉은사 총무 때 현재의 봉은사 땅을 되찾은 장본인이다. 現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9. 한국의 원효 이기영 박사

불연 이기영(1922~1996) 박사님은 1922년 황해도 봉산 출신이다. 1945년 경성제대 사학과를 다니다가 1957년 백이의(白耳義) 루뱅대학에 들어가 1960년 철학 박사학위를 얻고, 1961년 WFB 한국대표로 캄보디아에 참석하면서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갖는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1957년 빨리대학에 가니 한 신부님이 '기신론(起信論) 강의'를 하면서, <해동소(海東疏)>를 아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당신 나라 원효 대사가 쓴 <기신론소>가 <해동소>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까지 무엇 하러 왔소' 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는데, 그 뒤 한국에 와서 <원효전서>를 찾아보고 새삼스럽게 놀라움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우리와의 인연은 서울대학교 강사로 있으면서 박종홍 교수님과 함께 종교 세미나를 할 때 자원봉사를 하면서부터였다. 대부분의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이 어학이 부족하고 국제 뉴스에 어두운데 반하여, 박사님은 이 면에 능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 종교에 대한 비교 발표를 잘 하였음



은 물론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지 나 · 네 것을 가려 친 · 불친을 논하는 종교가 아니다."

만약 그 분이 총장이 되었다면 동국대학교는 그 면모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 학파만을 중심으로 한 동국대학교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 나아가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 장소에서 강의하는 국제대학이 되었

원효 대사에 대한 외국연구 보고 '원효 시대 만들 것' 다짐

기영 박사님은 '한국의 원효'로 부각되고 말았다.

박사님은 한 때 동국대학교 총장의 물망에 올랐으나, 불교신도의 적(籍)이 없다고 하여 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사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출마하는 것까지도 사양하였다.

"나는 다른 종교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아 유학하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불교를 알게 된 것 마저도 다행인데, 그 신행 적까지 말살한다는 것은 내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지 나 · 네 것을 가려 친 · 불친을 논하는 종교가 아니다."

만약 그 분이 총장이 되었다면 동국대학교는 그 면모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 학파만을 중심으로 한 동국대학교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 나아가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 장소에서 강의하는 국제대학이 되었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기영 박사님이 원효대사를 연구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에 가서 고산사라는 절에 원효 대사의 영정(影幀)과 의상 대사의 구도기가 병풍으로 만들어져 신처럼 모셔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는 원효 대사를 대처승 취급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성인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으니 참으로 놀랐다. 그래서 늦었지만 나라도 연구하여 원효의 시대를 말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박사님께서 유럽에 갔을 때 전공한 것을 보면 '불교 고전어' '불교사상사' '종교사'에 불과했는데, 원효 대사의 전적을 보고 또 캄보디아, 베나레스 등 불교의 성지를 참배하고,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주임교수가 되면서 비교사상연구원 소장을 맡아 서울대 문리대 · 연세대 · 서강대 강의를 하면서 불교학자로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특히 1963년 <불교학보> 제1호에 "정법(正法) 은몰설(隱沒說)에 관한 종합적 비판"이 나오면서 박사님을 보는 견해가 두 패로 갈라지게 되었다. 보수주의파에서는 "불교를 지나치게 속화하고 있다"하고, 진보파에서는 "이러한 논문을 배경으로 새로운 불교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한국불교연구원'이 만들어지면서는 이기영 박사님을 재가불자운동의 선구자로 낙인을 찍어 불교대학 학장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연판장까지 돌기도 했다.

그러나 박사님이 쓴 <원효사상>은 60년대 최고 우량도서로 선정되고, '유네스코선정 한국 10대 명저'의 하나가 되었으며, 한국도서관 협회가 선정한 1950년대서부터 30년동안 선정한 우량도서가 되어 서울시문화상을 받게 되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을 것이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에만 알려진 원효가 아니라 세계적인 원효가 국경을 넘어 날아가 소승을 대승화시키고, 대승을 일승화(一乘化)하여 온 세계를 한 불자 가정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어느 때, 내가 대학원 원서를 가지고 박사님께 가니,

"거리에서 사는 사람이 왜 울타리 속에 들어오려 하는가. 한국불교가 원융(圓融)불교가 되려면 앞으로 100년 세월은 더 걸려야 할 것이니 한 생각 놓아 버리고 포교나 하게."

하였다.

사실 김동화 박사님은, "대학원에 들어와 내 교리발달사를 전공하게" 라고 하여 원서를 가지고 갔으나, 이 말씀을 듣고 일생을 포교하는 거리의 행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김동화 박사님께는 <불교교리 발달사>라는 책을 내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13>

유한한 자원 무한한 인간욕망 '조절기능' 필요

日가사모리 교수 '물심일여' 등 실천중심 불교경제론 주장

경제학은 인간 욕망의 추구를 탐구하는 학문이지만, 공(空)사상의 불교적 입장에서 경제를 생각한다면 절제 즉, 욕망을 억제하는 또 다른 경제학이 성립한다. 유한한 자원과 무한한 인간의 욕망 사이에 조절이 요구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불교적 입장에 선 또 다른 경제학도 성립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논의는 일본의 학계에서 전개되었다. 전회에 이어 이번에는 실천론으로서의 불교경제론에 관한 논점을 추가 설명해 보고자 한다.

실천론으로서의 불교경제론은 가사모리 덴시게루(前 고마자와대학 교수)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불교와 경제를 결부시키거나 일체화를 생각하는 경우, 불교경제의 특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불교적 경제생활을 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습 즉, '불교경제의 길(道)'을 어떻게 추구해야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불교교리의 현실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수행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물심일여(物心一如)의 경제이고,
둘째, 자리타리(自利他利)일체의 경제
셋째, 변천체관(變遷諦觀)의 경제
넷째, 정진보은(精進報恩)의 경제

먼저 '물심일여(物心一如)의 경제'란 불교어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身心不二)'라거나 '몸과 마음이 하나(身心一如)'로 통한다는 것으로서 물질(物)과 마음(心)이 하나가 되어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쌀농사를 예로 들어보면, 자기 외의 다른 사람의 먹거리로 신체를 보양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 단순히 물질(상품)로서의 쌀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깃든 쌀농사를 짓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오직 자기 돈벌이만을 위해 쌀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산업으로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고 차세대를 위해서도 진심을 기울여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측면의 경우, 가능한 한 싸게 사서 적절하게 잘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쌀농사에는 많은 사람의 노력과 마음이 합쳐져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대자연의 힘 즉, 햇빛 공기 물 등 비경제재의 작용이 가해져 있어서, 이를테면 하늘과 땅의 혜택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쌀은 정신이 깃든 물심일여(物心一如)의 재화가 된다.

두 번째의 '자리타리일체(自利他利一切)의 경제'란 무엇인가?

"물려주는(양도) 데에 손해 없고 빼앗는(착취) 데에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다. 욕조(목욕탕)속에 들어가 목욕물을 저쪽으로 밀면 자기 앞으로 되돌아오고 내 앞으로 끌어 모으려고 하면 저쪽으로 흘어져 가버리는 것을 예로 들면서 '물려주는 것'을 탐(貪)하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저절로 자기도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라는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결국 저절로 자기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서양류의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식의 꼭 대가를 주고 받기를 기대하는 교환의 미덕이 아니라 불교적이고 동양적인 인정 내지 자비심으로부터 나온 베품의 행위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자리타리일체(自利他利一切)의 정신이야 말로 경제의 중요한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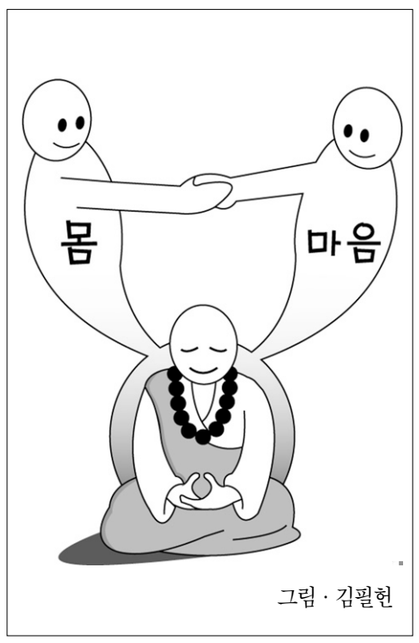


그림 · 김필헌

세 번째인 '변천체관(變遷諦觀)의 경제'란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정신이 경제면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경기순환의 과정이나 경제의 구조변화라든지, 경기침체나 공황,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등 여러 가지 경제변동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구체적인 실현과정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적 대응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경제 변동 내지 순환과정 그 자체를 근절한다든지 인위적으로는 완벽하게 방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한 경제변동은 제행무상, 변천유동(變遷流動)의 자연 본래 본연의 모습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요컨대 객관적이고 체념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면 경제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그 파장을 부드럽게 받아들여 적응할 수가 있다. 무슨 일이든지 평상심의 각오가 되어 있으면 비탄할 것도, 두려워 당황할 것도 없이 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체관(諦觀)에 달하고 있지 않으면 '우는 얼굴에 벌(蜂)'이란 설상가상의 상황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작년 가을 미국발 글로벌 자본주의의 붕괴로 허둥대는 G7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의 모습은 바로 그 본보기와 같은 구체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불교용어로서의 체관(諦觀)은 통속적인 의미에서의 포기 즉 체념이 아니라 본질을 간파하고 정관한다는 뜻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천체관(變遷諦觀)의 경제관이란, 소극적이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면서 또한 주체적인 사고와 태도로 경제변동에 의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네 번째의 '정진보은(精進報恩)의 경제'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

불교가 목표로 하는 것은 열반(涅槃)이다. 즉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고(苦)가 없어진 경지는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이며, 이것이 곧 안심입명(安心立命)이다. 다시 말하면 열반 즉, 안심입명이 불교의 목표라면, 경제상황이 목표로 하는 바의 이상도 이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그 이상에 도달해야 할 자기의 직장에서 정진해야 한다. 사실은 그러한 정진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하늘과 땅,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사회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체 만물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감득한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 정진을 거듭해간다. 은혜라는 개념에 대한 감각은 많은 현대문명인에게는 무연(無緣)으로 되어 왔으나,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곧 불심(佛心)을 행하는 일인 것이다.

정진보은(精進報恩)의 경제란, 바꿔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상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다.

가사모리씨는 이상의 논점을 토대로 불교경제의 특질을 알기 쉽게 간단히 다음과 같이 압축표현하고 있다.

"맑은 마음을 바탕으로 해(佛心), 하루하루를 아쉬워해가며(無常),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서로 도우며(無我 · 緣起), 열심히 일하고(생산 · 교역), 잘 나누어서(分配), 물건을 잘 사용해(소비), 감사의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불교경제의 도(道)라 한다." 바로 이것이 실천으로서의 불교경제론임에 틀림없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⑬ 연결의 극의

허달의 불교와 코칭

사람이 개미보다 잘난 게 뭐지?

'사랑'이든 '평화'든 모두에게 잘 알려진 보편적인 단어 하나를 고른다. 그리고는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팀 구성원들에게 그 단어로부터 연상되는 다른 단어를 각기 열 개씩 쓰게 한다.

다섯 명이 다 함께 공유하는 정확한 단어는 몇 개나 될까? 게임을 하기 전에 추측하도록 해 보면 적어도 열 개 중 3~4개는 공유하는 단어가 생겨날 것으로 모두들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게임을 치러 보면 천만의 말씀이다. 아주 드물게 하나쯤의 단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섯 명이 모두 공유하는 단어는 열 개 중 하나도 없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다. 우리는 같은 단어를 놓고 각기 다른 연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신(神)>이라는 제목의 연작 소설을 발표해 요즘말로 '뜨고' 있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실제로 뛰어난 개미 연구가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 <개미>에 따르면 개미는 완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생물이라는 것이다.

앞의 연재 글에서 시너지 즉 집단 창의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소 중 하나로서 불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을 들었는데, 베르베르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개미는 연결에 의한 시너지를 이루는데 인류 보다 우수한 지구상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다.

비슷한 맥락에서 필자가 강의 시에 사용하던 우화(寓話) 한 토막을 아래에 소개한다.

지금으로부터 몇 세기가 지난 뒤에 지구 밖에 사는 인류보다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진 존재(ET?)가 마침내 지구를 공식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게 간단치 않더라는 것이다. 지구의 대표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에 논란이 생겼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그야 당연히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대표지' 하고 거들먹거렸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구를 방문한 이 문명한 존재들은 개미를 지구의 대표로 삼아 회견을 하고는 인류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떠나려는 참이었다는 것이다.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받은 인류가 이들을 만나 항의했다고 한다. "어째서 당신들은 지구상의 가장 문명한 존재인 인류를 젖혀 놓고 개미를 대표로 만났느냐?"고. 이들 우주적 존재의 대답을 들어 보자.

"내가 일러 주리라. 첫째, 연고권면에서 개미가 수승(殊勝) 하니라. 개미는 이 지구상에 몇 억년 이상을 거주해 왔거니와 너희는 겨우 300만 년이 고작 아니더냐?

둘째, 문명의 발전 단계를 참고함이니라. 너희 인간은 이제 겨우 유전자 조작의 문턱에 들어와 있으면서 다음 밀레니엄에는 어쩌면 유전자 조작을 받아들인 인류와 이를 거부한 인류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초보적 단계 아니더냐? 개미를 보아라. 그들은 유전자 조작의 역사가 이미 1억 년에 이르러 그 행위가 이미 자연이 되었거니와 일개미, 병정개미, 수개미, 여왕개미, 심지어는 유모개미, 영양저장개미까지 필요한 개미의 종류와 수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 내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고작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제 해놓은 일이 무엇이냐? 자연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문명이 한 십만 년은 갈 것 같더냐?

셋째, 너희들은 언어와 문자 있음을 자랑해 "우리가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로다" 하지만, 너희들 중 누군가가 조사한 바를 내가 인용하리로다. 너희가 말로 하는 의사소통이 7%를 넘지 못하며, 아직 손짓 발짓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55%를 넘는다는 통계를 내가 보았거니와, 개미를 보라. 개미는 일상에는 페로몬이라 일컫는 화학 물질을 사용해 의사소통 하지만 너희와는 달리, 필요한 때에는 더듬이를 마주 대어 붙이고 한 개미가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한 모든 정보를 다른 개미에게 100% 넘겨 주는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 사용 하나니, 너희와 개미 중 누가 더 발전된 의사소통을 한다 하겠느냐?"

코칭 핸드북에 보면 '사람들은 연결을 통해 성장한다'는 원칙이 나온다. 코치는 맥락적 경청을 통해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 고객의 언어를 도구로 사용해 그와 에너지 흐름으로 연결된다. 이로써 고객이 자기자신과 연결해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을 돕고, 그가 또한 다른 사람과 연결해 시너지에 의한 성장 잠재력을 만들어 내도록 도우며, 주위 상황과 연결돼 주변 사물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진정한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과와 연기의 그물 세계, 이것이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를 도구 삼아 가리켜 보이신 연결의 극의(極意)가 아닐까, 짐짓 생각해 본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나의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 먹어야 병을 만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마의 사상의학공부를 40년 넘게 하면서 손등의 피부를 만져보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 드리오니 시간을 꼭 내셔서 만나보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병은 무엇이며 현재 병증은 왜 있는지를 체질을 알면 다 알수있기에 궁금하신 분, 사는 동안은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 분은 찾아오세요
현재 병증이 나오면 한약차로 처방을 해주는데 드셔보면 5일안에 변화를 본인이 느낍니다. 아토피 피부병은 바로완치됩니다

스님들께는 건강한 몸으로 수행하시라고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1-9373-3778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

산꽃 웃는 것 새 우짖는 소리에 법문이 다 들어있다




그림 · 최문정

지지부진 진취가 없거든 산에 가서 발을 쭉 뻗고 실컷 울어라… 무가보인 자기보장 찾는 수행은 생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비구승 · 대처승 양측 통합종단 갈등 커져 혜암은 정화운동보다 '자기정화' 매진 경봉 스님 하안거 결제법문에 크게 감동

1962년 봄에 비구승과 대처승 양측이 통합종단을 탄생시켰지만 해를 넘기면서 갈등은 더욱더 커졌다. 크고 작은 절을 빼앗긴 대처승들에게는 생존권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였으므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반면에 왜색불교를 청산한다는 정화운동과 불교재건 차원에서 국가의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절을 접수한 비구승단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산이 조계종 종정을 사임하고 범어사로 내려가자, 1963년도에 전국승려대표자회의 의장이 된 청담은 도선사와 선학원을 오가며 비구승단의 종무를 이끌었다. 절박해진 대처승들과 협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비구 승려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오대산 월정사에서 승려특별강습회를 여는 등 활발발하게 앞장섰다.

그러나 혜암은 이러한 불교정화운동에는 관심이 없었다. 서울로 올라가 승단을 규합하고 정화하는 일보다 산중에 남아 자기정화를 해야만 한국불교가 산다고 주장하는 성철의 영향이 컸다. 성철을 믿고 따르는 법전이나 일타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다 서울로 가지 않고 산중암자에 은거하며 자기 수행에 전념했다.

혜암은 통도사 극락암으로 내려가는 가는 길에 선학원에 들렀지만 하룻밤도 머무르지 않았다. 불교혁신운동과 역경 불사에 관심이 많은 선학원 이사장 석주가 붙들었지만 혜암은 흥미가 없었다.

"혜암수좌, 선학원에 남아서 내 일을 좀 도와주오."

"참선공부만 하는 제가 무슨 일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불교를 현대화시키자면 할 일이 많아요."

석주는 혜암보다 수행 이력이 20여 년 앞섰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대했다. 시자를 시켜 당시 귀하던 제과점 빵과 과자를 내오게 했다. 그러나 혜암은 하루 한 끼 이외에는 간식을 하지 않았으므로 입에 대지 않았다.

"이사장 스님, 무엇이 현대화입니까."

"불교정화운동은 청담스님이 잘하시고 있고, 내가 해보고 싶은 불교현대화는 운허스님과 함께 팔만대장경을 한글화시키는 불사지요.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어린 아이 포교가 지금 아주 급해요."

혜암은 곧 선학원을 떠나려고 했다.

"제가 이사장 스님을 도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납자는 한겨울에 피는 한매(寒梅)와 같은 사람이오. 말없이 좌복에 앉아 있기만 해도 향기를 퍼뜨리거든. 그래서 선학원에 남아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오."

"스님, 송구합니다. 이곳은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현호수좌가 구산(九山)의 서신을 가지고 와 놓고 갔어. 서신 가운데 이런 게송이 있더구먼."

청산녹수는 좋은 장엄
새떼들은 꽃 숲에서 묘음을 연출하네
어리석고 귀먹어 봄소식 모르지만
사자후하며 옛 길 가길 원하네.
青山綠水好莊嚴
百鳥花間演妙音
愚聲不識春消息
獅子願行吉路深

"노장님께서 구산스님의 게송을 차운(次韻)해 이시를 지으셨군요."

"허허허. 그렇고말고. 오늘은 혜암수좌가 한 번 보고 평을 해보게."

혜암은 방바닥에 놓인 경봉의 게송을 읽었다.

유형무형이 모두 화엄법계요
흐르는 물 바람소리 태고의 소릴세
오얏꽃 피고 복사꽃 붉은 방초언덕에
나무꾼 아이의 피리소리 묘하고 그윽하네.
有形無像盡華嚴
流水風聲太古音
李白桃紅芳草岸
樵童歌笛妙清深

혜암은 평을 하지 못했다. 대신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자 경봉이 큰소리로 말했다.

"됐네. 돌아가 쉬게."

혜암이 보기에 경봉은 틀림없는 도인이었다. 도를 멋들어지게 굴리는 도인이었다. 선방에서는 할을 하고, 법당에서는 쉬운 우리말로 설법하고, 삼소굴 툇마루에서는 시를 읊조리는 자유인이었다.

그해 혜암은 대중들의 가슴을 적신 경봉의 하안거 결제법문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오늘 우리 선원에 여름 안거 결제법문을 하자니 아무리 천언만담을 하고 팔만사천 경전을 입으로 설교하더라도 말이요 문자이다. 이 도리는 입을 열면 어긋나고, 입을 열지 않으면 잃게 되고, 그렇다고 또 입을 열지도 다물지도 않으면 십만팔천 리나 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도리를 알려고 하여 이 도리를 마음이다 혹은 성리(성리)다 혹은 불성저리다 혹은 한 물건이다, 라고 하지만 다만 대명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이가 그려낼 수도 없고, 소진(蘇秦) 장의(張儀)와 같은 구변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오고 가고 앉고 눕고 말하고 고요하고 시끄러운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 자리를 쓰고 있고, 화화초초(花花草草) 두두물물(頭頭物物)에도 이 자리가 온통 그대로인 것을 따로 찾고 있다. 오늘 묵묵히 앉아 있다가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고 법상을 쳤는데 눈으로 주장자를 역력히 봤고, 귀로 법상 치는 소리를 역력히 들었다.

역력히 보고 들은 여기서 알아야지 그밖에 따로 현묘한 것을 보고 듣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주장자를 들어 보인 뒤 법상을 치고는 '산은 은은하고 물은 잔잔히 흐르는데 산꽃은 웃고 들새는 노래해 지금 저 나무 위에 새가 호르르 호르르 하네.' 라고 읊조렸다.

산꽃 웃는 것과 새 우짖는 소리에 법문이 다 들어 있다. 안개는 새벽하늘에 피어오르고 비는 청산을 지나가나니 모든 만물이 비로자나부처님이요, 온갖 것이 그대로 연화장세계로다. 법상을 치고 억! 하고 할을 했을 때, 눈 꿈쩍하는 사이에 법문을 알아들어야 한다.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법상과 내 몸의 전체가 여러분의 눈에 다 들어갔고, 내가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이 내 눈에 다 들어왔다.

눈이 서로 마주치는 곳에 도가 있다. 이 도리를 알면 눈만 꿈쩍해도 알고 손을 들어도 알고 발을 쑥 내밀어도 알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라야 멋들어지게 법문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아는 이는 이렇지만 모르는 이는 천리만리만큼이나 아득한 것이다. 부싯돌에서 불이 번쩍하는데, 그 불빛에 바늘귀를 꿰더라도 오히려 둔한 것이다. 그보다 빠르니 그렇다.

지지부진 진취가 없거든 산에 가서 발을 쭉 뻗고 실컷 울어라. 뼈에 사무치는 울음을 울어야 한다. 이 공부는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10여 년간 풍풍우우(風風雨雨)에 피땀 흘려야 가능한데, 하물며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가보인 자기보장(自己寶藏; 마음부처)을 찾는 수행은 생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저 간단없이 오나가나 앉으나 누우나 일여해져서 전에는 그렇지 않던 것이 그저 밥을 먹을 때에도 들리고 가도 들리고 대소변을 보든지 이야기를 해도 목전에 역력히 드러남은 물론 꿈 가운데서도 일여해서 화두가 독로해야 한다.

흘러가는 시냇물 가에서 물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대를 베서 퉁소나 젓대를 만들면 그 소리가 여느 대밭의 대보다 소리가 배나 곱다. 오동나무도 보통 산중에서 자란 것보다 물가에서 물소리를 듣고 자란 것을 베서 거문고나 가야금을 만들면 소리가 배나 곱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도 귀를 지나가면 누구에게나 있는 여래장으로 통하게 되는데, 이 여래장을 통해서 지나가면 언제든지 나오게 된다.>

경봉은 하안거 해제 게송을 지어 만행을 떠나는 수좌들에게 적어가게 했다. 혜암도 게송을 받아 적어 걸망에 넣었다.

우주가 나의 집 큰 도량이라
지혜의 칼 휘두르자 모두가 청량해
법은 오염 없어 현현한 중에 오묘하고
진리는 공함을 얻어 겁 밖의 향기일세
첩첩한 산세는 천고에 푸르른데
세상일들은 그저 한 모습일세
비구름 개이고 가을바람 소슬하니
만리 푸른 하늘에 태양이 붉네.
宇宙吾家大道場 慧鋒揮處盡淸凉
法無汚染玄中妙 理得空虛劫外香
重疊山容千古翠 諸般世態一眞光
雲收雨散秋風起 萬里碧天紅日長

혜암이 더 머물지 못하고 해인사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극락암 선방 사정 때문이었다. 전국의 수좌들이 서로가 경봉 회상에서 안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오려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다른 선방에서 보내고 와야 했다.

혜암은 해인사 선방에서 겨울을 나고 다음해에는 묘관음사로 가 향곡 회상에서 정진하기로 했다. 향곡은 6.25전쟁 전 봉암사 선방에서 몇 마디씩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방부를 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터였다. 더구나 상원사 선방에서 향곡의 상좌인 진제와 함께 정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절은 쓰레기장, 수행자는 청소부다”

아픈 마음 치유하는 정호 스님의 대기설법

부처님께서는 절과 수행자가 서 있어야 할 가장 적절한 곳은 산도, 시내 한복판도 아닌 중간 지점이라 했다. 욕망과 물질의 허망한 세계에서 벗어나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더라도 세간의 중생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중간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솟아오른 산도 마을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위치한다. 그 이유는 또 뭘까?

“절은 쓰레기장이고 수행자는 청소부다.”

용인 대각사 주지 정호 스님은 절이 있고 수행자가 있을 곳 또한 쓰레기장과 같은 중간 지점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느 한 겨울 구조조정으로 명퇴 당하고 보증을 잘못 서 집마저 은행에 넘어가 지방으로 이사간 신도 가족을 보면서 부터다.

이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스님은 “나는 부족한 수행자였다”는 탄식과 함께 절 한 켠에 이런 글귀를 새긴 팻말을 세웠다.

“절이라는 쓰레기장에 자주 찾아와서 마음의 쓰레기들을 버려 놓고, 돌아갈 때는 가볍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번뇌를 버리러 왔다가 그냥 짊어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청소부를 불러 세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저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수행자는 청소부입니다>(불광)는 정호 스님이 그동안 숱하게 만났던 사람들이 털어놓은 문제와 고민, 상처와 괴로움을 들으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모색한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이 책이 나온 배경은 정호 스님이 많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기 때문이다. 스님과 대화하고 싶거나,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이나, 기도와 명상을 하고 싶은 이는 주말에 무작정 스님을 찾아가면 된다. 대각사 지대방에서는 통곡같은 울음소리도 들렸다가 곧 웃음소리로 바뀌고, 각계각층이 모여 열띤 토론장이 되기도 하고, 즉석에서 수많은 주제로 소규모 워크숍 자리가 되기도 한다.

어려운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다 보니 이제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이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이주민센터’도 만들었다. 불교무설연구소, 광진구 자양사회복지관과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포교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스님은 법회나 강연 초청을 마다 하지 않고 전국 어디든 찾아간다.

“바빠서 수행은 언제 하시느냐?”고 여쭈면, “출가한 지 30년이 넘어서야 이제 제대로 공부와 수행을 하고 있다”며 겸손한 미소를 짓는다. 수좌나 학인스님, 교도소 재소자, 동성연애자, 귀부인, 화난 사람, 절망한 사람 등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방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이 ‘현대판 선사’ 같다.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과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며 포교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늘 “자신의 발밑을 살핀다(照顧脚下)”는 스님의 정신자세가 흐트러짐 없는 수행자의 모습을 저절로 드러나게 한다.

수행자는 청소부입니다 | 정호 스님 | 불광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아! 이것이 깨달음의 순간이구나.’

선지식과 도반에 올리는 한 수좌의 수행 체험기

한 생을 오롯이 견성(見性)에 걸어놓고 참선하기를 20여 년 어느 가을, 정과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 선방에서 혼자 앉아 화두와 씨름하던 중 어떤 상태를 체험했다. 아니,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디까지 미치는 크기인지도 가늠되지 않는 ‘어떤 것’이 인식되었다. 자기가 그 ‘어떤 것’이었다.



그러나 벅차오르는 환희심도 잠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던 순간 허망하게도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번쩍이던 느낌만을 남겨둔 채….

출가이후 단 한 차례 조계종 공찰 주지를 역임하고 20여년 동안 봉암사, 칠불사, 해인사, 망월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좌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온 정과 스님은 우연히 마주한 수행체험이 ‘견성’의 순간이었음을 경전과 선어록을 통해 확신하고 ‘함이 없는 수행(無修之修)’을 이어간다.

<숙제, 이번 생에 해내리>(클리어마인드)는 정과 스님의 공부 경험을 선지식들에게 공개해 점검을 받는 동시에, 출가 및 재가 수행자들과 공유하고자 수행일지와도 같은 진솔한 마음을 담은 책이다. 승속에 상관 없이 불제자의 최후 목적은 초견성이 아닌 ‘완전한 깨달음’에 있다는 ‘숙제’를 남겨주는 스님의 수행담이 어떤 수행자들에게는 자극을, 또다른 이에게는 희망을 준다.

‘한 맛(一味)’을 본 정과 스님은 “수행은 최고의 행복이며 축복이자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일,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렇게 강조한다.

“일체를 버리는 거다. 내려놓는 거다. 성스럽다는 생각,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 또한 버려야 할 망념이 아니랴. 버렸다는 생각도, 내려놓았다는 생각도 갖지 않는 거다. 아름다움과 추함,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지 말라. 매사에 가리고 구분하는 마음 없이 지내도록 하라. 그것이야말로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다.”

참선 틈틈이 조사어록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온 정과 스님은 “우리의 견고한 착각을 일깨우기 위한 조사들의 수많은 가르침과 일화, 깨친 기연이 오늘날 박제화 되어 있다”고 탄식하며, 선교겸수(禪敎兼修)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 훌륭한 사교입선(捨敎入禪)의 방편임을 은근히 암시한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확철대오의 그날까지 끝없이 초월하는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순수한 초발심을 놓지 않는다.

“내가 이직도 이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숙제, 이번 생에 해내리 | 정과 스님 | 클리어마인드 | 1만원

김성우 기자

‘총림’ 학술적 조명

조계종 교육원 불학 연구소



종합수행도량으로 승가공동체의 핵심인 총림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성과물이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최근 <조계종 총림의 역사와 문화>를 출간했다.

책은 2008년 11월 열린 ‘조계종단의 총림을 조명하는 대토론회’에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해 발간된 것으로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예산 수덕사, 장성 백양사 등 5대 총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은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강구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두 성인은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가?

붓다·공자 사상으로 진리 세계 내닫는 인문서



인류의 정신과 문명이 막 꽃을 피우던 시기, 동시대를 살았던 붓다와 공자가 깨달은 바는 무엇이며, 두 성인은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가?

자비(慈悲)와 인(仁), 중도(中道)와 중용(中庸), 수심(修心)과 수기(修己) 등등.

붓다와 공자의 사상간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붓다를 알면 공자의 사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두 성인의 38가지 핵심사상을 가리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통점을 분석한 <공자의 법(法) 붓다의 인(仁)>(앨피)은 그런 점에서 진리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인문서다.

‘실천적 지식인을 지향한 두 성현의 크로스오버 철학’이란 부제를 단 이 책의 저자 박민영 문화평론가는 “붓다와 공자는 똑같이 인간을 고민했다”고 두 성인의 공통분모를 분석했다.

“붓다와 공자는 깨달은 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실천적 지식인이었으며, 각각 당대 중국과 인도의 사회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개혁가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두 현인은 사후세계의 문제,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낡은 종교관념과 부단히 맞서싸웠다”고 설명했다.

두 성인의 일화와 대화로 구성된 이 책은 원시불교와 원시유교(한국 유교는 사실상 송대 주자학 이후의 유학이다)가 가졌던 건강성과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 지성의 경지를 엿보게 한다.

‘공자의 법(法) 붓다의 인(仁)’ | 박민영 | 앨피 | 1만5000원

김성우 기자

진관 스님 시집·학술서

‘거동사의 노래’ 등 펴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한결같은 삶을 살아온 ‘우리 시대의 지장보살’ 진관 스님(종단협 불교인권위원장)(사진)이 15번째 시집 <거동사의 노래>와 연구논문집 <근대불교 정화운동사 연구>를 나란히 펴냈다.

경북 영천 은해사 말사인 천년 고찰 거동사에서 수행하며 느낀 소회를 기록한 <거동사의 노래>(한강)에는 ‘거동사는 화엄도량’ ‘푸른 소나무’ ‘어둠이 내려오는 거동사’ ‘거동사 꿈의 노래’ ‘거동사 꽃밭’ ‘나비야 청산 가자’ 등 모두 144편의 시가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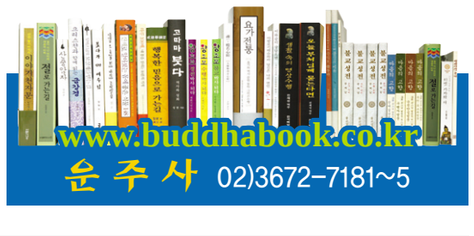
‘월탄(月誕)의 할복(割腹) 50주년을 중심으로’란 부제를 담은 <근대불교…>(경서원)는 조계-태고종 분규의 시발점이기도 한 월탄 스님의 대법원 활복사건을 중심으로 근대불교사를 조명한 연구서다. 한편, 진관 스님은 두 책의 출판기념회를 9월 11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연다. (02)734-6401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4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5	인과경	현담	선
6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한마음선원
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8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9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원철	호미
10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문자에 생명 불어넣어

2009 문자 문명전, 창원성산아트홀서 20일까지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김경호 회장의 작품. 관세음보살 백련화수진언.
김경호 회장.
이번 전시회의 주작품인 천부경.

동화 <미운 오리 새끼>는 주인공인 오리 새끼가 못생겨서 온갖 괄시와 구박을 받지만 결국엔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는 비단 동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글을 기록하고 읽지만, 정작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외길 김경호씨는 이런 미운오리새끼처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문자에 생명을 불어 넣어 백조로 탄생시켰다.

김경호 회장은 창원에서 열리는 '2009 문자문명전'을 통해 백조로 탄생된 사경예술의 진면목을 보여 줄 예정이다.

이번 사경초대전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서예술인 사경예술을 현대적으로 계승 ·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보통 사경예술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작가들조차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김회장은 이번 초대전을 통해 사경예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알릴 생각이다. 전시회에는 약 3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는데 이 중 '천부경' '시무외수진언' '백련화수진언'등은 작가가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들이다.

"천부경 작품은 제작에만 꼬박 2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무외수진언과 백련화수진언 2점도 1개월이 걸렸죠. 특히 천부경은 불교를 떠나서 우리 민족 경전이라는 이유로 더욱 애정을 갖고 제작했습니다"

'천부경'은 이번 전시회에 김 회장이 가장 추천하는 주작품 이지만 크기는 세로 47.5㎝, 가로 32.8㎝로 매우 작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아 으뜸인 보석인 것처럼 저도 다이아몬드 같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며 "최근 몇 년간 규모는 작지만 작품 하나라도 최대한 밀도 있게 작업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작가가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은 이 세 작품은 순금과 석채 위주로 작업했으며, 작품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작가의 의도를 느낄 수 있다.

'2009 문자문명전'은 창원 다호리 고분에서 1988년 5자루의 붓과 삭도가 출토된 지 20여년을 기념하고, 이에 대한 한국 문자문명의 발달과 전개를 시대별로 엿볼 수 있는 전시이다.

한국문자문명연구회와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에서 주최하는 '2009 문자문명전 외길 김경호 사경초대전'은 9월 9~20일 창원 성산아트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010)4207-7186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생로병사 클래식으로 풀다

니르바나 '음악, 법의학자를 만나다' 공연 '감동'



슈베르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남달리 재능을 보였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음악을 할 수 없게 되자 갈등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의 재능을 안 친구 쇼버는 그가 맘 놓고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한다. 하지만 그런 친구가 슈베르트에게는 결국 독이 되고 말았다. 친구를 따라 사창가를 다니면서 그는 매독에 걸리게 됐고 그의 인생은 파국을 맞는다. 하지만 오히려 슈베르트는 매독 덕에 수많은 작품을 쏟아 냈다. 그 이유는 균이 뇌에 침범해 뇌향진성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매독 3단계시기에 장티푸스까지 겹쳐 죽음을 맞는다. 인생은 짧았지만 그는 병에 걸렸어도 고통 없이 죽음을 맞았고, 오히려 그 덕에 수많은 주옥같은 작품이 탄생됐다. 행운일까? 불행일까?

한 음악가의 삶과 작품을 통해 감동을 받고, 거기에 자신의 삶까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 만큼 가치 있는 연주회가 어디 있을까. 불교에서는 생존해 있는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가르친다.

9월 2일 열린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의 '음악, 법의학자를 만나다-슈베르트 편' 3번째 정기공연은 남다른 감동이었다.

공연은 법의학자 문국진 박사(前고려대 의대 교수)가 음악가의 생로병사를 설명하면, 니르바나가 그의 작품을 연주하는 기존 공연과 다른 실험적인 공연방식이었다. 앞으로 니르바나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불교를 알려 나갈지 기대된다.

이은정 기자 · 사진제공=석명용

"불교문화로 역사탐방하자"

목아박물관 토박이 놀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목아박물관은 '목아박물관 토박이'라는 주제로 매달 둘째주 토요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불교유물을 통한 불교문화를 교육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목아박물관과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전통목조각 체험과 여주지역 문화탐방을 통해 한국문화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키워줄 예정이다.

또한,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이며 미래라고 인식하게 한다. 행사는 9월 12일을 시작으로 10월 10일, 11월 14일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국 초 · 중 · 고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신청은 △1차 9월 1~2일 △2차 10월 1~2일 △3차 11월 1~2일이다. (031)885-9952~4 이은정 기자

제주세계델픽대회

9~15일, 영산재 시연

세계인의 소통의 장인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가 9월 9~15일 펼쳐진다.

특히 이번 델픽대회에서 한국은 불교예술중 하나인 영산재를 공연할 예정이여서 관심이 주목된다.

영산재 공연은 10일 제주 문예회관에서 시연되며, 대회의 흥을 돋우기 위해 마련된 델픽공연예술 축제는 9월 10~13일 제주 문예회관, 돌 문화공원, 신산공원 등에서 열린다.

한편, 제주세계델픽대회는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경쟁하는 세계인의 축제이다.

이은정 기자

한민족문화예술대전

9월 12일, 봉원사서

민족의 다양한 문화예술과 팔관재계 정신인 여덟 가지 계율을 지켜 절제와 순결의 고귀함과 청정의 기쁨을 이루도록 하는 예술대회가 펼쳐진다. 한민족문화예술대회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정신문화복지재단, 팔관재전승보존회가 주최하는 한민족문화예술대전은 신촌 봉원사에서 9월 12일 열린다.

참가종목은 글짓기, 미술, 종합예술 분야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행사는 선진복지문화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일환으로 자연 환경 가꾸기 실천 운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02)2265-8858 이은정 기자

"공감가는 가족이야기 하고파"

'아버지의 가수' 공연 앞둔 남우성 대표



"기존의 불교문화예술은 너무 이미지화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불교적 작품을 창조해 내기 힘듭니다."

흔히 창작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내는 것이라 말한다. 창작을 통해 불교를 표현하려는 극단 양지무리 남우성 대표(사진)의 이 같은 말은 그가 얼마나 불교예술에 애정과 열정이 많은지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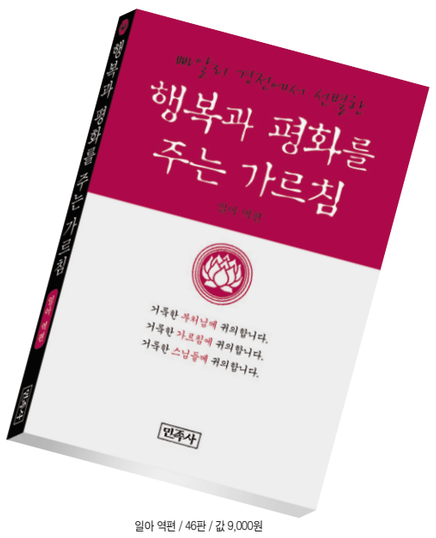
남우성 대표는 "목적극이 아닌 누가 봐도 공감하는 가족이야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벤허 같은 작품은 종교적인 색채가 가미돼 있지만 누구도 그것으로 인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만든 연극도 결국은 모두가 공감하는 연극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무리 극단이 9월 19~23일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올리는 연극 '아버지의 가수'는 가난한 작가의 가족사를 통해 인생을 업경대(業鏡臺)에 비쳐 본다는 내용이다. 생자필멸(生者必滅)과 업(業)이라는 화두는 대중가요로 포장해 재미를 주고,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이야기한다. 저마다 마음속 번뇌의 삶을 들추어 감동으로 이끄는 이번 연극은 재미와 작품성을 동반한 연극이다.

남우성 대표는 "불교계극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대학로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다"며 "멀리 내다보고 차츰차츰 인프라를 구축해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2)306-2005

이은정 기자

불교의 뿌리인 빠알리 경전에서 선별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
일아스님 역편



일아 역편 / 46판 / 값 9,000원

두려울 때는 불 · 법 · 승 삼보를 생각하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부처님 말씀!
마음에 와 닿고, 독송하기 좋고, 쉽고 편리하고 유용한 책!

① 늙음 · 죽음 · 병듦 · 슬픔 · 한탄에 빠진 이들에게 주는 가르침!
② 기도 · 보시 · 공덕 · 효도 · 자비에 대한 가르침!
③ 참된 친구 · 거짓 친구에 대한 가르침!
④ 바른 생각 · 바른 행동 ·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 말씀을 통하여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모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



김종수 감수 · 훤일 지음
신국판 /296쪽 / 값 12,000원

깨달음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도연기법'
이 가르침만이 어리석음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천명하셨다.

민족사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43 밥은 모험: 채식당 기행-수안 처사 편<1>

풀만 먹고 어떻게 기운 쓰냐고…

수안 처사의 낡은 '애마(愛馬)'는 오늘도 밤새 안녕이다. 재작년 한 비구니스님에게 물려받았다는 95년도 태생의 아벨라 승용차(이후 벨라)는 그의 둘도 없는 친구다. 일명 '벨라'의 삶은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어 이전에는 절에서 장을 보러 다니거나 스님들의 용무를 돕던 차였다고 한다. 절집 식구들의 온갖 생필품을 실어 나르곤 했을 그의 봉사어린 삶은 주인을 따라 경주에 와서도 여전하다. 그 차의 주인은 수안 처사뿐 아니라 같은 학교의 여러 비구니스님들이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차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는데, 학교에 다니는 비구니스님들은 대부분 생활이 열악하다보니 차가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 일보러 다닐 때 쓰시라고 키를 몇 개 복사해 드렸어요. 서로가 필요할 때마다 요긴히 잘 쓰고 있죠."



수안 처사가 낡은 애마(愛馬) '벨라' 안에서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동국대(경주) 불교대학원에 재직중이면서 교내에서 '깨달음을 위한 플래시'라는 불교애니메이션 동아리까지 운영하고 있는 처사는 "깨플을 돕고 있는 공도 지대해 '깨달음으로 가는 차'"이기도 하다며 그의 애마 자랑에 신이 났다.

오늘은 벨라가 모처럼 부산 나들이를 나섰다. 경주에서 부산까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황금의 노년기를 지나 말년의 끝을 바라보는 벨라의 상태로는 사실 무리다. 얼마 전부터는 연로한 노인들이 에어컨바람을 싫어하듯 벨라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에어컨을 켜면 아예 시동이 꺼지는 강한 거부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니 벨라의 품에서는 한여름의 찜통더위도 그러려니 하고 그저 꾹 참는 게 상책이다. 여름의 끝자락이라 아직 무더위가 남아 있는 터에, 오늘은 그나마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다행이다. 수안 처사와 그의 애제자 은행이와 부산에 볼일도 볼 겸 소문난 채(菜)식당이 있다고 해서 길을 떠났다.

"은행이랑 학교 다니면서 제일 자주 했던 게 수업시간에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씩 그리는 거였어요. 나중에 그려놓은 걸 보고 하나씩 먹으러 다니곤 했죠. 어떨 땐 없는 음식도 만들어 내곤했죠."(웃음)

누가 일러스트레이터 남매 아니랄까봐,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여하튼 채식주의자들의 식성을 이해할 수 없었던 때가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사람의 속이 간사하기는 한가보다. 사실 수안 처사와 같은 채식주의자들과 밥을 먹으러 다닐 때면 '사람이 말야, 활동을 하려면 고기도 먹어가며 살아야지, 어떻게 풀만 먹고 기운을 쓰냐고…'라는 생각이 절로 일어 여간 불만이 아니었는데, 내 몸의 구조가 순한 채소의 기운을 좋아하면서부터는 그들의 입장을 부지런히 이해하는 중이다.

벨라와 함께 찾아간 부산의 다전(051-808-6363)이라는 채식당의 쥔장도 그러한 과도기를 거쳐 결국 채식당까지 운영하게 된 사연이 있었다. 엄마의 권유로 채식을 시작한지 10년이 됐다는 그녀는, 지식으로 알던 것을 몸으로 몸소 느끼는 체험을 통해 채식이 왜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한다.

"처음엔 채식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생각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중엔 그 이유가 점점 몸에 와 닿았죠. 가령 불교에는 불살생의 계가 있잖아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은 생명에 대한 최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봐요. 또 채식을 하다보면 몸이 깨끗해지면서 정화되는 걸 알게 돼 명상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지구온난화나 지구상의 여러 문젯거리도 사실 육식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채 서른이 넘지 않는 젊은 처자의 설명이 야무지기도 하다. 복잡한 도심 한복판 건물 옥상에 자리한 그녀의 가게는 식당이라기 보단 하늘아래 작은 쉼터와도 같다. 옥상 한편에 마련된 장독대의 정경이나 가게의 또 다른 쥔장인 멍멍이, 만세의 어슬렁거림도 그렇고, 사찰음식 전문가인 선재 스님에게 배웠다는 쥔장 아가씨의 음식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 듬뿍 담긴 콩가스나 야채비빔밥의 맛은 더욱 그러하다.

모든 음식과 차를 손수 만든다는 젊은 쥔장의 야무진 수다에 빠져 샐러드에 곁들인 당근소스의 비법을 물어온다는 것을 깜빡했다. 하지만 걱정할 일은 없다. 벨라가 고이 달려주는 한, 종종 그녀의 식당에 들리게 될 테니.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2 만성피로는 종합병원

산책 · 108배로 만성피로 날려버리자

만성피로는 질병의 종합병원이다. 우리 몸의 어느 한군데를 때리면 그곳만 아픈데, 여기저기 때려서 아프면 피로한 걸로만 느껴진다. 만성피로는 바로 이런 병이다. 쉽게 말해 푹 쉬거나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성피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몸의 기능적 · 구조적인 면을 살펴봐야한다.

첫째, 기능적인 면은 갑상선 기능, 장기능, 간기능을 체크하는 것이다. 기능적인 면이 저하가 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기력도 저하돼 만성피로가 된다.

둘째, 구조적인 면은 턱관절, 뒷목, 어깨, 흉추, 골반, 발이 구조적으로 균형이 잘 맞는지 체크한다. 예를 들어 양쪽 어깨의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목이 삐뚤어져 있으면 몸으로 받게 되는 피로는 몇 배 더 커지게 된다.

만성피로 때문에 위와 장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독소들은 혈액을 따라 간에서 걸러지기도 하지만 주로 근육에 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식적(食積)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증상도 나타난다. 식적은 한의학적 용어로 음식을 소화시킬 때 불완전연소 된 노폐물과 가스를 말한다.

자신이 '만성피로 증후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체크해보면 된다.

첫째,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다.

셋째,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1개월 이상 있으면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만성피로 환자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업무에서 수개월 이상 과로를 했다.

둘째, 수개월간 운동을 거의 안했다.

셋째, 저녁에 과음, 과식을 자주 했다.

결국 운동부족, 과식, 과로, 스트레스의 합작품이다. 특히 근육이 많이 뭉쳐 있었고, 뱃속에 식적이 가득 차 있었다. 해결책은 "적게 먹고 많이 걷는 것"이 최고다. 피곤하다고 누우면 더 피곤해진다. 한의학에서 만성피로는 '허로'라고 한다. 허로는 피모(皮毛), 힘살(肌肉), 힘줄(筋脈), 골수(骨髓), 기혈(氣血), 진액(津液) 등이 부족해진 것을 말한다.

만성피로의 자가 치료법은 다음과 같다.

① 매일 1시간 30분 산책하기

적당히 10~20분 걷는 것은 효과가 없다. 산책의 효과는 최소 40분 이상 걸을 때부터 나타난다. 두 팔을 흔들면서 자연스럽게 걷는다. 턱을 들고 멀리 보며 걷는 것이 중요하다.

② 반신욕 15분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39℃의 물에 배꼽아래까지만 담그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15분 정도 앉아있는 것이 좋다. 손은 상체에 속하기 때문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반신욕의 효과가 떨어지고,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 반드시 손을 밖으로 해야 한다.

③ 108배 하기

절은 척추를 펴고 구부리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척추 주변의 기 순환이 왕성해지고 운동효과를 보게 된다.

④ 저녁 굶기

저녁을 안 먹으면 장이 쉬게 되고, 근육대사가 활발해진다.

⑤ 체질 음식 먹기

양인 체질(태양인, 소양인) : 토마토, 감자, 호박, 보리, 딸기

음인 체질(태음인, 소음인) : 귤, 고구마, 양파, 마, 마늘



사부대중 심신 건강 기원하며 만들어

예전에 경기도 광주 백연암에 주석하고 계신 범민 큰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마음자체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스님의 법문을 새기며 만행화에 사부대중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만행화를 통칭하고 있던 신발들에 신발의 모양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사계절 단화, 방한화 털신, 특무명 털신, 조각무명, 건강지압 샌들, 건강 지압 슬리퍼, 방한용 부츠 등의 다양한 명칭을 붙여 소재 하나하나에서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만행화의 모든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지압식 양면 깔창을 착화해 만들고 색상은 주로 회색의 짙은 먹물회색을 사용했습니다. 천연 방수 원단인 초극세사 원단만을 사용했고,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밑창 또한 환경에 부담이 없는 천연 코르크 중창을 고집해 사용했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유행 타는 신발들은 제조과정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접착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화공약품 냄새가 많이 나는 신발은 그만큼 화학약품 처리를 많이 한 제품이기에 발 냄새나 무좀, 습진 등의 발과 관련된 질병을 좀 더 쉽게 유발시킵니다. 이처럼 신발의 소재가 발 건강에 크게 관여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안 저는 친환경적인 소재들만을 사용했습니다. 신발 안에 들어가는 깔창도 99% 순도의 풍산동과 초극세사 향균 실리콘 지압 패드를 사용했고 발명 특허로 정식 등록까지 했습니다. 또한 방한용털신, 특무명 신발, 사계절단화 등등은 자부심을 살리자는 취지로 디자인 특허등록까지도 마쳤습니다. 부르는 상호나 명칭도 외래어보다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고무신코 만행화'로 상표등록 했습니다. 고무신코 모양의 사계절 단화 또한 사부대중의 건강을 생각해 건강지압깔창으로 착화했으며, 특무명 신발은 시골에서 한올 한올 직접 굵은 무명실을 엮어 만든 무명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방한용 털신은 기존의 고무신 털신이나 타 모방 제품과는 다르게 초극세사 방수원단을 사용해 겨울철 추운날씨에 대비했고, 10mm 보아 털을 신발 속 전체에 내장해 코르크 중창과 털 깔창, 미끄럼 방지의 논슬립창으로 구성해 영하12도 이상의 추운 겨울 날씨에도 발이 시렵지 않게 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전국의 사부대중도 인정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번개보다 빠른 것은 사람의 마음자리'라는 범민 스님의 말씀처럼 제 자신 또한 법륜을 굴린다는 마음으로 만행화 신발을 만들며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 해봅니다. (02)733-5715

현대불교현불샵 입점 기념 특별 세일전 17%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항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수의 등 수납한 모습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결혼 인연찾기
홀로 외로운 독신남녀
초혼, 재혼 70세까지
성실한 男, 착한 女 상담환영
불자님 자녀 인연 맺어 드림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우주 氣편지 받고 부처님 신통력 업장소멸
- 건강, 인생, 우환, 사업이 잘 안되는 분.
- 영적장애, 신내림 등 고통받는 불자, 수행자.
- 빙의, 신병, 정신질환, 치매, 우울증 등
- 병원치료, 최면술, 천도재를 해도 안되는 분.

031)321-9555
011-586-6091 일광사

전통 범패
배우면서
행자, 스님 하실 분
▷무료 탱화 필요하신분
경남
016-428-6665

참선기도도량에서 법우들과 포교하는 법사입니다.
맘껏 기도하고 포교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가능
02)2665-9690 보광 법사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4015-949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2251-01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청송
054)874-22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암자
054)772-4133

스님 시봉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 컴퓨터 가능자
▷불심이 깊으신 40대 분
포천시
010-9269-8445

공양주 보살님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무원 남,녀 모집
▷부여
041)835-3933
010-8353-3337

어르신을
모십니다.
공양주 구함.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수정산 수정사 효봉원
031)333-5014

작은 암자에서
형제간
같이 기도하면서
지내실 분,
비구,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강원도 홍천
011-688-66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7484-68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010-3188-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40~50세
양평 용문면
010-7484-68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이후
▷울산 포교당
010-5625-3400

작은 암자에서
기도하시며 관리
하실 분이나,
평생 관리하시면서
사실 분.
▷노부부 환영
010-5294-8497

전국 어디든지
절이나 절 지을 터
아주 싸게
보시하실 분
연락주세요.
010-7188-7723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법우림 스님 소원성취 기도
◆ 소원성취, 21일, 백일기도 수시접수
◆ 천도재, 49재, 태아영가천도 수시접수
◆ 개인 사정과 사찰 형편에 맞게 의식집전
부 설 : 동양철학상담센터
상담사 : 혜도림 혜안정 도여림 도여경
기도성취 전법도량 자 성 사
문의 : 02)3663-8416



하루 저녁이면 깨우치는
나경(패철) 사용법
문학박사 전 용 원 저 개정 증보판
2만 5천원 전국 서점에 있음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하신 후
전화(1688-1137)주시면 책에 저자가 직접 사인, 낙관찍고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무료 동봉하여 함께 보내드립니다.

50대 중반
비구승 입니다.
부전 자리
원합니다.
* 작은 암자 맡겨주시면
청정도량으로 가꾸겠습니다.
010-5346-6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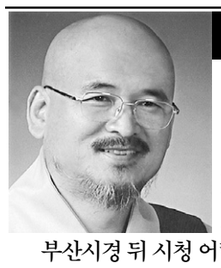
노년을 서로 의지하며 실버 생활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나 당사자의 생활능력은 기본. 동반자의 배필이 꼭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성과 사기성 전화 일체사절
63세女 자녀 무
010-4729-8987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학공부
집에서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자미두수 주역
사주 전과정 45만원부터. 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 전화 1688-1137

문경 보덕암 부처님 대웅전 대지 불사금 6만원 시주 하시는 분에게는 와송효소 엑기스 (3개월 복용량)을 무상으로 보시하겠습니다.
효소의 효능 : 당뇨병, 알콜중독, 식중독, 아토피, 암 등의 면역작용 있습니다.
농협 15004-51-246526 김광일
010-3167-1860 / 054)572-1860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보름단기출가학교 모집
수행자의 모든것을 경험
- 일시: 10월 5일(월)~10월 19일(화)
- 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대구큰절 · 감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등
- 총주 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오 가 피 뿌 리
오가피가 몸에 좋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수행자가 경북 안동에서 생산한 오가피 뿌리를 갈근, 두충, 당귀, 대추(이상 국산), 감초(중국산)와 함께정성껏 다렸습니다.
60팩 1박스 10만원(3박스 이상 구매시 9만원)
주문 후 입금 확인되면 3일 이내 배송해 드립니다.
농협 121022-56-217821 정부연
경북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 526 유일한농원 머슴 정원규
011-886-1256 / 070-7743-1258

월간역학

창간 20주년
기념 이벤트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하여 주역 .사주 .관상 . 풍수 뿐만 아니라 유.불.선의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수록하여 매월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월간역학은 2010년 창간 20주년을 맞는 기념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지금 회원가입 하시면 총 120만 5천 6백원을 단 10만원으로 할인해 드림.
1년 구독료 10만 5천 6백원+월간역학 <해설위원> 광고(1년 50만원)+ 월간역학 인터넷 광고(1년 50만원)란에 사진, 사찰명 한의원이나 역학자 기타 업체 상호와 영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1년간 게재+수맥탐지봉 1세트(1만 5천원) = 120만 5천 6백원. 이 행사는 10년만의 행사로 다음 기회는 2020년에 있음.
2. 회원증(호화 금박, 가로 42cmx세로 30cm), 해설위원 위촉장 보내드리며, 본사 발행 모든 도서 20% 할인, 타 출판사 취급 도서 10% 할인 해 드림.
3. 국내외 학회 및 토론회, 풍수기행 등의 행사에 초청 받으시는 외에도 많은 혜택을 드림.

가입방법: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1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주역 동영상 강의- 저렴 속성 완성

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 www.kbs.cc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명당 탐지기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상표
관룡자!!

관룡자는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90~180도 회전한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 된다.

9월 15일 가격 인상
마지막 할인 행사!!

* 그 동안 66만원에 공급해왔습니다만, 9월 15일부터 7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는 분께는 60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 수맥탐지봉(1만 5천원)+ 월간역학 1년 구독(10만 5천 6백원) 을 드림.

*신청방법: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0만원 입금 후 전화 주시면 9월 20일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드림(9월 15일 한정)
*<패철 보는 법 책(2만 5천원)>도 판매합니다.
구입 시 월간역학(8천8백원)도 함께 무료 증정.
*역학공부: 저렴한 비용, 집에서 간편 신속 확실히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주역 자미두수 동영상 강의 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www.kbs.cc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43기 氣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마사지나 지압등의 수기법이 아닌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다.
▶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서울 전문가반 개강
◆ 수련일자 : 9월 11일(금)오후 7:00~9:20(주1회 6개월)
◆ 대 상 자 : 기치유능력이 있거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서울 양성반 개강
◆ 수련일자 : 9월 12일(토)오후 2:00~4:20(11주과정)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문의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대구 양성반 개강 문의 : 053-652-2202
◆ 수련일자 : 9월 17일(목)오후 7:00~(11주과정)
◆ 수련일자 : 9월 19일(토)오후 3:00~(11주과정)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서울 인천 **사주비법**

교육과목 : 사주학, 기문둔갑, 육임, 육효, 풍수지리

♣본 학회의 특징♣
- 본 학회에서 2007대선 순위까지 적중했으며 일반사주 90%이상 높은 적중을 최고위실전반(사주+기문+육임풀이)에서 있는 그대로 증명해 드리고 있음.
- 역을 5~10년 해도 안 되고 금방 잊어버리며 통변과 용신 분석이 잘 안되는 분
- 역의 왕초보자이거나 여기저기 다니다 지쳐 있거나 이런 분들은 편하게 처음부터 정리할 수 있어 가장 선호하는 학원이며 오랜 경력자도 재정리하는 곳이다.
- 기억,연상법 공부로 많은 회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내 최다회원 확보.

♣본 학회의 비법♣
- 육십갑자 1시간만에 암기하기
- 로또번호 사주로 풀어서 찾는법
- 아들,딸 구별해서 낳는 법
- 부적 氣를 넣어 쓰는 법
- 인연법 따라 결혼을 해서는 안 될 사람(배우자,자식이 죽는 사주)
- 그 밖에 많은 비법을 창업반에서 직접 실전문제를 가지고 푼다.

★격일제 근무자,직장인도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했음★

◆ 제19기 무료강좌(주,야간,주말반 있음) ◆
서울 9월 10일(목), 11일(금), 12일(토)
인천 14시~17시(서울,인천 시간동일)
※ 편한 시간에 주1회만 오면 되고 공부를 하실 분은 필히 무료 청강하세요.(본수업과 연결 됨)

www.idsaju.com (검색란 인당역학 치세요)
인당 서울 02) 987-6310
역학 인천 032) 324-6310
서울:2호선 상왕십리역 2번출구-양지사거리 신한은행 우회전-30미터지점 왕십리우체국 맞은편-동명할인마트 2층
인천:지하철1호선 송내역2번출구(북광장)-투나빌딩뒤-대경부동산 건물3층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오후 마감.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및 요사 : 150평
- 부지 : 135평
- 가액 : 11억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5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200평
- 건평 : 45평
- 시내
- 급양도가 : 4억5천

- 위치 : 경기
- 대지 : 2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

- 위치 : 지리산
- 부지 : 410평
- 법당 : 35평외
- 요사 : 80평
- 가액 : 4억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영도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총대지 : 약 100평
- 법당 (와가) : 25평
- 주지실 : 15평
- 요사채 : 방 4개
- 산신각
- 가액 : 2억 8천

지리산 아름다운 절

- 대지 총평수: 420평
- 법당(와가) 20평
- 요사채 3동
- 도량주변 산세, 풍광
- 주차장 및 텃밭 마당넓은 절
- 가액 : 1억6천(은행 5천 포함)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비밀보장 철저, 세무상담 무료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소재(팔공산)
- 부지 : 1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단청, 3층)
- 요사: 35평 (2층)
- 종무소: 35평(1층)
- 공양간 : 20평(별관)
- 가액: 2억 8천만원
- 특징: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기도, 포교도량임

- 위치 : 대전 광역시 유성구 소재
- 법당 : 40평(임법당, 방2)
- 보증금: 1000만원(월40만원)
- 시설비: 1800만원
- 특징: 상업지역에 위치한 도심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절 터 안 내

경관이 아름다운 절터입니다
소백산 산두가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 자연 조경완료, 풍부한 자연식수
- 전기, 전화, 現 희귀약초체험학습 공원으로 운영중
- 급 어려움으로 명상의 절터가 되리라 믿습니다
- 충북 단양군 금수산 자락 ● 총면적: 1600평
- 시설하우스: 110평, 황토방 10평, 조립식 주방 +방 10평
- 실 투자비용 4억 5천만원 ● 가액: 3억 5천만원

연락주세요 010-3137-0045 / 043)421-33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1호선 전철에서 2분거리
- 자연녹지 300평,
- 하천부지 300평 위에 법당 40년(슬레트법당)
- 대지: 양산 30년 절(전세)
- 가액: 보시고 절충

010-9613-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약 900평
- 법당, 요사채
- 산세 수려하고 물도 좋음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1억 8천만원

055)672-0340

한 국 불 사

- 서울 약 50평 9억
- 경기도 4억 8천만원 외 매물 다수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재개발 지역 보상문제 상담환영

02)6674-3535
010-3154-3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종무소 법당 에어컨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8653-3216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석관동
- 평수: 3층 건물 2층 42평
- 구조: 법당 25평, 방2, 주방, 간이 사무실, 화장실
- 시설: 불단(원목) 영단(영구위패 500개) 1년연등(500개)등 최고급 시설
- 가액: 보증금 2천 월 8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7609-0920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도 군포시 군포역전 시장 앞
- 5층건물 중 2층 전체
- 약 80평.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8811-75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역 근교 (4층)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5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40평
- 완벽한 시설, 즉시 법회 가능
- 스님 사정으로 급 안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0만원

051)501-2723

암 자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별채 8평,
- 부지 400평(등기 150평)
- 가액: 9천 8백만원

010-6695-011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문수사)
- 부지 총 1,700평중 540평 종교부지
- 건물, 임법당, 요사채, 산신각포함 100평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소요되었음
- 스님의 건강악화로 2억에 급히 양도함
- 특징: 조그만 암자나 교통편리한 다른 건물교환 가능합니다.

055)572-0405
011-9850-8208

토 굴 안 내

- 위치: 청도 비슬산 자락
- 부지: 1400평
- 가옥: 황토집(58평)
- 창고: 22평
- 특징: 산속 청정계곡 참 좋은터
- 가액: 6억 5천만원

010-9057-211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마산 운동장 옆 산호시장 부근
- 평수: 30평(3층 중 2층 전체)
- 삼존불, 신중탱화
- 즉시법회 가능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백만원
- 스님 부재 중으로 급 안내

055)232-7151
019-550-97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평수: 2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3천만원 (집기류포함)

011-491-2347

사찰암자터

- 경북 영양에 지방도 계곡 접한 언덕 위 국유림 내에
- 전 1842평 같은 곳 전 925평
- 가액: 평당 5만원 호조건 주인 직

054)682-8888
011-538-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 부지: 총 1650평,대지 300평
- 건평 100평
- 구조: 법당 요사채 2동 산신각 용신각, 황토벽돌 .
- 요사채 1동은 구들방으로 된 황토 귀틀집임(방 5개)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320-884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 평수 : 55평
- 법당 완벽, 호신불 150불
- 오존불, 탱화
- 시설일체완비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10-6215-974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 평수: 55평, 2층건물에 2층
- 삼존불, 지장보살님,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시설비 900만원

010-7188-298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능곡 전철역 3분거리
- 3층건물 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냉난방완비
- 시설총액 1억원 이상 소요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 4천만원

010-9889-944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성로
- 3층건물 중 3층 옥상, 인법당.
- 실내전용면적 40평
- 불교대학운영적합 비품일체양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70만원/시설비 4000만원

011-536-64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
- 대지 230평, 법당 15평
- 요사채 15평(황토방 2칸, 작은방 3칸), 창고 10평
- 가액: 5천 5백만원

054)834-9085
010-5504-9085

포교원안내

- 위치: 성북구 길음동 전철 출구 바로 앞
- 4층건물 중 2층
- 실평수: 40평, 법당 20평
- 방2, 욕실, 공양간, 삼존불, 후불탱화,각단탱화(고려불화)
- 가액 :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총 2000만원

010-2665-239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후문 부근
- 5층 건물에 3층 약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있습니다.
- 상담하시는 스님 최적지

010-7104-2138
010-9940-9779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정년퇴직 불자 가족,나무 꽃 잔디 가꾸며 남은 여생 지낼분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큰방2, 작은방2,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토지: 1000평
- 건물 1층 40평, 2층 20평
- 조경과 잔디밭 너무 좋음
- 집앞에 강물이 흐르고 앞 뒤에는 소나무 숲이 있음
- 완벽한 집, 그림 같은 집
- 가액: 4억 5천만원

011-9071-7713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 (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3천 8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감만동 대로변
- 4층 건물에 3층, 40평
- 옥탑방 2칸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옥탑방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0-8108-0108

포교원 안내

- 위치: 천안시 천고사거리 천안전철역 도보 7분
- 평수: 약 40평
- 3층건물 중 2층
-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욕실,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5154-701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인법당 안내

- 위치 : 논산시
- 부지 : 520평, 건평 4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일체 시설완비

041)733-0925
010-4157-0925

암 자 안 내

- 위치: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 요사채 1, 작은법당 1
- 가액: 6,000만원

011-723-6640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시내 중심가
-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42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즉시 법회 가능

010-4176-077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망미 지하철 입구역
- 2층, 30평 전체 (법당, 주방, 방1칸, 목욕탕, 창고)
- 항시 기도법회중
- 모든 집기 일체
- 시설 완벽, 즉시 법회 가능함
- 가액: 집세 500 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스님 소임 관계로 급

051)752-5856

사찰(급)안내

- 위치: 포천시 송우리(의정부경계)
- 총평수: 430평
- 1. 2층 건물 중 1층 명부전 50평(위패단 및 극락도량) 2층 대웅전 34평
- 2. 별채 1호 80평 중 1층 휴게실, 2층 산신각 및 선방 1칸
- 3. 별채 2호 150평중 일부 주차장 일부 60평 중 종무실, 매점, 공양실, 선방2칸, 화장실4평
- 모든집기 일체 양도합니다
- 가액: 15억 5천만원

010-9757-724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춘천시 남산면
- 교통: 가평 터미널에서 10분 강촌 나들목에서 12분
- 특징: 완벽한 기도처, 현 산중턱 독립펜션운영중
- 평수: 700평, 가옥 50평 사찰터에서 펜션을 운영하니 사정상 사찰을 하실분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가액: 5억 3천만원(주변 땅은 매입 가능함)

033)263-1719
019-9177-1084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 삼성가 목조 5평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 : 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콩만한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용암사)
- 대구에서 50분 창영에서 20분 합천에서 25분 부산에서 80분) 진주에서 대구가는 국도 20번에 접합
- 100M 차량 출입가능
- 대지: 200평+200평...평당 약 20만원
- 건물: 법당(목조 13평 6천소요)
- 요사채(신축 32평: 슬라브일부기와. 평당 300만 소요)토목 및 석축 옹벽에 많이 소요되었음
- 가액 : 몽땅 1억 4천만
- 스님 부재로 운영곤란 하여 양도 하려고 합니다

011-9329-4241(처사)

사 찰(급)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사찰안내

- 위치:경기도 화성시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 부근
- 대지: 220평 , 건물1층 요사채 47평
- 2층법당 23평,방6, 주방, 거실, 화장실,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산신당 4평별도
- 기타: 심야전기, 옥외주차장 약 80평, 옥외화장실 남녀 각 1, 집기일체
- 당일 법회 가함, 몸만 오시면 됨 노령으로 양도코자 함
- 가액: 4억(절충가능)

011-9114-9935

신 도 시 부 근 사 찰

- 경기북부 시내중심(도보10분거리) 풍치 수려한 절
- 부지 680평(실사용 천평이상)
- 대웅전 20평, 요사채 2동 (100평 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전철역(2블럭) 개통예정
- 잠실,강북 30분거리 포교와 수행의 최적지
- 가액: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 선이나 상담후 절충가

011-393-0013
011-710-7294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2753-7089

별장 및 사찰 가능한 집 안내

- 위치 : 공주시 마곡사 IC에서 8km 마곡사 도보 20분, 차 5분거리
- 전체면적 : 500평(대지 298평, 밭 50, 국유지임대 150평)
- 특징: 마곡사 태화산 줄기를 타고 동화속에 나오는 그림 같은 집으로 별장 및 현 시대에 맞는 사찰로 탁월
- 가액 : 2억 6천만원

010-9935-8108
010-3045-3245

‘부처님이 되는 시간’ 가장 나답게 살아가기 발원

화계사 삼천배 철야정진

서울 수유리 화계사(주지 수경)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3천배 철야 정진을 한다. 화계사 신도들과 각처에서 모인 불자들이 3천배를 하며 마음을 닦고 있다. 이번 3천배 철야정진에 참여하게 된 것은 불력회 인터넷 카페(cafe.daum.net/buddhapower)를 통해서다.

수행을 통해서 참된 불자가 되자며 절 수행과, 참선, 독서모임 등의 활동으로 불력회(회장 박종린 법사) 회원들이 8월 한 달 정진을 회향하며 화계사에 모였다. 이번 3천배 철야 정진에 앞서 박종린 법사는 “일체존재의 근본이자 나의 참 생명인 부처님이 되는 시간인 기도는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으로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고 말했다. ‘내 속에 깃들어 있는 나의 참된 힘이 바로 부처님힘[佛力]’이라고 말하는 불력회의 철야정진에 동참했다.

#설렘

삼천배 철야정진을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렇게 덥다고 얼음을 물고 살았는데 그날 저녁은 바람도 불고 서늘했다. 버스에서 내려 화계사까지 걸어가는데 고등학교 때 이모 따라서 철야정진을 갔던 때가 떠올랐다. 철야정진이란 것을 처음 했는데 이모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자다가 스님께 죽비로 몇 번 맞았던 추억을 대뇌이면서 흐뭇해졌다. 그런 내가 혼자, 그것도 밤에 정진을 하러 간다니 신기하면서 기분 좋았다.

지금까지 절을 제일 많이 한 것이 108배인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다리는 괜찮을지, 3천배를 하면 소원을 이룬다는 말을 들었는데…하는 생각을 하면서 절 일주문 앞에 도착했다.

합장 반배하고 법당으로 가는 길 시냇물소리가 나를 반겼다. 깜깜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왼쪽에 흐르는 물소리가 맑고 시원하게 다가왔다.



법당에 모인 50여명의 불자들은 엄마 따라 온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했다. 옷을 갈아입고 시간이 남아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으니 산사의 어둠사이로 편안함이 내려앉았다. 화계사 옆을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면서 ‘참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렇게 쉬고 있는데 목탁소리가 들려왔다. 스님이 들어오셨다. 스님은 아무 말도 없이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하시고 관음정진을 시작했다. 화계사 대적광전을 찾은 50여명의 사부대중이 다 함께 관세음보살을 읊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 관음정진과 죽비소리에 맞춰 절을 시작했다.

원래 절을 하면서 숫자를 헤아렸는데 이번에는 세지 않았다. 수를 세니 절하는 것에 집중이 안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을 할 때 염주를 사용하나 보다 생각했다. 절하다 보니 어느새 50분이 지나갔다.

옆에 보살님의 말에 의하면 50분에 500배를 하고 10분을 쉰다고 했다. 그렇게 9시부터 3시 까지 여섯 시간 진행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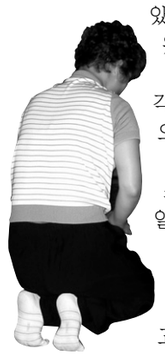
일단 500배를 하고 나니 몸이 가뿐했다. 그동안은 108배만 해도 힘들었는데 왜 안 힘든가 생각했다. 첫 번째는 수를 헤아리지 않아서 인 것 같다. 이번에는 한배, 한배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얼마나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죽비소리에 맞춰 다 같이 절을 하니 ‘절이 절로’ 됐다. 세 번째는 관음정진을 하니까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여러 가지가 맞물려 효과를 내는 시간이었다. 중간중간 숨이 차올랐지만 이런 시너지효과 때문에 무사히 500배를 마칠 수 있었다. 지금처럼 계속 하자 마음먹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하니 힘들어도 재미가 있었다. 또 이번처럼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불러본 적도 없었다. 신기록을 많이 세운 시간이었다.

#참회

1000배를 향해 가다보니 낮은 기온과 바람을 뚫고 몸에서 땀이 흘렀다. 다리의 근육도 아파왔다. 그 뻐근함과 함께 문득 그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담고 살았다는 생각에 답답함이 올라왔고 털어버리고 싶었다.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비워냈으면 하는 간절함이 생겼다.



그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괜스레 눈물이 났다. 지난날의 일들이 떠오르면서 잘못들도 생각이 나고, 또 여러가지 감정이 올라왔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사람 일은 인과응보이고 인연법이 있다는데, 지은 대로 받을 것이고 인연이 있는 곳에 가 닿겠지란 생각이 들었다.

나약함이나 두려운 생각도 다 버리고 싶었다. 관세음보살 정진과 마음속으로 ‘비우겠습니다. 비우겠습니다’를 되뇌이면서 절을 계속했다.

땀은 났지만 정신이 더 맑아졌다. 그렇게 죽비소리만 나면 무릎을 법석에 내리치고 절을 하고 또 했다. 어느 순간에는 머리 정수리 부분이 시원했다. 처음 느껴본 시원함에 절을 하면서 신기하기도 했다. 분명 땀은 나는데 어딘가 모르게 시원하고 몸이 가벼웠다. 그렇게 두 번째 시간이 끝났다.

‘그럼 1000배나 한 거야?’라면서 속으로 신나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돌아보게 됐다. 내 마음하나 못 다스리면서 무슨 소원은 소원인가 하면서 참회했다.

#메뚜기보살

세 번째 시간이 됐다. 천배를 하고나니 다리의 통증이 있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스님의 죽비소리와 관음정진이 시작됐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니 두 번 할 거 한번 하게되고 자꾸 속도가 늦어졌다.

장단지 근육이 팽팽해진 느낌이었다. 순간 엎드린 채로 일어나기 싫었다. 입으로 관세음보살 정진은 하면서 엎드려 있길 그대로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 와서 내 머리를 부채로 치는 것이다. ‘아’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났다.

옆에 스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메뚜기가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메뚜기의 모습에 한번 더 놀랬다. 반수면상태에서 ‘메뚜기 날개짓’을 ‘부채’로 느낀 것이다. 분명 부채인줄 알았을 때는 스님의 가사가 내 옆을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메뚜기라니. 놀란 마음이 쑥 사라지면서 메뚜기가 한발 두발 내게로 왔다. 메뚜기가 ‘수행하러 왔으면 자세라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 좌복 위를 걸어 다니는 메뚜기가 귀여워 보여 그냥 뒀다. 메뚜기는 주위를 몇 발짝 더 걸어나니더니 또 그 날개짓을 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보니 졸고 있는 다른 보살님에게 갔다.



보살님도 흠칫 놀라시더니 메뚜기가 올라탄 좌복을 밖으로 가져다 날려 보냈다. 메뚜기보살이 졸고 있는 나를 깨우러 왔나보다.

#한계

그렇게 메뚜기가 다녀간 뒤 난 한참 앉아 있었다. 그러다 자연스레 내 주위에있는 사람들을 돌아봤다.

저 사람들도 모두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바른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찡했다. 내가 앉아있는 동안에도 절을 하는 그 사람들의 바람이 다 이루어지길 기도했다. 그렇게 나는 1500배도 다 못채우고 메뚜기와의 만남 뒤로는 쭉 앉아있었다.

삼천배 정진이 끝난 시간은 새벽 3시 30분이었다. 옷을 갈아 입으려 화장실에 갔다. 손을 씻는데 얼룩진 세면대가 보였다. 비누 묻은 수세미로 세면대를 닦았다. 깨끗하게 닦고 법당으로 다시 갔다. 조금 있으니 도량석과 함께 새벽예불이 시작됐다. 비가 내렸는데도 화계사 스님들과 또 화계사 주변에 사는 신도분들도 참석했다. 예불이 끝나고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땐 너무 졸려서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버스에 올라탄 순간부터 잠에 취했다.

#파스향기

일요일 아침에 집에 도착했다. 샤워를 하고 누우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 잘 자고 나서 일어나려는데 다리 근육이 더 아팠다.

근육통 치료되는 파스를 찾아 옥상에 가서 뿌렸다. 파스 냄새가 얼굴까지 덮어 몇 번을 ‘켁켁’ 거렸지만 시원했다. 그러고 나서 거실에 앉아있었는데 여기저기서 가족들의 원성이 들려왔다. 그새 파스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워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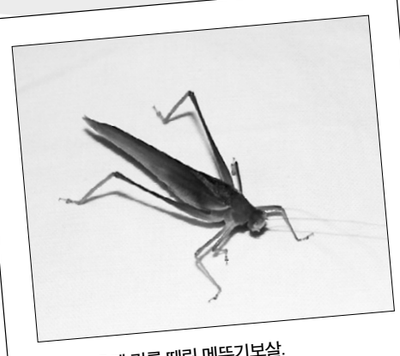
원성이 들리고 다리는 아팠지만 좋았다. 나는 그대로 였지만 그 때의 기분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 “500배… 1000배 낮은 기온과 바람을 뚫고 몸에서 땀이 흘렀다, 지난날의 일들이 떠오르며 잘못들과 여러가지 감정이 올라왔다”



회계사 대적광전 3층법당에서 삼천배 철야정진을 하는 신도들.



졸고 있을때 귀를 때린 메뚜기보살.

불자정보

748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부지 : 총 2123평 (종교부지165평)
●법당 15평(단청),산신각 5평 (단청), 요사채 30평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양도가 : 2억 3천
010-5430-3963

대형포교당(전세및양도)
●위치:경기도 지역 고속터미널 부근 (부천)
●100만 신도시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평수: 220평 14층 / 5층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문양인테리어됨
●법당앞에 2010년 지하철개통 주차장 100대 가능
●가액: 임대 3억 5천(양도가능) 시설비 절충가능
011-707-5552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대지 50평, 건평 50평
●모든 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가액: 보증금 5천만,월 50만원 (전, 월세도 조정가능)
010-9990-5234
신현대부동산

사 찰 안 내
●위치: 경남 진해시
●임법당: 20평, 대지 300평
●요사채 별도 1동 , 주차장, 화장실 (현대식) 창고2, 법당 및 기타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됨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 충
010-2570-9566

작 은 토 굴
●위치 :강원도 홍천군
●평수 : 대지 110평 (건평 30평)
●임법당
●가액 : 1억원
033)434-2916

포 교 원 안 내
●위치: 부산 시내 중심가 (지하철 3분거리)
●평수: 60평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2844-3751
011-848-3647

포교원 안내
●위치 : 대구시 동구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포교당(급)안내
●위치 : 부산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탱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집기일체
●법당40평, 방3개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0-2945-7704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함안
●대지140평, 텃밭 28평, 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4), 스님방 1, 창고 大,小 2개, 건물 90평정도, 단독지하수 사용
●화장실 겸 샤워실2, 부엌겸 거실1 , 바깥큰부엌, 1, 마당까지 주차가능
●가액: 1억1천 5백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9466-1191

사 찰 안 내
●위치 : 포항 도심 속 기도도량
●50평에 약 100평 사용
●2층 휴게실, 공양간,임법당50평, 내실, 사무실, 주방1, 욕실2, 외부 해우소 1
소불 1500불, 용궁문수동자200불,
●정원석 소나무3그루, 분재多
(외부 독성각, 소원석, 용궁, 약사동상)
●가액: 4억(절충가능) 주지스님 합장
●주지 스님 사정상 급 안내
017-516-5773
010-4502-7318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제일고등학교 맞은편 산중턱
●법당, 주방, 욕실, 산신각
●가액 : 2천 5백만원 (가액조절가능)
011-9370-7513

사찰(급)안내
●위치: 경남 밀양시 도심 속 100년 된 암자
●법당20평, 요사20평, 산신각3평, 용왕당3평
●포교하실 분 (비구니 스님)적합
●대지 총 280평, 국유지(주차장)100평
●가액: 2억 9천만원
055)355-1275
010-9313-1381
010-9411-3813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대지 : 총776평,(대지238평, 전538평)
●건물 : 요사채 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산신각 2.5평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이상 (3년~4년생)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 진입
●함창읍에서 2분 ~ 3분거리, 접촌에서 5분
●가액: 1억 2천만원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부 산 대 사 찰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대지 : 300평
●국유지 : 480평(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가액 : 11억 5천만원
011-563-1545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약천사
● 주 지 : 상산 (이기옥)
● 주 소 : 경기 평택시 도일동 173-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9일

대한불교대덕종 총무원장 법하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④ 소익잠난정도

'난정기'에 기록된 사찰 다법 보여줘

중국 당대(唐, 618~907)는 불교가 흥성한 시기였다. 또한 사찰에서는 차를 마심으로써 수행 도중에 찾아오는 수마(睡魔)를 경계했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기능으로 널리 음용했다. 근래에 차를 생각하면 자연스레 사찰이나 수행이 떠오르는 것도 이처럼 당대에 차가 도(道)를 만나고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결과이다. 우리 역시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융성과 더불어 전례 없이 차 문화가 확산되고 청자 다완이 유행한 사실도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사찰에서는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 차를 마셨을까. 대북고궁박물원에는 당대에 사찰에서 손님을 맞아 차를 마시는 장면을 그린 작품 한 점이 전해지고 있다. <소익잠난정도(簫翼賺蘭亭圖)>는 궁정 화원으로 활동한 염립본의 그림을 송대의 화가가 모사한 작품이다. 그림은 사찰의 다법을 보여주는 진귀한 자료로 내용은 하연지(何延之)의 <난정기(蘭亭記)>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고 있다. 이야기에 따르면 동진(東晋)시대 서법의 대가 왕희지는 4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금의 중국 소흥(召興)지방의 난정에서 큰 모임을 가지고 <난정서>를 완성했다. 왕희지가 죽은 후 난정서는 그의 7대손인 지영에게 전해졌으며, 이후 지영의 제자인 변재 화상이 이것을 소장하게 됐다고 한다. 당태종은 변재 화상이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음을 알고는 세 번이나 사자를 보내 그에게 <난정서>를 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는 매번 전란 중에 이를 유실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를 전해들은 태종은 모략과 재주가 있는 소익을 허름한 서생으로 꾸며 <난정서>를 빼내오도록 했는데 그림의 장면은 바로 소익이 변재 화상을 찾아가 차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전 염립본(閻立本, ?~673), <소익잠난정도>, 비단에 채색, 27.4x64.7cm, 대북고궁박물원 소장.

화면 중앙에는 선의(禪倚)에 기대앉아 왼손에 불선을 들고 있는 노승 변재가 보인다. 무던한 인상의 그는 소익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뒤편에 서있는 스님은 소매 안에 손을 넣고 <난정서>를 취하기 위한 계책을 숨긴 소익의 내면을 알아보기라도 한 듯하다. 이처럼 인물들의 내면적인 개성이 잘 표현돼 있으며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느껴지고 필묵(筆墨)에는 고고함이 드러난다.

화면의 왼쪽에는 하인 두 명이 차를 달이고 있다. 사찰 안에서 차를 준비하는 모습과 그곳에서 사용된 다구의 모습이 사실적인 표현으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수염이 덥수룩한 하인은 한 손에 다협자를 쥐고 차탕을 젓고 있으며, 그 옆에 차동은 차탁을 들고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분다(分茶)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솥에 차를 넣고 끓여 잔에 나누어 담는 당대 사찰에서의 전다법(煎茶法)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는 것이다.

당대부터 사람들은 차를 도(道)와 예(藝)에 연관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시는 사람의 덕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 일찍이 육우는 <다경(茶經)>에서 '검약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만이 차를 마실 수 있다'고 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미감에 차가 상응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차나 한 잔 마시게(끽다거: 喫茶去)"라는 화두로 많은 선승을 깨우쳤던 당나라의 조주 선사도 차를 깨달음의 도구로 삼았다. '地水火風'의 작용 속에서 중정(中正)의 이치를 얻은 차를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견(正見)'을 지니는 것은 불도를 터득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된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차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소통의 장이 됐는데, 소익은 이러한 차의 효능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다시 육우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 차 마심이 수행의 준비단계가 아닌 듯하다. 차탕을 달이기 전에 이미 정신이 오롯해지고 마음자리를 가지런히 하는 것은 '덕망 있는 자만이 차를 마실 수 있다'던 육우의 준엄한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차를 마시기 전부터 이미 수행의 순간이니 일상을 내내 평정토록 하는 속 깊은 교훈이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① 낙산사 칠층석탑



낙산사 원통보전 앞에는 칠층석탑이 하나 서있다. 탑이라기보다는 팔 다리가 없는 토르소(torso)처럼 보였다. 역사와 세월이 만든 조각 작품이었다. 몇 해 전 큰 산불로 낙산사가 스러져가던 날, 검게 그을린 칠층석탑은 한 줌 재로 변한 원통보전 앞에서 또 한 번 사라진 역사의 미망인이 됐다.

칠층석탑이 검은 상복을 벗고 젖은 눈을 뜨던 어느 가을 날, 원통보전은 꿈처럼 다시 세워지고 낙산사는 그림처럼 다시 태어났다. 역사가 슬픈 세월 속으로 사라질 때마다 석탑은 늘 홀로 남겨졌고, 또 다시 낯선 역사 속에 홀로 서야했다. 역사를 목격한 대가로 떼어준 석탑의 살점들은 어디로 갔을까.

바람도 석탑을 지날 땐 석탑만큼 부서져야 석탑을 지나갈 수 있었고, 가을햇살도 석탑만큼 부서져야 석탑을 꼭 안을 수 있었다. 그것들이 사라진 석탑의 살점들이 아닐까. 석탑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석탑의 사라진 살점이 되고 있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詩가 있는 도량

▪ 간절곶에서 고래를 기다리다

푸른 바다 북을 치는
당신의 힘찬 헤엄
그래서 해가 뜨고
저 바다는 푸른데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자꾸자꾸 애가 탄다

당신을 기다린다
목이 빠진 저 간절곶
고래 없는 저 바다는
바다도 아니라고

끝끝내 우리 만날까 부르고 또 찾아가면

-이종암, <유심> 7 · 8월호에서

옛 판화의 세계

백장 스님이 청규를 만들다 백장청규(百丈淸規)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백장회해(百丈懷海)가 백장산에 주석하자 선승들이 구름같이 운집했으며, 선원을 세워 선원이 질서 있게 유지되게 청규를 정해 선원의 기풍을 마련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 스님은 당나라 복건성(福建省) 복주(福州) 출신으로, 백장산(百丈山)에서 주석했기 때문에 백장회해라고 부른다. 서산혜조(西山慧照)를 따라 삭발했으며, 여강(廬江)의 부차사에 들어가 그곳의 경장(經藏) 안에서 대장경(大藏經)을 연구했다. 767년 무렵에는 남강(南康)에서 마조도일(馬祖道一)을 만나 대오했으며, 백장산에 들어가 많은 제자들을 교화했다. 제자 중에는 황벽희운(黃檗希運)과 위산영우와 같은 뛰어난 제자들이 배출됐다.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며, 하루 먹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백장의 선풍(禪風)을 드러내는 유명한 말이며, 백장산에 율원(律院)으로부터 독립한 선원(禪院)을 창설하고 다시 율전(律典)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 선종 독자의 규율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백장청규(百丈淸規)'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도승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자급자족하는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됐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의 도를 널리 펴 근원적으로 교화해 먼 미래의 끝까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찌 <아함경>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옳겠는가? 대승과 소승의 율법 가운데 넓고 요약한 것을 절충해서 규약을 마련하고 모범을 제정하여 선으로 돌아가게 힘쓰는 것이 옳다.' 이에 따라 선방을 세워 도안(道眼)을 얻은 사람을 장로라 부르게 했으니 이는 서역에서 도가 높고 법랍이 높은 사람을 수보리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곳에 모여 배우는 대중들의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승당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승당 안에는 길게 이어진 선상에 횃대와 시렁을 시설해 도구를 걸고 얹어 놓게 했으며, 누울 때는 반드시 비스듬히 선상의 요 위에 베개를 베고 누워 그가 좌선한 지가 이미 오래됐기에 간략히 몸을 눕혀 쉬게 했을 따름이었다. 아침에 참문하고 저녁에 모이게 하고 음식은 각자 좋은 데 따라 먹게 하되 절약 검소한 기풍을 보여주게 했다." 백장청규가 제정되면서 모든 선원들은 이를 따르게 됐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신인사지(神人捨地)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대관신청기간 : 2009년 9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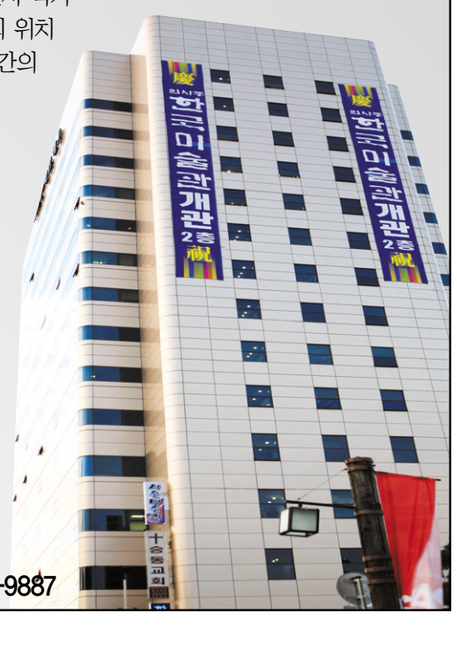
2010년 대관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2층 전층 436평
■ 전관 1360㎡(412평) (공유면적포함)
■ A관 700㎡(212평) 〃
■ B관 660㎡(200평) 〃
■ 1관 554㎡(168평) 〃
■ 2관 462㎡(140평) 〃
■ 3관 343㎡(104평) 〃
■ 사무실 80㎡(24평) 〃

첨단 전시 시설을 갖춘 대형 전시장!!
한국미술관은 대표 화랑가인 인사동의 중심 인사동사거리에 위치한 대형 전시관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미술 애호가,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시 작가들의 작품 홍보에 최적의 위치로, 최상의 전시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관신청 문의 및 접수
· TEL : 02)720-1161~2
· H·P : 011-275-4330 관장 이홍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2층
· 홈페이지 : www.koreagallery.co.kr





불자가 개관한 미술관입니다. 불교서적과 미술서적을 전문으로 출간하는 이화문화출판사에서 미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불자님과 스님의 전시를 정성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화문화출판사
月刊 書藝文人畵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67-2
TEL 02)732-7096~7 / Fax 02)738-9887

2010 불교달력출시
공장→사찰 직거래판매
달력가격 대폭인하
창립35주년 기념세일(임시할인가)
생산자
~~도매상~~
~~불교상회~~
사찰

12절 100,000원 (100부)
다이어리 120,000원 (200부)



※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세요.

검색창에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011-554-2988



대행 스님

우리의 생활 속에 바로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또 제가 이렇게 지내 오면서 보니까 말입니다, 글쎄 천도가 왜 생겼나 했더니, 천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있는 대로 이 도리를 가르치시고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있는 대로 함이 없이 설법을 하셨는데, 49년이라는 건 무슨 어느 날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49년이라 합시다. 그렇게 설법을 하고 그렇게 행으로 보여 주셨고, 말로 듣게 해 주셨고 귀가 뚫어져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착이 조잘이 조잘이 붙어 가지곤 사대가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영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이구, 아이구! 나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도리를 몰라서 착이 잔뜩 있으니까, 욕심을 잔뜩 그냥, 내 몸뚱이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친척 집으로, 내 자식들 집으로, 친구 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도를 안 하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지면 자기의 그 고덩어리가 전부, 인과로써 맺어진 인연들이, 그냥 요만한 것들이 전부 화해서 큰 곤충으로 변해 가지고, 또 인간의 인연을 맺은 인과는 그냥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전부 늘비하게 널려 있으면서 그림자처럼 자기를 쫓아다니니 어찌 한 발짝인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게 첫째 대목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은 만날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고, 기독교인들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말입니다, '천도가 이래서 생겼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중들이 귀찮게 무슨 천도야, 천도가. 만날 그냥 음식을 괴어 놓고 염불하고, 뭐 해 가지고 오면 만날 잔뜩 벌여 놓고선 하고 그러는데….' 그전에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이런 생각이 납디다. 이렇게 만날 그런 걸 눈으로 보고 가지 않습니까? 글쎄, 모두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요, 살아생전처럼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강에 가서 배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글쎄, 배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백 생을 기다린들 그 배가 오겠습니까? 자기가 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한 생각 끄덕하면 한 찰나에 건너갈 수 있고, 건너가자니 내 마음이 공했는데 강이 어디 있으며 건너갈 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건너간다는 말을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영혼들이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죽 서 있다니 말이 됩니까? 아, 그래서 배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영혼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자기가 몸이 없다는 것을 알면 빠져 죽을 것도 없고 그럴 텐데 그 영혼은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갈 수도 없죠. 참 묘한 도리입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이 자기를 홀랑 벗겨 놓을 수도 있고 홀랑 씌워 놓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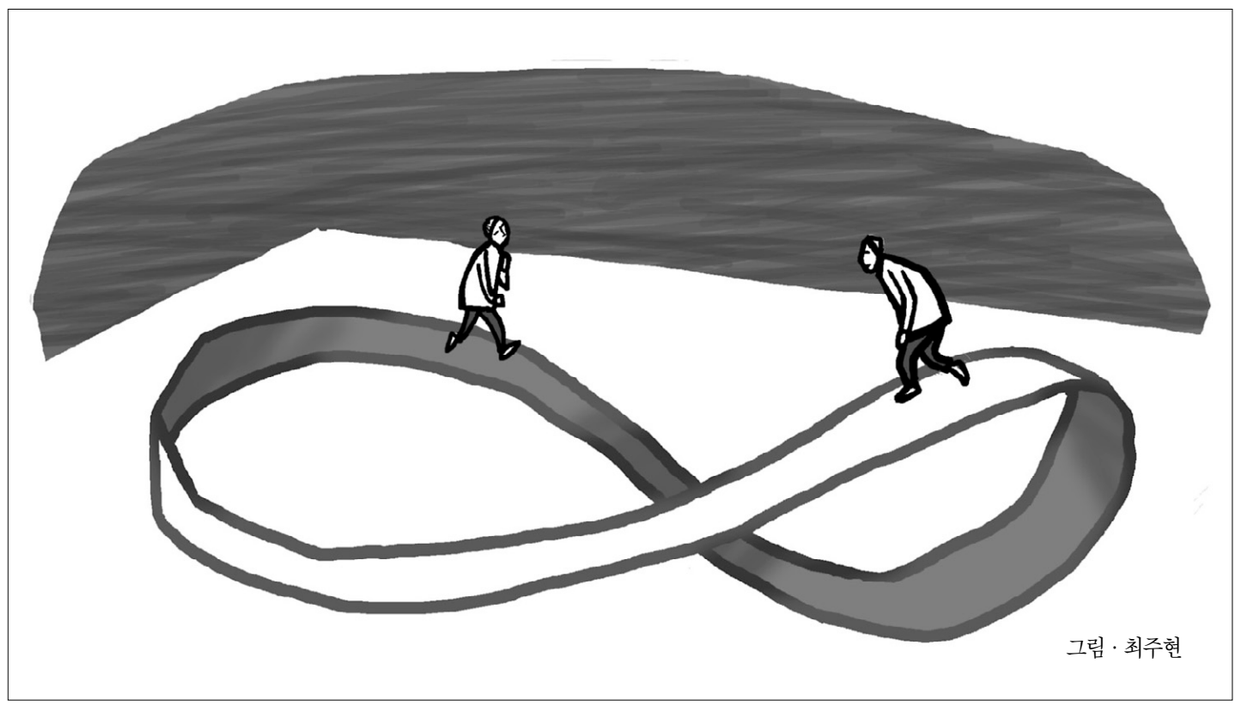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번째는 이 세상 우주 천지가 전부 불바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생명들이나 은하계 혹성이든 별성이든 유성이든 행성이든 전부가 불아닌 것이 없지요. 불성 아닌 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불성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율동을 하기 때문에 그 율동을 하는 대로 에너지가 배출되죠. 불바퀴로 배출이 된단 얘기죠. 왜냐하면 불바퀴는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은하계도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성도 전부 한두 군데 집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네가 저기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서 운동을 하는 것이 뭐냐? 자꾸자꾸 발전을 하고, 죽고 살고 발전하고 이렇게 행하고 돌아가니까, 그 에너지는 어디로 배출이 되느냐 하면 바로 불바퀴로 배출이 됩니다. 가만히 그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불바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용도대로 끌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력을 발전소에서 끌어 쓰는데, 크면 큰 대로 끌어 쓰고 작으면 작은 대로 끌어 쓰죠? 그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성이 별성대로 그 마음에 따라서 별성들이 바로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면 율동을 하고 율동을 하면 바로 배출이 되고 에너지가 되죠.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고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 속을, 불바퀴 소용돌이를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마음들은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있는 줄 알고 타 죽을까 봐 애쓴다는 그 점을 좀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 법칙으로 인해서 악업 선업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모두 늘비하게 늘어서 있으면서 자기가 거기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1단계와 또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가는 2단계와 또 타 죽을까 봐 못 넘어가는 3단계가, 단계 없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내 한생각을 돌리면 1단계도 없고 2단계도 없고 3단계도 없건만, 그렇게 해 가지고서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없고, 그런 고덩어리를 짊어진 채 영원토록 세세생생에 끄달리면서 그저 만날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른다면 죽어서도 모릅니다. 만약에 살아서 열반이라는, 이름해서 열반이라는 그 자체를 못 넘어선다면 우리는 죽어도 열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거니까 여러분부터 믿어야 하고 여러분부터 알아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남한테서 무엇을 받아야 하고 남한테서 무슨 행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나쁘다 좋다,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자기가 벌써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쁘고 좋은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마음공부라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라고 이름만 불러 놓고 진짜 행을 안 하고 실험을 안 하고 체험을 안 하신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 부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열반하셨다고 해서 안 계신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흙 하나, 물 한 컵 이것도 바로 부처님이 계신 그 증명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신 것도 없고 가신 것도 없습니다. 수만 명, 아니 수억만 분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한 분이자 그 한 분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 있죠, 공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삼십이상을 구족함으로써 삼십이응신으로서 수많은 생명들에 응해 주십니다. 하다못해 뱀 새끼가 "아이구, 부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해도 뱀 속에 들어가서 한마음이 돼 주시는, 찰나에 응해 주시는 그런 자비가 있습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만이 한생각에 저 우주 법계를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것이요, 귀가 될 것이요, 바로 한마음이 전부 그걸 두루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횡설수설, 어떠니저떠니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비록 체계 있게 하지 못하고 말이 서툴러서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잘 참작해서, 바로 여러분께서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진짜 한 걸음 떼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멋쟁이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목마르면 그냥 냉장고 문 열고 그냥 마시지 '내가 이 물을 마셔야 옳을까, 안 마셔야 옳을까?' 이러고 마십니까? 똥이 급해 죽겠는데 '내가 똥을 눠야 옳은가, 안 눠야 옳은가?' 하고선 계산하고 똥을 눕니까? 이 모두가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우리들의 법이 없다면, 생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석존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이 석존이라 할지라도 나는 석존의 고깃덩어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석존을 참 받들어 모시되 내 가죽 속에, 내 골수 속에 넣고 참으로…,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이럴 수 있는 그 마음이, 첫째에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한마음' 하면, '원' 하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큼 나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면 부처요 한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 바로 문수요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 화신이니라." 화신 말

☞26면으로 계속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설법·화술
최면, 설법, 강의, 축사 등

1.교육일정
◆ 개강일자 :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7시~9시까지
◆ 모집인원 : 종합반 선착순 10명 개인지도반 수시접수
◆ 교육비용 : 35만원, 2개월과정(8회)

2.교육내용
◆ 설법, 강의, 축사, 회의 토론 등, 실습
◆ 말에 힘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실습
◆ 대인 불안 공포증 없애기,
◆ 음성언어, 제스쳐, 시선 처리 등, 실습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피드백

3.지도교수 김철회 박사 40년 노하우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H·P 011-248-1567
TEL 02)747-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8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수 강 일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6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서진주 I C에서 5분거리>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 문의전화 : 055)747-8419

영남범패불음원

대한불교 비구니조계종
입종을 환영합니다

첫째, 본 종단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도의국사를 종조로 소의경전은 금강경 육조단경으로 하고 기타경전은 제한치 아니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보하고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종도님들 께서 현재 가지신 신분과 재산 등 기득권은 그데로 인정하며 종단운영은 맑고 투명하게 종도님들과 더불어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최초의 파자파티(비구니) 스님이 남존 여비의 어려운 시대상황을 극복하고 출가하여 지금의 비구니스님의 설자리를 마련하였음을 강하게 믿습니다.

파자파티비구니 스님의 뜻을 받들고,
양성평등시대에 걸맞는 비구니스님의 입지를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불자님들의 포교를
확대 강화하는데 뜻을 함께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입 종 안 내

■ 종단명 : 대한불교 비구니 조계종
■ 종교단체등록 (26111-00154)
■ 비영리법인고유번호 (620-82-67363)
■ 총무원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83-20번지
■ 연락처 : 052)225-7378 / FAX 052)277-0194
H.P 010-7135-7378

buddhanews.com

스스로 한걸음 떼놓을 수 있는 멋쟁이들이 되세요

☞25면에서 계속

이에요. 여기 아프면 여기 만져 줬다가 저기 아프면 저기 만져 줬다가, 온통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보현신이자 화신이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니 바로 여러분이 마음내는 거와 같습니다. 마음을 내야 움죽거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렇듯이 말입니다. 부처 법신 화신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도, 어떤 거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기 때문에 없는 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여러분이 계시는 한, 풀 한 포기가 있는 한, 물 한 모금이 있는 한 전부 부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나는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산골짜기에서 나무를, 옛날에는 나무를 동이 동이 이렇게 매서 쌓아 놨습니다. 산 밑에다가 치켜 쌓아 놓죠, 겨울에 때려고요. 봄에 때기도 하고 그러려고요. 동굴 속에 있다가 밤은 늦어지고 춥기는 하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부리에 차여서 발톱 반이 빠졌습니다. 피가 줄줄줄줄 흐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아파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자리가 딴 자리가 없건만 내 욕심에, 뜨뜻하게 잘 욕심에 가다가 그랬구나.' 그 돌부리도 추상같이 호령을 하면서, 자리가 따로 어디 있기에 자리를 찾아가느냐고 악을 벽력같이 썼습니다. 그러니 요런 돌덩어리 하나 부처 아닌 게 없고 법신 아닌 게 없고 화신 아닌 게 없습디다. 그러한데 어찌 제가 잘났다 못났다 이론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술적인 이론으로써 해(害)를 보고, 정신계에 입각하지 못하고 나를 밝게 보지 못해서 올바르게 발전과 개혁을 하지 못한 채 불나비 날아다니듯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자기를 먼저 믿고 물러서지 않고 찾는다면 찾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여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달마 대사께서도 양 무제가 그렇게 많은 시주를 했건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왜 공덕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너부터 알라' 한 그 말 한마디가 이날까지 살아서 귀에 쟁쟁합니다. '너부터 알라' 한 소리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인도에서는 산에다가 송장을 그냥 갖다 놓으니까 해골이 그냥 무더기 무더기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길 지나시다가 그 해골바가지를 보고 큰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찌 이런 해골바가지에다가 큰절을 하시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 "얘야! 그런 소리 말아라.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치면서 쫓고 쫓기면서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다시 모여서 또 자식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거듭거듭 해 나왔느니라. 그러니 저 해골이 바로 우리 친척도 될 수 있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뜻을, 그 도리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니 그 제자들은 "미처 이런 도리를, 이렇게 크나큰 도리를 몰랐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울었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마는 죽으면 바로 사대로 흩어져서, 네 가지로 분류가 돼서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 그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은 다시 생산처로 투입이 됩니다. 그것이 다시 모여서 다시 누구네 집의 자식이 또 됩니다. 구름이 흩어졌다가 또다시 다른 구름하고 모이듯, 또 구름이 흩어졌다가 다른 구름하고 모이듯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한식구로서 마음의 배낭을 짊어지고 캠핑 나왔다가 같이 모여서 살고 같이 놀다가, 한 철 놀다가 가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쇠전에는 무쇠가 모여 있고 넝마전에는 넝마가 모여 있고, 금방에는 금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 보니까 과일도 배는 배대로 놓고 사과는 사과대로 놨습디다. 일체 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구름과 한데 모였다가 다시 딴 구름하고 모일 때에 똑같은 차원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종지는 종지대로 놓고 접시는 접시대로 놓고 대접은 대접대로 놓듯이 그렇게 끼리끼리, 누가 모으려고 안 해도 끼리끼리 모이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모이고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모이고,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모이고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이러죠? 누가 오란 말 안 해도 장사를 하려면 시장으로 들어갑디다. 그러니 끼리끼리 모이는 건 자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 차원의 그릇에 따라서 모이게 돼 있죠.

그러니 한 가족이 모인다 하는 것도 인연 따라서 모입니다. "야, 너 이놈아! 왜 그러니? 공부를 왜 안 하니? 왜 그렇게 이탈을 해 가지고 나가서 안 들어오느냐?" 하고 온통 야단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저놈의 새끼, 나가서 죽지도 않구나." 하고 모든 거를 몰랐을 때 나로 본다면, 크면 큰 대로 나로 생각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나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정말이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항아리 속에 붙어 사는 벌레밖에 안 됩니다. 고등 동물로서 태어났지만 사생의 뜻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무리들이 다 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벗어나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다 줄줄이 붙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평화를 가져오려면 우주의 섭류를 알아야 하고 우주를 평화롭게 하려면 바로 삼천대천세계의 섭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도리를 공부함으로써 젊은 청소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고 베풀 수 있는 자비가 근원에서 샘물처럼 쏟아질 것이고 우리 국가의 역사도 빛날 것입니다.

또 경제도 빚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전을 거듭거듭 할 것이요, 세계가 평화롭도록 우리가 참 멋지게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이 자기를 홀랑 벗겨놓을 수도 있고
홀랑 씌워놓을 수도 있으니 참 묘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똑똑하기는 하나 지혜롭지 못해서, 불법을 탄압하고 모두 유교만 숭상했기 때문에 무심 도리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한 번도 안으로 깊이 새겨 보지 못한 까닭에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 교가 다르다, 저 교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구라는 한 항아리에 붙어서 한 발짝도 에누리 없이 살아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자기를 돌아다볼 수 있고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자기를 뉘우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 깊은 속에 바로 자기 부처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이 움죽거리면 법신이 되고, 몸이 움죽거리면 화신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부처님은 항상 우리가 있는 데 계셔서, 내가 변소간에 있으면 변소에 계시고, 내가 방에 들어가면 바로 방에 계시고 들에 가면 들에 계시고 일을 할 때면 일하는 데 계십니다. 내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하죠. 예전에 스물 한 대여섯 됐을 때입니다. 서울에 백련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가 보고 여직껏 안 가 봤습니다만 그때 제가 가 봤을 때는 나한전도 있었고 대처 스님들이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멘트로다가 네모반듯하게 해 놓은 자리가 있고 저 건너편으로 산소가 보였습니다. 그래 거기 앉아 있는데 날더러 '너, 아비가 자식한테로 가면 그냥 자식이 되고, 자식이 아비한테로 가면 아비로 하나가 돼 버리니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요, 사흘을 이슬을 맞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팔다리가 움죽거려지질 않습디다.

그러나 죄 없이 그렇게 된 거는 빨리 풀리더군요. 죄가 있어서 다리가 비틀어진 거는 더디지마는 죄 없이 그렇게 된 거는 아주 다리가 빨리 풀려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다리를 이렇게 아프게 한 것도 너고, 또 다리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놓은 것도 너고, 풀리게 하는 것도 너다.' 이러고는 그저 움죽거리기만 했죠. 그랬지만 그때 '그게 무슨 까닭이냐?' 그래서 아이, 글쎄 마음은 체가 없다는 걸 아예 생각지도 못했잖습니까? 나를 깨달아 가지고도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보다 깨달아 가지고 둘 아닌 도리를 알게 하는 자기의 작업이 아주 더 어렵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더한층 편안하게, 그냥 살아나가는 대로 사시려면 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 놓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사시는 게 다 주인이 사는 거지 여러분 몸뚱이, 산 송장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산 송장도 꼭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송장, 몸뚱이가 없으면요, 허망함 속에서 참나를 찾지 못하거든요.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열반, 구경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나는 시자로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거기 다 맡겨 놓고, 거기서 다 하는 것이니까, 아프더라도 말입니다. 보세요, 아프더라도 거기다가 다 맡겨 놓고 한 마음 속에서 아프게 만든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낫게 해야죠.

그것이 과거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카세트란 말입니다. 카세트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솔 나오는 거니까 어떠한 거든지 다 거기다 맡겨 놓으시면 그것이 바로 재입력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입력 하면 앞서 입력된 게 바로 없어짐으로써 내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바로 가환도 없어질 수 있고, 내 불편도 괴로움도 편안하게 아마 쉬어질 겁니다.

예전에 한암 스님께서 "3년만 눈 뜨고 푹 쉬어라." 아,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너는 죽어야 너를 본다." 그래 가지고 죽으려고 차 밑에 말입니다, 밤에, 새벽같이 떠나는 차 밑에 몇 번이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여섯 번, 일곱 번을 들어가도 못 죽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었습디다. 그러니까 모든 데서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저 여여하게 더 가려고 하지도 말고 더 안 하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내 한마음 주인공' 할 때, 한마음이라는 거는 왜 넣느냐 하면 이 자생중생들이, 의식들이 헤아릴 수가 없이 숫자가 많거든요. 의식들이 이 도리를 알면 한생각이 수천 마음, 그 모습 없는 모습으로도 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그렇게 광대무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처님 아님이 없는데 여러분 한생각의 차이니까, 한생각 차이에 여러분은 중생이고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님, 여러 큰 부처님들께서도 또 여러 작은 부처님들께서도 다 한마음으로 토론을 했으니 그쯤 아시고, 이제는 생활을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바로 실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1년 9월 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0(은평뉴타운지역 내)
www.idw.or.kr

불교노인요양원 삼천사 · 인덕원이
어르신을 모십니다

불교전문노인요양원 인덕원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해동의 영산으로 불리는 북한산 자락에 기존 건물을 신개축하여 국내 최대의 300병상 규모와 최첨단 시설, one-stop 토탈케어서비스를 갖춘 노인요양종합복지타운을 세워 어르신을 모십니다.

인덕원은 분야별 전문교육과 불심을 두루 갖춘 15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맞춤형 케어로 치매 ·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입소어르신을 부처님처럼, 내 부모님처럼 섬깁니다.

인덕원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보살행으로 실천하여 어르신과 가족의 아픔은 나누고, 행복을 만드는 불교전문노인요양원입니다.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받으신 분

■입소문의 : 02)385-8205, 02)3156-7500



불자 세상보기

정천구
영산대 교수

日자민당 몰락이 주는 교훈

세계정치판도가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변화의 바람은 한국에서 먼저 왔다. 2007년 말 대선에서 한국 유권자들은 10년간 평등주의와 햇볕정책에 매달리며 국가경영에 실패한 정권을 심판하고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를 내세운 정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바로 다음 해 미국에서는 변화와 희망을 내세운 민주당이 세계 금융위기와 이라크전쟁에 책임이 있는 공화당 정권을 누르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번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도 '새로운 일본', '이번에는 정권교체'라는 변화의 선거 전략으로 민심을 움직여 50년 이상 집권한 자민당을 압도적 차이로 누르고 승리하였다. 유권자들은 자민당의 국가경영 철학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가 공약한 변화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과도한 중앙집권화 과정을 역전시키고 많은 권력과 자금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둘째, 자민당 지배체제의 특징인 관료와 정치지도자와의 고리를 끊고 정치인은 정책형성에, 관료는 그러한 정책을 이행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셋째, 도시보다 농촌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과 이익집단보다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하토야마는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화의 종언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을 제안하였다.

지난 1993년 어렵게 이룩했던 첫 비(非)자민당 정권이 정권 내 투쟁과 이탈로 11개월 만에 붕괴했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새 정권이 유권자가 불안을 느낄만한 과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치도 이제 변화를 시작한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다케시 사사키 도쿄 대학 전임 총장이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부터 일본의 낡은 자민당 일당체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왔고 20년이 걸려 마침내 그것을 해낸 것이다. 전통적으로 일본 유권자들은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중국에게 넘겨주고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든데 대하여 자민당에게 책임을 돌렸던 것이다. 이번 총선은 20년 만에 최고에 이르는 70%에 달하는 투표율을 보였다.

일본의 정권교체는 유권자들이 큼직한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인이 만들어낸 이념적 기준이나 변화가 가져올 위험 같은데 영향 받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세계관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플라톤 이래 이성과 감성, 국가와 개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의 이분법으로 사물을 분리하여 인식하던 세계관은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과 탈근대 사회의 도래로 붕괴하고 있다. 20세기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서구의 정치철학은 이제 세상 만물은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는 불교의 세계관으로 점점 더 수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 위에 군림하는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다. 세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 자체임을 알게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유권자들은 이념적 잣대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더 국민을 안심시키고 골고루 잘 살게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총선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세계의 정치지형이 변화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여·야 정당은 이번 일본 총선이 보여준 시대적 추세를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불만평 박구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심연의 마음 찾아가는 독서를 하자

9월의 테마-독서

국자는 국 맛을 모른다? 이 말은 <법구비유경> 우암품(愚暗品)의 한 구절이다.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이를 아무리 오래 가까이 하여도 그 법을 알지 못한다. 혀가 음식 맛을 알 수 있듯이 어진 이가 지혜로운 이를 비록 잠깐 동안 가까이 하더라도 참다운 도의 뜻을 안다고 한다.

가을이 돼 풀어헤친 옷깃을 여밀 때면 의례히 내면의 성찰을 말하고 또 그것을 도우는 독서를 운운하는데 근간에는 국민의 독서량이 턱없이 미달인 관계로 도처에서 독서의 달이다 권장도서다 해서 지면을 가득 채운다. 그러나 이럴 때 한번쯤 읽되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양서(良書)이되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도 함께 진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양서 중의 양서라면 경전일텐데 경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할 것이다.

경전은 그 읽음에 있어 간경(看經)은 독경만 못하고, 독경은 전경(轉經)만 못하다고 했다. 경전을 다만 보는 것, 읽는 것과 굴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읽는다는 것은 말뜻을 읽는 것이지만 굴린다는 것은 내외의 행(行)이 완성되는 것이다.

전경의 전통은 요즈음도 승가에서는 잘 계승이 되고 있다. 맑디 맑은 도량한 켠에서 들려오는 낭낭한 독경소리가 그렇다. 그 독경의 소리는 스스로에게 깨달음이 실현되고 차별없이 일체의 미물에게 원음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굴림이 아닐까. 그렇게 읽는 전경의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불러오는지는 육조혜능 대사께서 출가하기 전 왁자지끌한 시장통에서 홀연히 듣게 되는 한 구절에서 무상정등정각의 발심과 기연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한 스님의 전경에 의해서이다.

전경에 대한 공덕과 진정한 의미를 혜능 대사는 그의 제자 법달 스님에게 잘 일러주고 계신다. 법달 스님은 평소 <법화경>을 많이 읽었는데 3000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자꾸 읽다보면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다보면 행간을 읽고 내외의 행이 완성되리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정성들여 3000번이나 읽었지만 대승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던 법달 스님이 혜능 대사께 고백하자 대사는 일언에 참된 독서를 가르쳤다. 바로 "심미법화전(心迷法華轉)이요 심오전법화(心悟轉法華)니 송경구불명(誦經久不明)하면 여의작수가(與義作讐家)하리라"는 것이다. 즉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이 너를 굴릴 것이요, 마음이 밝아지면 네가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니, 경을 독송하여도 오랫동안 그 이치를 밝히지 못하면 간직된 뜻과는 원수처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다.

경을 읽어 마음까지 밝혀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경에 담겨져 있는 뜻을 등지게 되는 것이니 경을 읽는 자는 모름지기 그 뜻을 깨달아야 경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전 삶이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삶이 된다는 대승의 취지이다. 이번 가을에는 단 한권이라도 단 한 번의 기회라도 더 늦기 전에 심연의 마음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독서를 해보자. 국맛을 모르는 국자가 아니고 진정 음식 맛을 아는 혀처럼 음식을 맛볼 줄 아는 그런 독경, 뜻이 통하여 참으로 통쾌하고 삶이 평온해지는 그런 독서를 하자.

영석 스님
동국대 외래강사



社說

선거로 종단이 멍들어서야

불교와 선거는 원론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불교는 세속적 욕망을 초월해 절대선과 절대자유를 추구하는 종교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그 근본에는 세속적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 불교계에서도 선거가 시행되고 있다. 종단이라는 제도의 틀이 권력화 되고 종교와 관련한 제반업무가 형성되면서 불교는 종교의 원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운영 시스템이 제도화되고 그 제도는 일정한 권력을 갖게 됐다. 불교와 권력, 불교와 선거, 불교와 정치 등등 개념적으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불가피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불교의 현대화'라는 틀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도 교단을 매우 신축성 있게 운영했다.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그를 계기로 하나의 제도나 계율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불교계에 조계종과 태고종의 총무원장 선거 얘기가 활발하다. 조계종에서는 청정선거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온도를 높이는 단계다. 이미 판을 왜곡시켜 버린 태고종에서는 사법부의 처분에 종단의 미래를 맡기는 법적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종단을 막론하고 과거 선거 국면에서 종단분규가 재연되던 악몽을 다시 연출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문에 종단이 멍든다면 그 종단은 종교는 없고 욕망만 있다는 얘기가 된다.

종단 관계자들은 '불교와 선거'라는 불협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연주할 지혜와 애종심이 없이는 종단과 불교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가불교 운동의 활력소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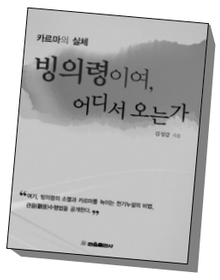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이 우리시대 재가불자들의 업적을 현창하는 일을 시작했다. 우선 대원 장경호 거사와 서경수 前 동국대교수, 백봉 김기추 거사가 남긴 업적을 조명한다.

근현대 한국불교에 있어 재가불자들이 차지하는 위상은 적지 않다. 중국불교에서 당송대의 지식인들이 불교사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듯이 오늘날의 한국불교에서도 다양한 방면에 재가불자들의 족적이 서려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종단은 그 구성원을 사부대중으로 한다.

그럼에도 일부 종단은 지나치게 출가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심지어 출가자를 재가자의 상위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부대중의 개념에서 출가자는 재가자에게 존경의 대상이고 불법을 안내 지도하는 입장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위의를 갖춰야 하는 것도 절대적인 요건이다. 소위 '막행막식'을 하는 출가자가 출가자라는 이유만으로 재가자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튼 공존과 상생의 관계, 존경과 귀의의 대상 등으로 다소 모호한 관계 속에 출가와 재가가 설정된다 하더라도 재가자들의 역할과 업적 역시 불교사상과 문화 창달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앞으로도 재가불자들의 업적 발굴에 장기적인 공력을 들이겠다고 한다. 종교백화점이라 불리는 한국사회에서 재가자들의 활약이 더욱 분발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화제의 신간
〈카르마의 실체〉
빙의령이여, 어디서 오는가?
마음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때 맑음이 온다. 맑음은 법신이다. 여기, 빙의령의 소멸과 카르마를 녹이는 천기누설의 비법, 관음(觀音)수행법을 공개한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12,000원

〈관음과 수식관 氣〉
행여, 깨달음을 얻으시려거든
법신(法身)은 순백의 맑음. 기(氣)는 법력이 아닌 에너지일 뿐이다. 생각을 작게 하는 것은 일심법의 핵심. 하지만 무상정득정각은 무심만이 얻을 수 있다.



전국 서점 판매중!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2,000원

숨이 배꼽근처에서 멈춘다 오쇼 라즈니쉬 지음 / 길연 옮김 신국판 / 242쪽 / 12,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스님 지음/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신한은행 110-012-066080 예금주(소광호)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불보살이 펼쳐낸 천상의 하모니… 성지순례 필수코스로

호남불교 중흥 · 한반도 불국화 · 세계 정토화 원력 세워
1만여평에 20여 전각 들어선 도량 마을과 경계 없이 공존

강진 남미륵사를 가다

중국의 마조(709~788) 선사가 남악회양 선사의 법을 이어받고 고향인 사천에 돌아갔을 때 이야기다. 시냇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이웃집 노파가 반가운 마음으로 "꼭 무슨 특별한 일이나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이 애는 마씨 농기구 집의 작은 아들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조 스님은 이 일을 겪은 후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자네들에게 권하노니, 고향에 돌아가지 말라. 고향에 돌아가면 도를 이루기 어렵다. 시냇가 옆집 할머니가 나를 어릴 때의 옛 이름으로 부르더라."

마조 대사와 마찬 가지로 공자 역시 고향에서 환대 받지 못하고 평생을 주유천하(周遊天下) 했고, 심지어 예수는 고향에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자수성가 해서는 낙향하지 않는 게 하나의 불문율처럼 돼온 종교계에서 고향에 뿌리를 내린 채 큰 불사(佛事)를 일으킨 스님이 있다. 한반도 최남단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마을 화방산에 자리한 남미륵사 주지 법흥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인연 있는 곳에 발원이 있고, 발원이 머무는 곳에 각자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뤄진다'는 고인의 말처럼, 법흥 스님은 1980년대 초 풍동마을에서 호남불교 중흥과, 한반도의 불국화, 세계의 정토화란 큰 원력을 발했다. 스님의 발원은 25년이 지난 2006년 4월 동양 최대(높이 36m)의 황동좌불 아미타부처님 건립이란 결실로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좌대(座帶)에서 불상까지 무려 36m로 아파트 12층 높이에, 전체 무게가 150톤에 달하는 황동좌불은 연꽃 모양의 좌대 높이가 5.6m에 이르고 꽃잎 하나의 높이만도 2.8m에 너비 1.7m, 무게 670kg에 달한다. 중국에서 좌대와 몸체 등을 나눠서 제작한 뒤 현지에서 600t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용접하는 형식으로 건립됐다.

웅장한 황동좌불과 함께 조성된 해수관음상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불자들의 기도처 역할을 하고 있다. 입소문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남미륵사가 삼사순례의 필수코스로 자리잡기까지는 법흥 스님의 원대한 발원과 쉼없는 용맹정진이 바탕이 됐음은 물론. 그동안 숱한 중상, 모략과 이교도의 방해와 고초를 이겨낸 원동력은 중생제도와 불교홍포에 대한 굳은 발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방산 기슭 1만여평의 부지에 대웅전을 비롯한 관음전, 극락전, 명부전, 산신각, 용왕전, 천불전, 요사채 등 20여 전각이 들어선 남미륵사는 도량 전체가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인 특이한 사찰이다. 게다가 마을과 뚜렷한 경계가 없이 함께 공존하는 점이 이채롭다.

남미륵사의 장엄함은 사찰의 초입에서 만나는 거대한 코끼리상들이 처음 방문한 여행객을 압도한다. 곧이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님을 뜻하는 불이문(不二門)을 지나 일주문(一柱門)을 통과하자마자 참새와 직박구리 등을 비롯한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이 관음정근 독경소리와 어울려 천상의 하모니를 연출한다.


부처님 열반상과 관음전.

온갖 나무로 우거진 숲길을 걸어가면 500분의 나한석상이 좌우로 길게 도열한 채 불자들을 반긴다. 쌍계루 부근의 18나한 석상들은 저마다 해학적인 표정으로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석재로 만들어진 사천왕상은 여느 절에서 흔히 봐왔던 목재상과는 달라서 더욱 강한 느낌을 준다. 곳곳에 자리한 수많은 불상과 13층 8각석탑과 14층 석탑은 불자가 아닌 일반인의 마음까지 움직인다.

대웅전에 참배한 후 뒤뜰을 돌아보니 연못과 함께 꾸며진 용왕당을 비롯해 산신각, 명부전 등이 아담한 정원과 함께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이윽고 33관음전에 올라가면 25m 높이의 석불 해수관음상이 아름다운 미소로 불자들을 굽어 살핀다.

다시 대웅전으로 내려와 숲길을 한 참 걸으면 마을이 나타나고 몇 채의 가옥 너머로 웅장한 황동좌불과 관음전이 모습을 드러낸다. 거대한 불상 앞에 서면 이 몸뚱어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본래 부처'를 잊어버리고 형상의 부처를 향해 절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찾아보면 절하는 이와 불상이 둘 아닌 도리를 깨닫는 날이 오지 않을까.

황동좌불 아래 자리한 관음전은 초록 기와 위에 용의 형상을 올려놓은 중국식 건물이다. 법당 내부에는 최문정 불화가(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전수조교)가 막 단청 불사를 완료한 상태다. 석조건축물이 많이 들어간 중국식 건축양식에 맞춰 단청 역시 중국풍의 느낌이 나게 그려졌다. 1만 부처님을 모실 예정인 만불전의 건축양식 역시 독특하다. 천탑 사이로 난 입구를 지나 만불전 도량에 들어서면 지붕 위에 좌정한 황동불상이 찬란한 황금빛을 발한다. 만불전 내부 천정과 벽면 좌우에 그려진 거대한 시왕탱화(十王幀畵)는 지옥을 실감 나게 표현했다. 남미륵사의 불상과 탱화는 하나하나가 불교예술의 걸작품이어서 반 세기만 지나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10여 명의 화공과 함께 만불전 마무리 단청작업에 여념이 없는 최문정 불화가는 "남미륵사의 불상과 전각, 탱화 및 단청은 최고 수준의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불사에 임하기에 불교문화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얼리는 데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맑고 깨끗한 정신이 남쪽에서부터 한반도 전체로 퍼지길 기원하는 절'이란 뜻을 담은 남미륵사. 남도의 불교성지이자 국민 관광지로 거듭난 남미륵사가 호남을 넘어 한반도와 세계로 밝고 맑은 청풍(淸風)을 드날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글 · 사진=김성우 기자




높이 36m의 아미타 황동좌불(오른쪽)과 해수관음상 및 13층 8각 석탑.

"빈손으로 왔으니 빈 손으로 가야죠"
하루 3시간도 안자고 불사한 남미륵사 주지 법흥 스님



법흥 스님(사진)은 14세에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해 나주의 한 사찰에서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그후 전국의 사찰과 토굴에서 정진과 만행을 거듭하며 득력(得力)해 틈틈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포교를 병행했다. 남다른 용맹정진이 알려지자 경상도 신도들을 비롯해 일본과 미국, 호주, 프랑스 교포들이 스님을 만나러 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스님은 23세 때 고향으로 돌아와 남미륵사를 창건하기로 마음먹었다. 1980년부터 불사를 시작하면서 하루 2~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을 정도로 온몸을 던져 불사에 힘을 쏟았고, 밤이면 발음당(發陰堂)에서 용맹정진 하며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왔다. 1년에 몇 개월씩 단식 수행을 하면서도 운력을 쉬지 않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원력을 보이고 있다.

황동좌불 건립에는 63억 이상의 불사금이 소요됐지만, 한 번도 공사비를 늦게 지급한 적이 없다. 일본의 한 신도가 24억원을 보시하는 등 신심 깊은 불자들도 힘을 보탰다. "자고 자면 하나의 탑, 하나의 불상이 새로 생긴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왕성한 불사가 진행된 데는 스님의 끊임없는 열정과 함께 천진불(天眞佛)과도 같은 무소유 정신이 근원이 되었다.

외형적인 불사와 함께 스님은 틈틈이 불우이웃을 위해 쌀을 보시하고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도량을 완성한 뒤 어르신들이 일생을 편안히 회향할 수 있는 양로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스님의 남은 서원이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죠(空手來空手去)."

스님은 "사찰이 완성 돼도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며, 남미륵사를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전세계 모든 불자들이 머물며 정진할 수 있는 도량으로 일구겠다는 서원을 거듭 밝혔다.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